

동북아역사재단 상고사 학술회의

한국상고사의 쟁점

2015.12.17  09:20~18:00

그랜드 힐튼호텔 컨벤션 D·E홀

〈일러두기〉

* 이 자료집은 동북아역사재단 상고사 학술회의 “한국 상고사의 쟁점” 발표문을 모은 것입니다. 각 발표문에 제시된 특정 주제에 대한 관점과 연구 결과, 제안 등은 발표자 개인의 견해이며, 재단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 상고사 학술회의 일정

| 일정 | 시간 | 발표자 | 주제 |
|------------------------------|-------------|--|--------------------------------|
| 개회식 사회 : 장석호 (역사연구실장) | 09:00~09:20 | 등록 | |
| | 09:20~10:00 | <p style="text-align: center;">〈환영사·축사·기념촬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사 :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축 사 : 이주영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 김세연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임내현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기념촬영 | |
| 발표 사회 : 박선미 (역사연구실) | 10:00~10:30 | 서영대 (인하대 교수) | 단군, 신화인가? 역사인가? |
| | 10:30~11:00 | 이도상 (사단법인 한배달 학술원장) | 고대 한·중 국경선 패수의 위치 비정 |
| | 11:00~11:30 | 공석구 (한밭대 교수) | 연·진 장성의 동단과 관련된 논의 |
| 토론 | 11:30~12:00 | 상호 질의 토론 | |
| 12:00~13:30 점심식사 | | | |
| 발표 사회 : 정원철 (역사연구실) | 13:30~14:00 |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 위만조선의 왕검성과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 |
| | 14:00~14:30 | 정인성 (영남대 교수) | 토성리토성(낙랑토성)의 발굴조사와 출토유물의 성격 |
| | 14:30~15:00 | 박정학 (치우학회 회장) | 민족 저력의 뿌리 상고사 복원 방향 |
| 토론 | 15:00~15:30 | 상호 질의 토론 | |
| 15:30~16:00 휴식 | | | |
| 종합토론 사회 : 박경철 (강남대 교수) | 16:00~18:00 | <p style="text-align: center;">발표자 전원</p> <p style="text-align: center;">토론 : 윤용구(인천도시공사), 심백강(민족문화연구원장)</p> | |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 | |
|--------|---|-----|
| • 환영사 |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01 |
| • 축 사 | 이주영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03 |
| |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 | 05 |
| | 김세연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07 |
| | 임내현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 09 |
|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11 |
| • 발표 1 | 단군, 신화인가? 역사인가? 서영대 (인하대 교수) | 15 |
| • 발표 2 | 고대 한·중 국경선 패수의 위치 비정 이도상 (사단법인 한배달 학술원장) | 23 |
| • 발표 3 | 연·진 장성의 동단과 관련된 논의 공석구 (한밭대 교수) | 45 |
| • 발표 4 | 위만조선의 왕검성과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 81 |
| • 발표 5 | 토성리토성(낙랑토성)의 발굴조사와 출토유물의 성격 정인성 (영남대 교수) | 107 |
| • 발표 6 | 민족 저력의 뿌리 상고사 복원 방향 박정학 (치우학회 회장) | 141 |
| • 토론문 | | 163 |

[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섭입니다.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이주영위원장님, 김세연 간사님, 임내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당장학회 이종찬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발표와 토론, 종합토론 사회를 맡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상고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의 열정에도 큰 박수와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국 상고사는 우리 민족의 시원에 대한 기억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의 첫머리를 바르게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상고사를 밝힐 수 있는 문헌 등 기록물들이 많지 않아 그동안 연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또한 사료 및 유물, 유적 자료 해석에도 연구자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회 등 국가적 차원에서 상고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연구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상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도 한국 상고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또 학계의 상고사 연구 쟁점에 대한 이견 해소와 연구 촉진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상고사에는 여러 쟁점이 있고,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각의 쟁점에 대해 진지한 학문적 소통보다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상고사의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라 하더라도 무시하거나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진지한 학술적 토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함께 자료를 검증하고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다보면, 우리 상고사의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마당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거듭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이종찬 이사장님,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역사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가정의 행복과 함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호 섭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영입니다.

「우리 상고사의 쟁점」에 대한 현명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마련된 오늘 상고사 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주신 「동북아 역사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지 4348년이 된 해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민족의 근간이 되는 전통사상인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체세이화(在世理化)의 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고구려 동명성왕은 이를 이어받아 이도여치(以道與治)를 국시로 삼았고 신라의 박혁거세는 광명이세(光明理世)의 정신을 이어왔으며, 지금 대한민국도 우리 민족에 면면히 내려오고 있는 「4대 정신」을 받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조선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건국의 출발점인 동시에 긍지와 자존심의 상징이며, 따라서 고조선의 강역과 실재 역사의 규명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역사의 사실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정통성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만년 장구한 우리의 역사를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밝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대의명제 속에 열리는 “한국 상고사의 쟁점” 학술회의는 국사학계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제안을 묶어 고조선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족의 뿌리와 우리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 뜻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깊이 있는 통찰과 제언이 도출되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주 영

[축사]



역사문제가 오늘날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종래의 검인정교과서를 중단하고 다시 국정화교과서로 바꾸려는 조치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데 따라 각계의 여론이 확산되어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지난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께서 “통일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돼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역사관에 대하여 우선 찬의를 표합니다. 일찍이 독립운동의 선열들도 당시의 지상과제인 나라의 ‘독립’을 놓고 똑같이 확고한 역사관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오호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천만 국민의 귀에 항상 애국이란 글자가 옥소리처럼 들리게 할까. 가로되 역사로서 그렇게 할지니라”라고 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강력한 나라로 지칭하는 나라는 모두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니라”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신채호 선생뿐 아니라 백암 박은식 선생, 성재 이시영 선생 모두 똑같은 역사인식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민족의 ‘통일’을 지향한다면 선열들이 ‘독립’을 위해 내세웠던 역사인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변나라로부터 엄청난 역사침탈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정한론(征韓論)에 기반을 둔 우익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이 바로 침탈,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막아내야 하고 우리의 것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의 공동 역사인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소홀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지난날의 과오를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민족사관을 정립한다고 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는 국수주의적인 사관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대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자는 것입니다. 역사의 명백한 문헌과 고고학적인 자료를 모두 모아서 정확한 역사서술의 입장에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동안 일제하 총독부에서 서술했던 역사인식을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술했던 역사는 어쨌든 식민사관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강압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혹시 지금의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들 가운데 일본의 역사인식에 일시적으로 미혹되었다 하더라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올바르게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동안 대국인 중국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 동북공정에 대하여 반론제기에 주저했던 분들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것을 찾고 지켜야 합니다.

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새롭게 우리의 역사를 정립하고자 출발하는 오늘의 이 모임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변강국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확고하게 우리의 것을 찾고 정립하는 길이야말로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임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합니다. 연암 박지원(燕岩 朴趾源) 선생은 <열하일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我朝鮮舊疆不戰自歷”(우리 조선 땅이 전쟁에 의하지 않고 (못난 선비들의 역사를 기술하는) 붓끝으로 스스로 줄어들었다) 이라고....역사학자들이어! 제발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맙시다.

2015년 12월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 이 종 찬

[축 사]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부산 금정출신 국회의원 김세연입니다.

「한국 상고사의 쟁점」을 주제로 하는 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 상고사에 대한 학계 다른 견해 간 소통을 강조하는 외부의 목소리에 열린 마음으로 응해주신 학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2013년 7월부터 2년 6개월여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우리 역사왜곡의 잔재 등 역사와 관련된 수많은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상고사와 고대사에 집중되어 있는 주변국의 역사왜곡을 찾아내고 진정한 우리 역사를 찾아내는데 주력하며 이를 함께 논의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학설 간에 건전한 교류와 토론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차원에서 한국상고사대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으나, 우리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첨병역할을 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주도하여 이런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민의에 대한 재단의 수용이고, 학계의 응답인만큼 더욱 의미있다 생각합니다.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만큼 열린 마음으로 상호 경청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역사를 포함한 어떠한 학문도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일반 국민의 상식과 이해력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학문은 없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상고사가 일반 국민, 그리고 미래세대인 학생들까지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열린 논의가 진행되어 대한민국 상고사가 주변국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하고 풍부한 연구분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오늘 학술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 세 연

[축 사]



반갑습니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임내현 의원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한국 상고사의 쟁점”을 주제로 상고사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1월 17일에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주최로 ‘상고사 대토론회-한군현 및 패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논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소위 말하는 주류 사학과 재야 사학의 학설에 대해 기탄없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사학계가 보다 더 활발하게 주류 사학과 재야 사학이 교류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느낀 토론회이기도 합니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간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나라 상고사 분야의 연구 성과가 학계에 전반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특히 동북아역사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우리 역사를 지탱하는 공공의 연구기관들이 상고사 연구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했다는 점은 동북아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며,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 특위 차원의 여러 요구와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8분의 역사학자께서 우리 상고사 분야의 여러 쟁점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된 것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서 요청하고 지적해 온 사항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수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앞으로 이러한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 상고사 연구의 활성화 및 지평 확장을 꾀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켜 나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임 내 현

[축 사]

식민사관 극복과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종환 의원입니다.

주변국들의 역사왜곡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고사 부분에서도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일본은 임나일본부설 등으로 역사왜곡을 하려 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아직도 일천한 수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주입된 식민사관을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와 지도 등을 미국 의회에 보냈습니다.

19대 국회는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를 2년 6개월 여간 운영했습니다. 상고사 부분 역시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쳤으나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 사이 주변국의 역사 왜곡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년반 만에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본부'를 통해 도쿄재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검증 대상으로 삼아 사실상 전후 질서를 부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동북공정'종료 이후에도 지방정부 산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고구려사 왜곡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을 중심으로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 정부와 학계가 합심하여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주변국의 역사왜곡을 막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하다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이런 회의를 개최해 극복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국회 역시 다음 국회에서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상설특위’로 전환하는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이견 없이 모두 동의한 사안입니다. 국회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를 상설특위로 전환하여 20대 국회에서도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제를 맡아 주신 서영대 교수님, 이도상 원장님, 공석구 교수님, 이덕일 소장님, 정인성 교수님, 박정학 회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도 종 환

〈발표 1〉

단군,
신화인가? 역사인가?

서영대 (인하대 교수)

단군, 신화인가? 역사인가?



서영대 (인하대 사학과)

목 차

- 1 문제의 발단
- 2 단군신화는 식민사학의 용어인가?
- 3 신화는 허구인가?
- 4 향후의 과제는 무엇인가?

I. 문제의 발단

○ 단군이 신화인지? 역사인지에 대한 논란

① 재야학자

- 신화 = 허구
- 일본인들이 단군 부정, 고조선 말살을 위해 사용
∴ 단군신화라는 용어는 식민사학의 잔재
단군 = 역사적 존재

② 일부 기독교 인사

- 신화 = 허구
- 단군은 신화이므로 단군 숭배 = 우상숭배
단군 = 신화적 존재



II. 단군신화는 식민사학의 용어인가?

① 신화라는 용어의 사용

- 서양어 myth의 번역어
- 일본; 1887년 무렵부터 사용하기 시작
 - * 한동안 ‘神傳’, ‘古傳’ 과 혼용되다가
 - * 1890년대 학술용어로 정착(스사노오 논쟁)
- 중국; 1903년 蔣觀雲의 「神話歷史養成之人物」
 - * 신화는 文明古國의 표상
 - * 중국신화가 단편적이라는 딜레마 해소를 위해 중국에도 원래 신화가 많음을 강조
 - * 신화를 통해 정체성 확보 노력
- 한국; 1900년 6월 25일자 『황성신문』 논설

② 일본학자들의 단군 연구

○ 1890년대부터 시작

┌ 긍정론; 일선동조론(須佐之男命 본인 또는 子 五十猛神)

└ 부정론; 단군사료는 후대에 날조된 것

사료적 가치 없고, 고조선도 허구

○ 논문 제목; 신화라 하지 않고 전설이라 했음

- 白鳥庫吉, 「朝鮮の古傳説考」(1894)

- 今西龍, 「檀君傳説について」(1910)

- 三浦周行, 「朝鮮の開國傳説」(1918)

- 小田省吾, 「謂ゆる檀君傳説について」(1926)

- 三品彰英, 「クマナリ考」(1935)

단군전설처럼 펴 후대에 정리된 전설 중에 어떻게 해서 熊女와 같은 오랜 신화적 요소가 잔존하게 되었는지는 불가사의하다."

③ ‘단군신화’ 는 한국학자들이 사용

○ 1908년; 신채호의 「讀史新論」

삼국 이전에는 우리 동방민족이 尙且 신시시대라 고로 당시 英哲이 모두 신화에 의하여 인민을 誘合하얏는데

○ 一熊; 「단군신화」, 『開闢』 1 (1920)

○ 李能和; 조선사편수회 2차위원회 발언(1923)

○ 崔南善; 「단군론」(1926) 「불함문화론」(1928)

○ 백남운; 「단군신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1933)

○ 김태준; 「단군신화연구」(1935)

* 신화; 신성한 이야기(단군 신성시)
민족 정체성의 근거

한글서체로 된 단군신화 연구 관련 텍스트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주로 단군신화의 신성성과 민족 정체성의 근거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④ 일본학자들의 문제점

- 단군신화는 후대에 날조된 것
∴ 역사성을 없음, 역사 반영하지 않음
- 『조선사』 1-1(1932) 동명왕 원년조에 수록
- 7차 위원회(1933)에서 최남선, 이능화 항의
- 공민왕 24년 白文寶 기사에 넣는 방안 제시- 불발
- 일본학자들의 일본 神代史에 대한 입장
- 신화, 神典(전설이라고도 함)
-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나, 일정 부분 역사 반영
(근거 없는 날조는 아님)

『조선사』 1-1(1932) 동명왕 원년조에 수록
- 7차 위원회(1933)에서 최남선, 이능화 항의
- 공민왕 24년 白文寶 기사에 넣는 방안 제시- 불발

III. 신화는 허구인가?

- ‘월드컵 4강 신화’
- 주어진 능력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위대한 일 달성

① 신화의 개념



- 우주, 인간, 문화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 신성한 이야기; 사물의 본질, 지식의 원천
* Mircea Eliade; sacred history
- 아무나, 아무 때 이야기될 수 있는 것 아님
- 특정인이 특정한 시간에만 이야기 가능

② 신화와 진실

- 초현실적 이야기
- ㄱ 현대인; 황당한 이야기
 - ㄴ 고대인; 진실한 이야기 (true story)
 - 진실; 믿어진 사실 (고대인은 거짓말쟁이 아님)
- 신화; 고대인의 사상, 문화 반영



③ 신화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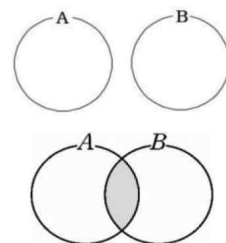
- 현존하는 질서 정당화
 - B. Malinowski; 현장적 기능
- 정당화할 현실이 바뀌면 신화도 달라짐
 - 로마 ㄱ Aeneas 신화 - 지중해 연고 주장
 - ㄴ Romulus 신화 - 내부 통합

④ 신화와 역사

- 공통점; 과거에 대해 말한다는 점

○ 차이점

- 과거를 말하는 목적
 - ㄱ 신화; 현존 질서 정당화
 - ㄴ 역사; 과거 구명 - 정당화, 교훈
- 성격
 - ㄱ 신화; 설화의 장르
 - ㄴ 역사;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학문



- 신화와 역사; 독립적 개념이 아니다.

cf. 신화/역사? = 선덕여왕은 여자? 왕인가?

⑤ 신화의 역사학적 연구
= 신화에 반영된 역사적 사실 탐구

- 문화권
- 정치, 사회구조
- 사상, 관념, 종교, 민속

- H. Schliemann의 Troy유적 발굴 - Homer의 *Ilias*



⑥ 현전 단군 사료;

- 고조선 관련의 국내자료; 『삼국유사』 『제왕운기』
- 고조선의 연대를 소급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 설화 장르; 신화라고 할 수밖에 없다
- 고조선 당시의 신화; 근거없이 날조된 것은 아님
 - 곰 신화; 동북아 문화와 같은 계통
 - 나름대로 특수성(人獸交婚 아님)

IV. 향후의 과제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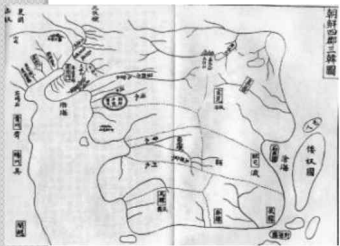
- ① 단군이 신화인가? 역사인가?라는 소모적 논란 중단
- ② 단군신화를 통해 어떻게 역사를 재구성할 것인가?
 - 전승의 유구성 확인; 고조선 당시의 신화
 - 歷史素를 탐색하여 고조선사 복원의 사료로 활용
('신화화 된 역사' ⇨ '신화의 역사화' 작업)
 - 한국 상고시대의 문화 이해
 - 정신 계승; 弘益人間

③ 식민사학의 내용과 본질을 제대로 파악, 극복?

- 낙랑=평양은 식민사학; 조선후기 실학자는?
- 현실; 조선사편수회 『조선사』 국가지원으로 번역

④ 동북공정에 올바른 대처 방안 마련

- 중국학계의 단군연구; 긍정론, 부정론 극복
- 자국사 범위에 대한 한,중의 차이 고려



東史綱目



海東釋史 地理考



汪濟縣 熊女像

최남선, 「壇君論」 (1926년 동아일보 연재)

시방까지의 壇君傳을 전하는 그대로 볼 양이면, 아무리 두둔하여 말하여도 그것이 一神話요, 전설이요, 역사적 信文이 아님은 무론이다. 그 神怪한 話意를 가져다가 그대로 史實로 觀하고 史蹟으로 化함은 아무라도 생각할 일 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의 癖으로는 그 神怪하여 實際스럽지 못한 점이 야말로 實學的 흥미가 끌리는 바요, 兼하여 그 자체의 연대적 支柱를 지 어서 적어도 古傳 古意로의 生命을 保持하게 되는 金剛座니, 시방 사람으로 보아서 믿지 못하겠다 할 것이기 때문에 古人이 믿던 것이 도리어 밝아도 지고, 古人이 믿던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느 종류의 역사적 遺珠, 그 려지 못하여도 인류학적 민족학적 新光이 기대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이것 이 繇으로 一神話-고대의 一民衆詩, 一原始哲學에 그치지 아니하고 확 실한 사실적 배경을 가져서 얼마만큼이라도 역사적 암흑을 끌어 헤치는 도 움이 된다하면, 이것이 도리어 망외의 소득이라고도 할 것이다.

〈발표 2〉

고대 한중 국경선 패수의 위치 비정

이도상 (사단법인 한배달 학술원장)

고대 한중 국경선 패수의 위치 비정

이도상 (사단법인 한배달 학술원장)

1. 문제의 제기

광복과 분단 70년,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통일한국의 터를 닦는 정지작업이라는 차원에서 한국고대사 복원은 지나치게 늦은 절실한 문제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패수를 제 위치에 갖다놓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패수의 본래 위치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잠시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편찬체제 변천과정을 살펴보자. 그것은 우리 역사학계의 현상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1974년부터 국정체제였던 국사교과서 편찬체도가 2003년 국사에서 근현대사만 떼어서 검정체제로 바꾸었고, 2011년부터는 한국사 전체를 검정체제로 전환하였다.¹⁾

국사교과서 편찬체도가 검정체제로 바뀐 후 거의 대부분의 한국사 교과서가 민중사학자들에 의해 집필되었고 좌편향 논리로 쓰여진 교과서를 공부한 청소년들의 의식이 심각한 반국가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부끄러운 나라에 태어났다고 가르치는 교육, 반국가적으로 굳어져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버려두는 어른들의 방심이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어찌해야 하는가?²⁾

현재 역사교육 현장에는 심각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민중사학이 현

1) 국정체제는 정부가 교과서 집필자를 구성하여 내용, 감수, 발행까지 책임지는 체제이고, 검정체제는 출판사가 집필진을 자체 섭외하여 제작 후 정부의 심사를 받는 체제를 말한다. 조선일보 2013. 10. 3일자 기사 참조
2) 이주한, 『위험한 역사시간』, 인문서원, 2015, 179~208쪽. ; 정경희, 『한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 되었나』, 비봉출판사, 2013. 참조

대사를 왜곡하여 국민의 의식세계를 해치는 현상이다.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6.25전쟁과 통일 논의 등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민중사학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영혼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의 의식세계를 극도로 악화시킬 수도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 국사교과서 국정체제화를 추진함으로써 민중사학의 해악을 막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다른 하나는 식민사학이 한국고대사를 왜곡하여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을 저해하고 있음이다. 민족의 사상과 문화의 원형을 담고 있는 고대조선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민족의 기원에 대한 담론을 기피하는 분위기는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나 필자는 회초리로 내 종아리 때리는 심정으로 우리사회의 우려되는 역사의식 부재현상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역사학계 일부에서는 식민사학을 극복하자는 논의에 대해 동문서답(東問西答) 또는 곡학아세(曲學阿世)하거나 묵묵부답(默默不答)으로 침묵한다. 지도층은 수수방관(袖手傍觀)하다가 표와 관련될 경우 감탄고토(甘呑苦吐)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이야기는 ‘나와 무관한 강 건너 불’이라는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국민의 역사의식 미흡은 남북한의 역사인식 이질화와 함께 통일한국을 앞당기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분명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의식수준은 어떠한가? 나라사랑, 준법정신, 시민의식은 결여돼 있고 기본이 안 지켜지는 사회,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문화에 대한 우려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 그것은 지도층이 도덕적 해이 속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고, 역사교육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아를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고대사 복원을 통해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정리해서 전해줘야 할 절실한 시점이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 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경우 우리가 이룩한,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이 한낱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2. 한국고대사 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1) 일제의 역사왜곡과 식민사학

광복 후에 편찬된 국어사전에서 ‘식민(植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본국과 정치적 종속관계에 있는 곳에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인민을 이주시키는 일 또는 그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국은 일본을, 종속관계에 있는 곳은 조선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식민사학이란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의 역사해석으로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이자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즉 한국인은 역사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밀려나야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망발인가. 그럼에도 이러한 논리가 현재 역사교육 현장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어찌해야 하는가?

한국사는 지금까지 대학입시, 공무원 임용시험과는 무관한 과목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무관심 영역이었고, 학부모와 국민의 무관심으로 이어져왔다. 이는 오직 역사학계가 알아서 해야 하는 고유 영역으로 방치돼왔음을 의미한다.

일제의 역사왜곡 과정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 지금부터 105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일본에 병탄되었다. 그 후 일제는 1910년부터 다음 해 말까지 구관(舊慣), 사료(史料), 고적(古蹟)조사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뒤져서 20만 여 역사서적을 압수해 불태워버렸다. 이어 『조선반도사』 편찬과(1916년)에 이은 『조선사』 편찬위원회(1922년)를 설치하고 이를 다시 『조선사』 편수회(1925년)로 개편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사를 왜곡, 드디어 1938년에 무려 2만 4천 쪽에 달하는 『조선사』 35권(부록으로 『조선사료총간』 20종과 『조선사료집진』 3질 포함)을 발간하였다.³⁾

『조선사』 35권의 편찬에 깊이 관여했던 총독들의 망언을 들어보자. 초대총독 데라우치(寺內政毅, 1910. 10 ~ 1916. 10)는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만 미개의 민족과 달라 ... 고래로부터 사서가 많아 ... 이와 같은 사적들의 절멸을 강구하는 것은 오히려 전파를 격려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차라리 구사를 금압하는 대신에 공명 적확한 사서를 만드는 것이 첩경이며 또한 그 효과가 새롭게 현

3) 이도상, 『일제의 역사침략 120년』, 경인문화사, 2003, 100~119쪽.

저할 것이다”라고 편찬 목적을 밝히고 있다.⁴⁾ 3대 총독 사이토(齊藤實, 1919. 8 ~ 1927. 12)는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조상의 무위, 무능, 악행을 많이 들추어 내 과장하여 알려줌으로써 부조를 경시, 멸시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실의와 좌절에 빠지게 한 후 일본의 사적, 문화,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조선인을 반 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라고 하여 『조선사』를 어떻게 써 나가야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⁵⁾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조선사』 35권은 첫째, 진실이 심하게 왜곡돼 있다. 한국 역사의 상한 연대를 고의로 끌어내림으로써 한민족의 기원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서인 것이다. 둘째, 한민족의 패배주의를 조장한다. 식민지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작성된 이 사서는 한국사를 정체성과 타율성의 역사로 매도한다. 셋째, 한국을 세계적으로 악선전한다. 당과성을 강조하여 민족성을 폄하하는가 하면 반만년의 역사를 왜곡하여 대한민국이 마치 신생독립국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조선사』 35권은 한국인의 열등의식과 자조(自嘲)사상을 조장하는 지극히 불량한 사서인 것이다.

2) 식민사학의 아킬레스건

식민사학은 광복과 더불어 우리 역사학계에서 배제됐어야 옳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교육현장에 그대로 승계됨으로써 우리 의식 속에 고정관념으로 남아있다. 시작이 잘 못된 것이다. 식민사학자들이 제도권에 진입하여 형성한 학풍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생존 영역을 확보하여 튼튼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사학 극복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식민사학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시정을 촉구하는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민족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다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은커녕 오히려 ‘가슴으로 역사를 찾으려 한다.’하는 비아냥거림을 받거나 부분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전체적인 민족사 줄거리를 세우는데 차질과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근거를 대라’는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식민사학의 핵심은 고대조선사를 부정하고 한국사는 한사군과 임나일본부의 지배로부

4) 『朝鮮史編修會 事業概要』 第二章 朝鮮半島史의 編纂, 朝鮮半島史 編纂要旨.

5) 서희진,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1, 고려원, 1986. 15쪽

터 시작되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고대조선사를 복원하면 식민사학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남북한지역 안에 존재했었다는 한사군과 임나일본부의 본래 위치를 밝히는 일이야말로 식민사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킬레스건이다. 기자, 위만의 망명과 한사군의 설치하는 고대 한중 국경선이었던 패수를 건너면서 이뤄진다. 따라서 이 패수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은 고대조선사 복원의 열쇠이자 식민사학 극복의 시작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역사학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3) 고대 사료의 활용과 해석

고대 한중 국경선을 말하는 우리의 고문헌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나 고대 한중 국경선을 추정할 수 있는 중국의 고문헌은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고대 중국 사료를 활용하여 고대조선의 서쪽 국경을 알아보는 것은 가능하다. 중국인들은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변방 국경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의 동북 국경을 확인하면 그곳이 고대조선의 서쪽 국경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진(秦)·한(漢)의 동북 국경이 고대조선과 접(接)했다’는 말은 진한의 동북 국경이 고대조선의 서남 국경이라는 뜻이다. 다만 중국 고대 사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객관적 사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잘못 해석(曲解)하여 역사왜곡으로 이어지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사료의 곡해가 역사왜곡으로 이어지는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史記』 卷2의 갈석(碣石)에 대한 주석인 『사기집해(史記集解)』에 수록된 내용으로 太康地理志云 樂浪遼城縣有碣石山長城所起(태강지리지에 말하기를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라 하였다)라는 문장이 있다.⁶⁾ 태강지리지는 서진(西晉)시대의 지리서인데 여기서 수성현은 낙랑군 소속이며 낙랑군은 갈석산 지역에 있었고, 갈석산은 난하 유역에 있는데 만리장성은 갈석산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문장을 소개하는 통전(通典)의 저자 두우(杜佑)는

「通典」 卷186 〈邊防〉 ‘東夷 高(句)麗’에서

碣石山在樂浪郡遼城縣(갈석산은 한의 낙랑군 수성현에 있는데 장성은 이 산에서 시작되었다) … 按《尚書》云夾右碣石入於河(생각하건데 《상서》에 이르기를 협우갈석 입어

6) 태강(太康)은 서진(西晉) 무제(武帝) 때의 연호로 서기 280~289년 기간을 말한다.

하라 했으니) … 右礪石卽河赴海處(우갈석은 강이 바다를 향한 곳으로) … 在今北平郡南二十餘里(지금의 북평군 이십여 리에 있다) … 則高麗中爲在左礪石(그러므로 고구려 안에 있는 것은 좌갈석이 된다)라고 해석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夾右礪石入於河’에 대한 해석이다. ‘갈석을 오른쪽으로 끼고 강으로 들어간다.’는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 두우는 ‘우갈석을 끼고 강으로 들어간다.’고 주석하였다. 그러다보니 우갈석에 대칭되는 좌갈석이라는 산이 있어야 했고 따라서 좌우갈석 논쟁으로 번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이 논쟁은 갈석산을 끼고 흐르는 고대 요수(난하)의 위치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져 한사군의 대동강설로까지 발전했다는 생각이다.⁷⁾

3. 패수의 위치와 근거 사료

1) 일제의 역사왜곡 초점

일제가 왜곡하고자 했던 것은 고대조선사를 없애고 한국사를 한사군과 임나일본부의 지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엮으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초점을 맞춘 것이 패수 위치를 남북한 지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었다. 그래야 기자국, 위만국, 한사군이 남북한 지역 안에서 차례로 세워졌다가 멸망하면서 한국사는 중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되고 만다. 그래야 근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침탈이 아닌 역사의 복원이라는 명목으로 합리화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패수란 무엇인가?

윤내현 교수에 의하면 패수는 고대조선족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강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였다고 한다. 뽕라, 뽕알라, 꺾라, 꺾라, 벌라 등 통구스계통의 종족 언어가 향찰식(鄉札式)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요하, 사하, 고

7) 통전(通典)은 당나라의 두우(杜佑, 735~812)가 편찬한 문물제도사이다. 이 기록은 당나라와 이웃하고 있던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다. 윤내현, 『사료로 보는 우리 고대사』, 지식산업사, 2007, 90~91쪽.

려하, 대능하, 란하 등 여러 강이 모두 패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⁸⁾ 그런데 조선사편수회에서는 패수는 보통명사라는데 착안하여 발해와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여러 강 가운데 고대 한중 국경선으로서 패수를 가능한 한국 쪽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게 된다. 처음 패수는 요하라 했다가 점차 압록강에서 청천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동강이 고대 한중 국경선이었던 패수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것이 광복 후 국사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우리 인식 속의 고대사 강역은 대동강 안쪽으로 줄어든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역사학계의 패수 위치 논란

우리 국사교과서에 실린 패수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식민사학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위만은 청천강 유역의 유이민과 토착민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했다.”느니 “진(秦)·한(漢)대 중국과 경계지역은 패수였는데 지금의 대동강(또는 청천강)을 말한다.”는 식의 설명들이 곧 그것이다. 조선사편수회의 주장 말고는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논리에 따라 우리 역사는 고대조선사가 부정되고 중국인 위만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으로 전락하고 만다.⁹⁾

그러나 『史記』 卷115 「朝鮮列傳」에서 말하는 패수는 난하(灑河)를 지칭하며 그것은 낙랑군 수성현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 역사의 시작은 고대조선부터이며 위만과 그 뒤를 이은 한사군은 난하의 동쪽이자 고대조선의 서쪽 변방에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에 주목해야 한다.¹⁰⁾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왜곡, 즉 동북공정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¹¹⁾

8) 윤내현, 「위만조선의 재인식」, 『사학지』 19집, 1986. 5쪽.

9) 이병도, 「위씨조선 흥망고」, 『논문집』, 서울대학교, 4289(1956), 15~16쪽 ; 이병도, 「위씨조선 흥망고」, 『한국고대사 연구』, 박영사, 1981, 213쪽 ; 김정배, 「위만조선의 국가적 성격」, 『사총』 21·22합집, 고려대학교 사학회, 1977, 73쪽 ; 노태돈 편저,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64쪽

10) 이도상, 『고대조선, 끝나지 않은 논쟁』, 들메나무, 2015. 36~41쪽. ; 윤내현 『古朝鮮研究』 상, 만권당, 2015 참조

11) 이덕일, 『우리 안의 식민사관』, 만권당, 2014. 211~229쪽. ; 황순중, 『식민사관의 감춰진 맨얼굴』, 만권당, 2014, 40~46쪽.

3) 한중 국경선 패수를 말하는 사료

사마천(司馬遷)이 쓴 『史記』 卷115 「朝鮮列傳」은 復修遼東故塞至涇水爲界屬燕(요동 옛 요새를 고쳐 패수까지 경계로 하여 연에 속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 패수가 연의 동쪽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또 燕王盧綰反入匈奴(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고 흉노로 들어가자) 滿亡命聚黨千餘人 魑結蠻夷服(위만이 일당 천여 명과 더불어 상투를 틀고 만이복을 입고) 東走出塞渡涇水(동으로 달아나 요새를 빠져나와 패수를 건너) 居秦故空地上下鞞(진의 옛 공지 상장과 하장에 기거하였다)고 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패수는 연의 동쪽이자 서한의 동쪽에 있음을 말한다.

반고(班固)가 쓴 『漢書』 「地理志」에는

殷道衰箕子去之朝鮮 教其民以禮義田蠶織作(은의 도가 쇠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예의와 밭 갈고 누에 키우고 배 짜고 일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기자가 고대조선 서쪽 변방에서 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고대조선은 건재한 상태였다.

또 상흠(桑欽)의 『水經』 과 허신(許慎)의 『說文解字』에는

涇水出樂浪鏤方縣東入于海(패수는 낙랑 루방현을 나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루방현은 난하 유역에 있고 동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강은 남북한 지역이 아닌 중국의 발해 연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사료들을 근거로 패수를 제 위치에 가져다 놓고 본래 한국고대사 강역을 그려보자. 패수는 지금의 난하이므로 기자가 난하를 건너 고대조선 변방으로 망명해 왔고, 그의 41대 손 준왕 때에 이르러 연에서 망명해온 위만에게 멸망한다. 위만이 세운 위만국은 그의 손자 우거 때에 한 무제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그 지역은 한사군이 들어선다.

따라서 기자, 위만,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 세력들의 활동은 고대조선의 서쪽 변방에서 이뤄졌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조선과 그 뒤를 이어 일어난 북부여를 포함한 동부여, 고구려, 읍루, 옥저, 동예, 최씨 낙랑, 백제, 신라, 가야 등등 여러 나라들을 지금의 남북한 지역과 만주 일대에 무리 없이 그려 넣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패수는 곧 난하라는 사실의 확인이 고대조선사 뿐만 아니라 한국고대사를 복원하는 기점이라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제시한 사료들을 무시하고 조선사편수회에서부터 주장돼 온대로 패수를 대동강(또는 청천강)이라는 입장에서 한국사를 그려보면 우리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여러 고대 국가들이 모두 우리 민족이 활동했던 강역 밖으로 벗어난다. 즉, 이들을 모두 바다 속으로 밀어 넣든지 허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지우든지 아니면 중국 역사에 편입시켜주는 쪽으로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패수는 대동강이었다는 논리는 소위 반도사관의 핵심이자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제가 대동강 유역으로 한사군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한국사를 반도사관으로 유도하여 만주일대에서 전개된 한국 고대사를 일체 부정하고, 식민사학의 두 기둥인 한사군이 북한지역에서, 임나일본부가 남한지역에서 식민지 지배를 함으로써 한국 역사는 중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엮으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동북공정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우리 역사학계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식민사학 논리를 인용하는 것으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 고대사 복원이 절실한 이유이다.

4) 사료검색

사료검색 #1. 고대의 요수는 지금의 난하¹²⁾

요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고대 한중관계를 파악하고 한국고대사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이라 할 수 있다. 고대 요동은 고유명사가 아니었다. 중국인들은 동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을 말할 때 요동이라는 용어를 썼다. 지금의 극동과 같은 개념이었다. 그런데 한 지역이 오랜 기간 요동이라 불리면서 세월이 흐르면 그 지역 명칭이 고유명사가 되는 수가 있다. 또 고유명사가 되기 전에 영토가 동쪽으로 확장되면 요동도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서 앞에서 제시한 사료들을 살펴보면 고대의 요수는 지금의 난하였고 난하 유역의 갈석산 지역이 고대 요동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요서 지역이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지금의 요하 동쪽이 요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서한 초 회남(淮南)왕 유안(劉安)이 편찬한 『淮南子』 卷4 「陰形訓」에는

12) 윤내현, 『사료로 보는 우리 고대사』, 지식산업사, 2007. 96~100. 윤내현, 『古朝鮮研究』, 만권당, 2015. 54~62쪽; 심백강, 『사고전서 사료로 보는 한사군의 낙랑』, 바른 역사, 2014. 107~114쪽.

遼水出碣石山 自塞北東流 直遼東之西南 入海(요수는 갈석산을 나와 요새의 북에서 동으로 흘러 곧바로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여기서 갈석산을 끼고 흐르는 강은 난하 밖에 없다. 난하는 갈석산을 나와 동남으로 흘러 갈석산 서남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지금의 요동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고, 고대의 요동은 하북성 창려현 갈석산 지역이었다.

서한 선제(宣帝) 때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에 관한 토론집 『鹽鐵論』 卷9 「險固」 에는 燕塞碣石 絕邪谷 繞援遼(연나라는 갈석산을 국경의 요새로 삼고 사곡에 의해 끊기었으며 요수에 의해 둘러싸였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연의 동쪽에 있는 갈석산 지역이 고대 요동이었다는 것이다.

사료검색 #2. 기자는 고대조선의 제후국¹³⁾

기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함으로써 그가 고대조선의 뒤를 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군왕검이 세운 나라는 전조선이고 기자가 세운 나라는 후조선이라 하였다. 이 논리는 고려 숙종시대부터 출현하여 근세조선으로 이어진 통설이 되었다. 이는 유교가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고 모화사상이 팽배해진 시기의 사대주의적 역사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일제 시기 일본인들이 기자를 전설적인 인물로 폄하함으로써 기자동래설이 부인되었다.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에서 기자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기자의 후손은 그대로 남아 고대조선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다. 한국고대사 서술상의 모순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史記』 卷38 「宋微子世家」 에는

於時武王乃封箕子於朝鮮而不臣也(이때 무왕은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그러나 신하는 아니었다)고 하고 있다. 기자는 실재한 인물이며 주 무왕이 신하가 아닌 기자를 조선에 봉한 것은 의례적인 표현으로 봐야 한다.

『尙書大傳』 卷2 「殷傳-洪範」 에는

武王勝殷(무왕이 은을 이기고)…釋箕子之囚(기자를 죄수 신분에서 석방하였다)…箕子不忍爲周之釋 走之朝鮮(기자는 주나라에 의해 석방된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조선으로 도주하였다)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무왕은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조선에 봉하였다)고 했다. 스스로 조선으로 망명한 기자는 주 무왕의 신하가 아님이 분명하다.

13) 윤내현, 『사료로 보는 우리 고대사』, 140~149쪽 참조; 심백강, 앞 책 46, 72쪽.

『漢書』 卷28 「地理志」 下에는

應劭曰 武王封箕子於朝鮮(응소가 말하기를 무왕은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하였다)고 실려 있다.

또 『晉書』 卷12 「地理志」 上에는

朝鮮縣 周封箕子地(조선현은 주나라가 기자를 봉한 땅이다)고 했다. 위 두 사료는 낙랑군 조선현에 대한 설명으로 낙랑군 25개 현 가운데 조선현을 지칭하고 있다. 조선현은 서한(西漢)과 동한(東漢)시대부터 진(晉)시대까지 낙랑군 소속이었다.

사료검색 #3. 위만국의 위치는 난하유역¹⁴⁾

위만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위만은 고대조선의 준왕(準王)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워 고대조선을 승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역사인식이다.

위만이 세운 나라는 고대조선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고대조선의 변방에 위치한 기자국을 멸망시키고 성립한 나라로서 고대조선의 흥망과는 전혀 무관하다. 기자가 망명한 곳이 고대조선 지역이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그가 세운 나라를 기자조선이라고 부르듯이 위만이 세운 나라도 위만조선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정확한 호칭이 아니다. 기자가 세운 나라나 위만이 세운 나라 이름에 조선이라는 호칭을 붙여서는 안 된다. 기자국이 지금의 난하 유역에 있었으며 이를 멸망시키고 들어선 위만국 역시 이 지역에 있어야 맞다. 위만국은 처음에 난하 유역에서 수립되었지만 서한의 외신이 되어 서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능하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魏略』(『三國志』 卷30 「魏書」의 「烏丸鮮卑東夷傳」 韓傳의 주석)에는

及盧綰反入匈奴衛滿亡命…東渡沛水 詣降準(노관이 한나라에 반기를 들고 흉노로 들어감에 이르러 연인 위만이 망명을 하였는데…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준에게 가서 항복하고) 說準求居西界 收中國亡命爲朝鮮藩屏(준을 설득하여 서쪽 경계에 살게 해주기를 요구하면서 중국 망명객들은 모아 조선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하였다)…準信寵之拜爲博士賜以圭封地千里 令守西邊(준은 그를 믿고 총애하여 박사를 제수하고 규를 하사하였으며 천리의 땅에 봉하고 서쪽 변경을 지키도록 하였다)…乃詐遣人告準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곧 사람을 준에게 보내어 거짓으로 고하기를 한나라 병사들이 열 개의 길로 오고 있으니

14) 윤내현, 『사료로 보는 우리 고대사』, 169~185쪽; 윤내현, 『古朝鮮 研究』, 만권당, 63~70쪽.

들어가 숙위하겠다고 말하고는 마침내 들어와서 준을 공격하였다. 준은 만을 맞아 싸웠으나 적수가 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위만이 동쪽으로 건넌 패수는 지금의 난하를 말한다. 패수를 대동강으로 볼 경우 위 근거 사료들의 설명은 성립할 수 없다.

『史記』 卷115 「朝鮮列傳」의 위만국에 관한 기록은

朝鮮王滿者 故燕人也(조선왕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爲置吏築鄣塞(연나라는 전성기로부터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공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기 위하여 장새를 쌓았다) 秦滅燕屬遼東外徼 漢興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至淇水爲界 屬燕(진나라는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그것을 요동 외곽 요새 관할 아래 두었다. 한나라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멀어서 지키기 어려우므로 요동의 옛 요새를 다시 수리하고 패수까지를 경계로 삼아 연의 관할 아래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만의 활동을 말하는 위 사료들은 패수가 멀지 않은 연의 동쪽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사료검색 #4. 한사군의 위치는 요서지역¹⁵⁾

한사군에 대한 학계의 통설은 첫째, 위만이 고대조선의 왕이 되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 둘째, 한 무제가 위만의 고대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다. 셋째, 한사군은 북한지역과 남만주 일대에 걸쳐서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북한지역은 원래 서한의 영토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잘못된 것임을 다음 사료들이 말해준다.

『史記』 卷115 「朝鮮列傳」에는

元封三年夏 尼谿相參人殺朝鮮王右渠來降(원봉삼년-서기전 108년-여름에 니계상 삼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와서 항복하다)…誅成己 以故遂定朝鮮 爲四郡(성기를 죽이니 이로서 조선은 마침내 평정되어 4개 군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漢書』 卷95 「西南夷兩粵朝鮮傳」에는

故遂定朝鮮爲眞番臨屯樂浪玄菟四郡(조선은 마침내 평정되어 4개 군이 되었다)하고

『漢書』 卷64 「嚴朱吾丘主父徐嚴終王賈傳」에는

西連諸國至于安息(서쪽으로는 여러 나라가 이어져 안식에 이르고) 東過碣石以玄菟樂浪爲郡(동쪽으로는 갈석을 지나 현도와 낙랑으로써 군을 만들었으며) 北卻匈奴萬里 更起營塞(북쪽은 흉노를 만 리 밖으로 쫓아내어 병영과 요새를 다시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

15) 윤내현, 『사료로 보는 우리 고대사』, 201~213쪽; 윤내현, 『古朝鮮研究』, 만권당, 467~503쪽.

다. 이 기록들은 한사군의 설치과정과 위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한사군은 갈석산을 서쪽 경계로, 동쪽은 지금의 요하에 이르는 요서지역을 말하며, 낙랑군과 현도군은 갈석산을 서쪽 기점으로 하여 그 동쪽에 위치한다.

5) 우리 사서의 고대사 왜곡 현상

『高麗史』 卷63 「禮志」, 吉禮小祀 - 雜祀는

肅宗七年…十月壬子朔禮部奏(숙종 7년…10월 임자 일에 예부에서 말하기를) 我國教化禮義自箕子始 而不載祀典乞求其墳塋立祀以祭 從之(“우리나라의 예의를 교화한 것은 기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전에 실려 있지 않으니 그의 분묘를 찾아서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고 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고 쓰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묘와 사당이 만들어지고 제사를 받드는 기원은 고려 숙종 7년인 1102년부터로 볼 수 있음이다.

이는 고대조선 변방으로 망명하여 겨우 난하 유역에 정착한 기자를 지금의 북한지역으로 모셔다가 고대조선의 뒤를 이은 후조선의 시조로 격상시킴으로써 역사왜곡의 단초가 되었다. 그것은 당시 중국 문화와 유학이 고려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던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역사인식의 결과로 볼 수 있겠다.

『高麗史』 卷12 「地理志」 西京留守官平壤府條에는

西京留守官平壤府本三朝鮮舊都(서경 유수관 평양부는 본래 세 조선의 옛 도읍이다) 唐堯戊辰勢 神人降于檀木之下 國人立爲君都平壤號檀君 是爲前朝鮮(당요 무진년에 신인이 단목 아래로 내려오니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워 군주로 삼아 평양에 도읍하고 단군이라 부르니 이것이 전조선이다) 周武王克商封箕子於朝鮮 是爲後朝鮮(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정복하고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이것이 후조선이다) 逮四十一代孫準時有燕人衛滿亡命 聚黨千餘人來奪準地 都于王險城 是爲衛滿朝鮮(41대 후손 준에 이르러 이때 연 지역에서 망명한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 천여 명을 모아 무리를 만들어 쳐들어와 준의 땅을 빼앗고 왕험성에 도읍하니 이것이 위만조선이다) 其孫右渠不肯奉詔 漢武帝元封二年遣將討之定爲四郡以王險爲樂浪郡(그 손자 우거가 황제의 명령을 받들지 않으니 한나라 무제는 원봉 2년에 장수를 보내어 그를 토벌하고 평정하여 4개 군을 만드니 이로써 왕험은 낙랑군이 되었다)고 쓰고 있다.

고려사는 고려 시대 자료를 바탕으로 근세조선 초에 편찬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고대조선을 전조선, 기자국을 후조선, 위만국을 위만조선이라 하여 삼 조선으로 호칭하고 있다. 또 이들은 모두 지금의 평양인 고려 시대의 서경에 도읍했다고 쓰고 있다. 문제는 이 논리가 조선과 일제 식민지배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한국 사학계의 통설로 정착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선사편수회 주장에 따라 기자는 삭제하고 그 자리는 기자의 후손인 준왕이 유지하고 있다.

『帝王韻紀』 卷下 「前朝鮮紀」에는

初誰開國啓風雲釋帝之孫檀君(처음 어떤 사람이 나라를 열고 바람과 구름을 인도하였던가, 석제의 후손 단군이였다) …入阿斯達山爲神亨國一千二十八(아사달 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 나라를 다스리기 1028년이였다) … 却後一百六十四仁人聊復開君臣 後朝鮮祖是箕子(그 뒤 164년 만에 어진 사람이 나타나 겨우 군주와 신하를 부활시켰다. 후조선의 조상은 기자이다) … 四十一代孫名準 被人侵奪聊去民(41대 손 이름은 준인데 어떤 사람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니 백성도 가버렸다)고 쓰고 있다.

위 기록을 보면 단군이 개국하여 고대조선은 1208년간 유지되었고 고대조선 멸망 후 164년 만에 기자가 후조선을 세웠다. 이 나라는 41대 손 준왕 때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기자를 우리 역사에 끌어들이므로써 불가피하게 고대조선의 역사를 단절시켜야 했고 기자국의 뒤를 이은 위만국까지 고대조선의 중심에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역사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¹⁶⁾ 漢將衛滿生自燕 高帝十二丙午年來攻逐準乃奪國(한나라 장수 위만은 연나라에서 출생하여 한고조 12년 병오 년에 와서 준을 공격하여 축출하고 나라를 빼앗았다) 至孫右渠盈厥愆漢虎(武)元封三癸酉 命將出師來討焉(손자 우거에 이르러 그 허물이 가득 차니 한 무제 3년 계유년에 장수에게 명하여 군대를 출동하여 와서 토벌하였다) … 因分此地爲四郡(이로써 이 땅은 나뉘어 4개의 군이 되었다)고 쓰고 있다.

연나라에서 출생한 위만이 한 고조 12년에 준을 공격하여 축출하고 세운 나라가 위만국인데 그 손자 우거에 이르러 그 허물이 가득 차니 한 무제가 원봉 3년(서기전 108년)에 병력을 출동시켜 토벌하고 4군을 설치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기자국을 고대조선 한 가운데에 위치시키니까 위만국과 한사군이 지금의 북한지역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16) 고대조선의 역년은 『三國遺事』의 ‘後還隱於阿斯達山爲山神’과 ‘壽一千九百八歲’에 근거해 단군왕검 이 나라를 세운 서기전 2333년부터 서기전 425년까지 1908년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도상, 『고대조선, 끝나지 않은 논쟁』, 돌메나무, 2015, 282쪽.

고대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을 고려의 서경(평양)에 정착시킨 역사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정리한 우리 고대 사서들의 역사왜곡 현상들이라 하겠다.

4. 국사교과서 개편

현재 국사교과서에 실려 있는 인식이 잘못된 내용을 간추려보면

첫째,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하게 대륙과 해양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둘째, 고대조선사는 역사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공된 허구의 역사이다.

셋째, 한국 민족사는 기자, 위만, 한사군의 지배로부터 시작되었다.

넷째, 패수는 대동강이며 한사군의 중심지였던 낙랑군은 평양이었다.

다섯째, 한국 민족은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당파성이 강한 민족이다.

여섯째, 일본의 한국지배는 침략이 아닌 역사의 복원이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역사는 타율성과 정체성의 역사이며 중국문명의 변두리 역사로서 일본에 대륙 문명을 전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 역사일 뿐이라는 것이 소위 학계의 통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의식세계를 장악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민족의 사상과 문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고대조선의 역사를 역사로서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화일 수도 있다는 모호한 논리로 정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민족의 기원에 대한 담론인 단군왕검사화마저도 가정과 학교에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사교과서는 바르게 다시 고쳐 써야 한다.

첫째, 역사적 근거를 찾아 고대조선의 건국 사실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를 엮는 투의 국사교과서 내용은 수정해야 한다.

둘째, 민족의 정체성에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은 시정해야 한다. 예컨대 기자의 활동 위치, 위만의 역할과 활동 내용, 한사군의 위치 등은 정확한 근거를 찾아 제 위치에 갖다 놓아야 한다.

셋째, 성립할 수 없는 사실 왜곡과 앞뒤가 맞지 않는 서술상의 모순은 시정돼야 한다.

예를 들면 “위만왕조의 고조선이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는 서술 내용은 전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주체성이 결여된 용어는 바른 용어로 바꿔 써야 한다. 예컨대 기자조선, 위만조선, 기원, 기원전 등은 기자국, 위만국, 서기, 서기전 등으로 고쳐 쓰이 옳다.

다섯째, 홍산문화를 포함한 고고학의 연구 성과와 음식문화를 포함한 민족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학설들이 역사 해석에 과감히 반영되어야 하겠다.¹⁷⁾

여섯째, 건국이념과 국가의 발전과정이 후손들에게 잘 인식될 수 있게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민족의 이름과 역사 강역에 대한 확실한 합의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¹⁸⁾ 위에 열거한 내용들을 우리 시각으로 바르게 고쳐 써나가야 하겠다.

5. 맺음말

식민사학의 핵심은 고대조선사를 부정하고 한국사는 한사군과 임나일본부의 지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고대조선사를 복원하면 식민사학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남북한지역 안에 존재했었다는 한사군과 임나일본부의 본래 위치를 밝히는 일이야말로 식민사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킬레스건이다. 고대 한중 국경선은 패수였다. 이 패수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은 고대조선사 복원의 열쇠이자 식민사학 극복의 단초라는 차원에서 우리 역사학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중국 고대 사서들은 패수는 지금의 난하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 위만,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 세력들의 활동은 고대조선의 서쪽 변방에서 이뤄졌던 것이

17) 홍산문화는 이종호, 『유적으로 보는 우리역사』 2-홍산문화-, 2015 참조 ; 음식문화는 신용하, 「고조선문명 형성의 기반과 한강문화의 세계 최초 단립 벼 및 콩의 재배 경작」, 『고조선단군학』 제31호, 고조선단군학회, 2014 참조

18) 현재 우리 민족의 공식적인 이름이 무엇인지 역사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헌법 제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하여 우리의 역사 강역마저 잠재의식 속에 압록강과 두만강 남쪽으로만 한정하여 인식케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특히 지금의 남북한 지역은 Korean Peninsular이지 半島(Half Island)일 수 없음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조선과 그 뒤를 이어 일어난 북부여를 포함한 동부여, 고구려, 읍루, 옥저, 동예, 최씨 낙랑, 백제, 신라, 가야 등등 여러 나라들을 지금의 남북한 지역과 만주 일대에 무리 없이 그려 넣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패수는 곧 발해의 서안 연안에 있었다는 사실의 확인이 고대조선사 뿐만 아니라 한국고대사를 복원하는 기점이라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료가 말하는 진실을 버리고 조선사편수회의 주장에 따라 패수를 대동강(또는 청천강)이라는 입장에서 한국사를 그려보면 우리의 역사로 기록해왔던 여러 고대 국가들이 모두 우리 민족이 활동했던 강역 밖으로 벗어난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바다 속으로 밀어 넣든지 허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지우든지 아니면 중국 역사에 편입시켜주는 쪽으로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다. 패수는 대동강이었다는 논리는 바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출발점이자 중국 동북공정에 호응하는 논리인 것이다.

올바른 역사교육은 통일한국의 터를 닦는 정지작업이라는 차원에서 국사교과서 개편이 절실하다. 특히 사대·식민사학의 잔영을 제거하기 위해 역사학계와 책임 있는 교육부서들이 침묵을 깨고 문제 풀이에 나서야 하겠다.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들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부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합리적인 방향설정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꿔 미래를 바르게 열어나갑시다!”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3〉

연 · 진 장성의 동단과 관련된 논의

공석구 (한밭대 교수)

연 · 진 장성의 동단과 관련된 논의

공석구 (한밭대 교수)

1. 서언

2012년 12월 美의회 조사국에서“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

TION AND QUESTIONS FOR THE SENATE”(중국 역사 속에서의 한반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조사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고대 韓.中間의 疆域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韓.中間의 역사적 疆域認識과 관련한 第3者的 인식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관련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보자면, 고조선과 戰國時代 燕왕조와의 경계, 고조선과 秦 왕조와의 국가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을 번역하여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A-1: 『中國歷史地圖集』에 담긴 수세기에 걸친 영토 변화는 다음과 같다. 아래 지도 번호는 미의회조사국이 각 지도의 오른쪽 끝에 표기한 번호이며 상고시대부터 현대까지 연대순으로 나열하였다. 지도 1과 2(Vol. I, Maps 31-32 and 41-42)는 전국시대(B.C. 475-B.C. 221)의 모습을 담은 것인데, 후일 중국장성의 일부로 인식된 토축과 석축의 장성의 경로를 표시하였다. 이 경로는 압록강의 남부에서부터 현 북한의 영토까지 이어지고 있다¹⁾.

1) Maps 1 and 2 (Vol. I, Maps 31-32 and 41-42), from the Warring States Period (approx. B.C. 475-B.C.

A-2: 지도 3과 4(Vol. II, Maps 3-4 and 9-10)는 중국의 중앙행정 체계를 마련한 秦(B. C. 221-B. C. 206)나라 최초의 경계를 보여준다. 이 지도에는 북위 39°도 지점(39線이라고 칭함)까지 이어지며, 要塞는 오늘날의 평양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 지도에 따르면 秦나라는 요새 안쪽의 모든 지역을 지배했다. 고구려는 중국 변경 지역 소수민족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경계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²⁾

A-1은 고조선과 전국시대 燕왕조 간의 국경이고 A-2는 고조선과 秦왕조 간의 疆域을 설명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지도 1,2 지도 3,4는 중국에서 간행된 『中國歷史地圖集』이라는 책을 말한다. 미전문가는 『中國歷史地圖集』을 인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요약해보면 중국 고대 왕조의 長城이 한반도 중북부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고대역사에서 장성이 가지는 의미는 역사경계와 관련이 있음은 주지하는 바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필자는 燕장성과 秦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³⁾.

2. 『中國歷史地圖集』에 나타난 燕·秦 長城 東端

『中國歷史地圖集』의 편찬 과정⁴⁾을 간략히 알아보자. 새로운 지도책의 제작을 바라는 毛澤東주석의 지시에 의해 1954년부터 시작되었다. 1955년 봄부터 북경에서 시작된

221), show the course of a series of stone and earthen fortifications that later came to be considered part of the Great Wall of China. The maps show the fortifications extending well south of the Yalu/Amnok River into the current territory of the DPRK

2) Maps 3 and 4(Vol. II, Maps 3-4 and 9-10) show the first borders of a central Chinese administration, Qin China (B.C. 221-B.C. 206). The maps show the fortifications extending still further south, to approximately 39 degrees north latitude (also known as the 39th parallel), stopping just short of today's Pyongyang. The maps indicate that the Qin state encompassed the full area inside the fortifications. The Gaogouli/Koguryo Kingdom is listed on the map as Chinese border minority territory, although the map does not mark its borders.

3) 공석구,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燕 長城 고찰」 『백산학보』 99호, 백산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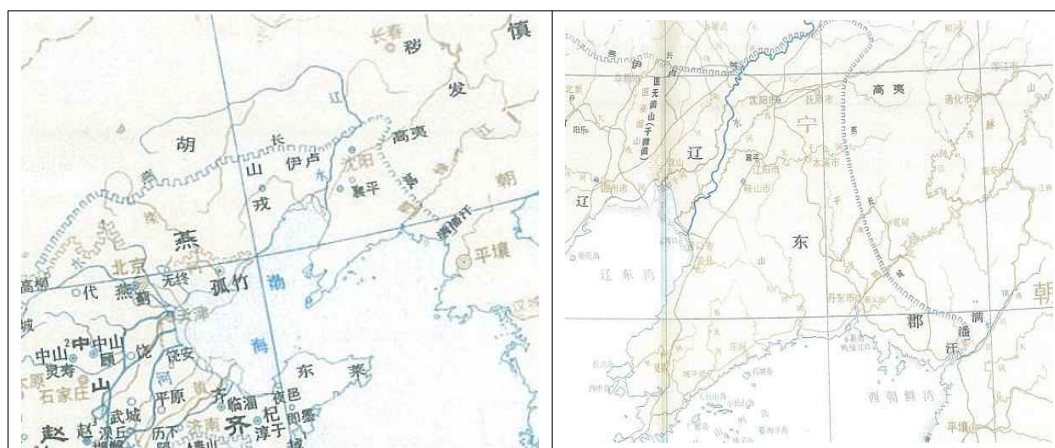
공석구, 2015, 「〈中國歷史地圖集〉의 평양지역까지 연결된 秦 長城 고찰」, 『선사와 고대』 43호

공석구, 2015, 「秦 장성 東端과 樂浪郡 遂城縣」, 한국고대사학회 논문발표.

4) 홍성화,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편찬과정과 강역인식」, 『백산학보』 100호.

지도제작 사업은 譚其驤이 재직하고 있던 상해 복단대학으로 옮겨져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사업추진에 일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1969년에 담기양에 의해 다시 추진되었다. 그 후 논의를 거쳐 1973년에 지도책의 정식명칭을 『中國歷史地圖集』으로 결정하였고, 초고도 완성되었다. 이를 내부간행물의 형태로 출판하게 된 것은 1975년부터이다. 내부간행물로 발표되자 이 책은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그 뒤 수정을 거쳐서 1982년도부터 공식 간행되기에 이르렀다⁵⁾. 이 책은 이제까지의 역사지도집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중국 역대왕조의 영역을 표현하였다. 역사상의 중국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중국의 관점에서 역사상의 領域圖를 제시한 것이다. 제작에서 출판까지 국가적인 역량을 기울여 30년 가까운 세월 만에 완성된 『中國歷史地圖集』의 발간은 당시 중국학계의 역량을 보여준 획기적인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제시한 A-1은 『中國歷史地圖集』 (이하부터는 『地圖集』이라고 칭함)제 1책에 실려 있다. 戰國時期全圖(31~32쪽)와 戰國時期 燕(41~42쪽)이다. <그림 1>을 보자.



<그림 1> 『中國歷史地圖集』 燕장성 관련지도

<그림 1>의 좌측은 戰國時期全圖(약 B.C.475~B.C.221)이다. 燕의 영역 범위를 장성으로 표현하였다. 푸른색으로 ‘ $\square\square\square\square$ 또는 $\square\square\square\square$ ’ 표시를 하여 경계를 표시하였다. 연장성에 대해서는 『사기』 흉노열전에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⁶⁾ 라 하여 造陽에서 襄平에 이르는 장성의 존재를 기록에서

5) 譚其驤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 地圖出版社.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료를 해석하여 장성을 지도에다가 구현하고는, 장성의 위치에 ‘燕長城’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런데 장성의 표현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다. ‘□□□□’부분과 ‘□□□□’부분으로 구별하였다. 연장성이 시작되는 서쪽부분과 연장성의 동쪽부분 구간은 ‘□□□□’의 형태로 표시되었다. 그런데 연장성 라인위에 ‘燕長城’이라는 글자를 표기함으로써 ‘□□□□’와 ‘□□□□’표시를 모두 장성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地圖集』 앞부분에 제시된 圖例를 살펴보면 ‘長城’이라고 표기하였다. 한편 장성라인은 압록강을 건너 평양의 북방 어느 곳에서 멈추고 있다. 이렇게 장성이 멈추는 지점에 ‘滿潘汗’이란 고대지명이 표기되었다.

<그림 1>의 우측은 戰國時期 燕 지도에 해당한다. 燕나라의 영역(약 B.C.475~B.C.221)을 지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의 좌측보다는 자세하게 그려졌다. 燕왕조의 영역이 행정구역 명칭과 함께 구체적으로 표기되었다. ‘遼西郡’, ‘遼東郡’ 등의 명칭이 보이고 있다. 이 그림에서 장성라인을 살펴보자. 연장성은 현재 요녕성 阜新市의 서북쪽 지역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의 형태로 바뀌어 표시되었다. 장성은 동쪽으로 연결되어 요하를 건너 요녕성의 성도인 심양시의 북쪽지역을 지나가다가 다시 남쪽으로 꺾여 내려가 무순시, 본계시의 동쪽지역, 관전현의 서쪽지역을 지나 압록강에 이르고 있다. 이 라인은 계속하여 압록강을 건너와 한반도 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로 이어지는 장성은 청천강부근까지 연결되었다. 이와 같은 ‘□□□□’표시 라인의 동쪽외곽 부분에 ‘燕長城’이라는 글자가 표현되었다. 그렇다면 ‘□□□□’표시는 전국시대 연나라의 영역을 연장성으로 인식하고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한반도로 연장된 장성의 끝부분은 대령강과 청천강의 사이까지 연결시켰다. 그리고 청천강에 해당되는 곳에는 고대 지명인 ‘溟水’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청천강의 북쪽에는 현재 북한지명인 ‘博川’을 표기하였다. 특이한 것은 한반도 박천까지 연결된 장성라인(‘□□□□’)끝부분에 ‘滿潘汗’이라는 글자가 특별히 강조되어 표기되어 있다.

앞서 제시한 A-2는 『地圖集』 第2冊에 제시된 것이다. 秦時期全圖(3-4)와 部分圖에 해당하는 山東北部諸郡(9-10)이다.⁷⁾ <그림 2>의 좌측은 秦時期全圖이다. 비례척은

6) 『史記』 列傳 卷110, 匈奴列傳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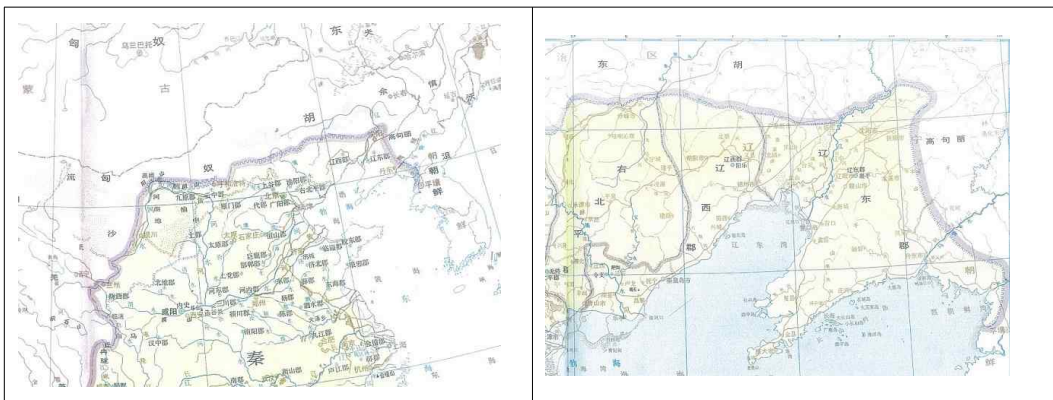
7) 본고에서 인용한 지도는 1982년도 공식 간행된 『地圖集』이다. 한편 이 지도를 1975년에 간행된 내부본 『地圖集』과 비교해보면 지명 등의 표기방식 등에서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자체 수정을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장성라인과 장성표기 방식은 동일하다. 따라서 장성관련 내용들은 1975년에 이미 결정된 것이라 할

21,000,000 : 1 에 해당한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秦나라 시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진나라는 노란색깔로 그 疆域을 표시하였다. 秦이 설치한 36개의 郡名이 각기 기술되어 중국을 통일한 모습이 통합되어 표현되었다. 秦나라의 영역 외곽지역은 다른 색깔로 표현하였으며, 그 지역에 존재하는 세력들을 각기 기록하고 있다. 秦나라의 疆域은 분홍색의 굵은 선으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秦나라 영역의 북쪽과 동쪽 지역을 살펴보면 長城으로서 疆域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秦 長城에 대해서는 『史記』 몽염 열전에

使蒙恬將三十萬，北逐戎狄，收河南。築長城，因地形，用制險塞，起臨洮，至遼東，延袤萬餘里⁸⁾

라 하여 秦始皇 26년에 몽염으로 하여금 장성을 축조케 하였는데 임조에서부터 遼東에 이르렀는데, 무릇 萬餘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 기록을 통해 후일 萬里長城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으며, 요동이 장성의 동쪽 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地圖集』은 이와 같은 사료를 해석하여 그 내용을 지도에 구현해낸 것이다. 북쪽경계는 동서를 연결하는 푸른색의 선으로 표현하였다. 푸른색의 선에 대하여 『地圖集』 앞부분에 제시된 圖例를 살펴보면 ‘長城’ 또는 ‘The Great Wall’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런데 장성의 표기를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A(□□□□)부분과 B(▭▭▭▭)부분으로 구별한 것이다.



<그림 2> 『中國歷史地圖集』 秦 장성 관련지도

수 있다.

8) 『史記』 卷88 蒙恬列傳 28.

한편 秦 장성이 동쪽으로 진행하다가 요녕성 무순시 부근의 어느 지점에서 남쪽으로 꺾여 내려오는 장성라인 외곽부에는 장성 바깥세계에 살고 있던 세력(‘朝鮮’, ‘高句麗’, ‘肅慎’, ‘夫餘’)들을 기록해 넣었다. 그렇다고 하여 장성 바깥의 지역이 중국역사상의 영역과 관련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地圖集』 1의 ‘總編例 13’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지도가 포괄하는 지역에는 모든 소수민족의 분포 지역과 이들이 수립한 정권이 소유한 영토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오늘 날의 시각에서 볼 때 당시 ‘朝鮮’, ‘高句麗’, ‘肅慎’, ‘夫餘’등은 중국 소수민족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역사인식이 지도에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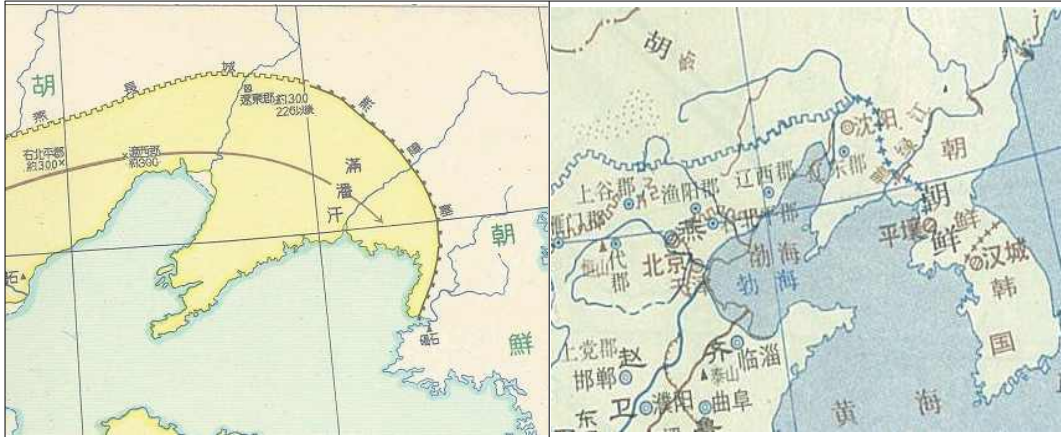
<그림 2>의 우측은 秦나라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부분도 중의 하나이다. 동북방에 해당하는 山東北部諸郡圖이다. 비례척은 4,200,000 : 1 에 해당한다. 따라서 秦나라 영역 전체를 표현한 <그림 2>-左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秦의 동북방 영역이 행정구역 명칭과 함께 구체적으로 표기되었다. ‘遼西郡’, ‘遼東郡’ 등의 명칭이 보이고 있다. <그림 2>-左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지명과 秦대의 古地名을 함께 기록하였는데, 압록강을 馬訾水로 청천강을 溟水로 표기하였다. 한편 장성라인은 압록강, 청천강을 건너 평양 서쪽 바닷가의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고 있다. 장성라인의 내부는 요동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시 요동군의 경계가 평양서쪽지역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다.

3. 중국학계의 연구동향

1) 『中國歷史地圖集』 발간 이전

(1) 燕 장성

『地圖集』 에 한반도까지 연결되는 장성 線이 그려지게 된 데는 『地圖集』 발간 이전의 연구성과와 관련이 있다. 다음 <그림 3>을 보자.



<그림 3> 顧頡剛지도집(左)과 郭沫若지도집(右)

<그림 3>은 『地圖集』 출간 이전에 나타난 중국의 괄목할 만한 연구업적이다. 顧頡剛지도집⁹⁾과 郭沫若지도집¹⁰⁾에서 관련부분을 추출한 것이다. 먼저 顧頡剛 지도집을 살펴보자. 장성의 북쪽에는 ‘□□□□’와 같이 표시하면서 ‘燕長城’이라 명기하였다. 또한 연장성의 동쪽으로는 표기형태가 달라졌는데 ‘- - - - -’와 같이 표기하고는 그 명칭을 ‘燕障塞’라고 표기하였다, 현재의 압록강 유역부근에 ‘滿潘汗’이라는 역사상의 지명을 표기 하였고 燕의 장새가 끝나는 부분을 대동강 북쪽까지로 표기하였다. 한편 顧頡剛 지도집 편찬에 譚其驤이 깊숙하게 관여하였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顧頡剛 지도집과 『地圖集』의 관련내용을 비교해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顧頡剛지도집에서 ‘燕障塞’로 표기된 것이, 『地圖集』에서는 ‘燕長城’으로 표기되어 있어 兩者의 차이와 변화상을 발견할 수 있다.

郭沫若지도집을 살펴보자. 그 내용은 앞의 顧頡剛지도집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장성의 모습이 구분되어(‘□□□□’부분과 ‘××××’부분)표기되어있다. 하지만 ‘圖例’를 보면 ‘□□□□’ 표시는 ‘장성’으로 표기되었지만 ‘××××’로 표시된 부분에 대한 해설이 없다. <그림 3>을 비교해보면 양자는 장성라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地圖集』의 장성라인과 비교해보면 郭沫若지도집과 보다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도집이 간행된 1979년은 이미 『地圖集』의 내부분이 완성되어 내부간행의 상태로 유통되고 있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郭沫若지도집은 『地圖集』의 내용을 감안하여 출간되었음을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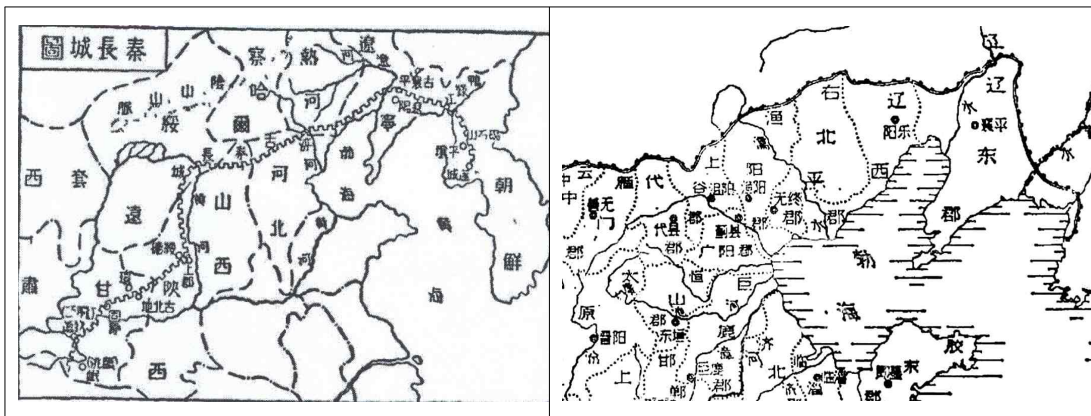
9) 編者 顧頡剛·章巽 校者 譚其驤, 1955, 『中國歷史地圖集-古代史部分-』, 地圖出版社(第6圖 戰國時代圖).

10) 郭沫若主編, 1979, 『中國史稿地圖集(上)』, 中國地圖出版社(戰國時期形勢(前291年), 19쪽).

작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붙여지지 못한 배경은 郭沫若지도집이 『地圖集』(1975년판)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추정해보면 『地圖集』(1982년판)에 표현된 내용은 顧頡剛, 郭沫若등의 선행 지도집을 참조하여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속에서 자체적인 기준, 논리에 따라 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秦 長城

『地圖集』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결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시된 바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地圖集』 제2책 제작이전에 나타났던 학계의 주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910년에 발표된 日人學者 稻葉岩吉의 연구¹¹⁾가 중요하다. 그는 秦나라 長城의 東端지점을 대동강부근의 遼安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중국학자의 선행연구로서는 1928년에 간행된 王國良의 『中國長城沿革攷』가 주목된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중국의 長城史를 이해하는데 주요 연구업적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또한 譚其驤은 1948년 秦왕조의 국경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림 4>를 보자.



<그림 4> 王國良¹²⁾과 譚其驤¹³⁾의 논문

<그림 4>의 좌측은 王國良의 논문에 제시된 것이다. 그림을 보면 秦 長城이 압록강을 넘어와 평양의 동쪽을 지나 남쪽 어느 지점에 멈추고 있다. 평양 동북쪽의 장성통과선 상에 ‘礪石山’이라는 표기가 있다. 또한 秦 장성이 평양의 동쪽을 지나 평양의 남쪽지역

11) 稻葉岩吉, 1910,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史學雜誌》 21편-2호.

12) 王國良, 1928, 『中國長城沿革攷』, 商務印書館, 30쪽.

13) 譚其驤, 1948, 「秦郡新考」 『浙江學報』 第2卷 第1期, 54쪽.

을 통과하여 연결된 終點에는 ‘遂城’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遂城’이라는 명칭을 표기한 근거에 대하여는 『晉書』 지리지 기록(樂浪郡 遂城縣<秦築長城之所起>)을 인용하였다. 또한 ‘碣石山’을 표기한 근거에 대하여는 『通典』 기록(碣石山 在漢樂浪郡遂成縣 長城起於此山 今驗長城 東截遼水 而入高麗 遺址猶存)을 인용하였다. 王國良이 장성 경계선을 그리게 된 논거로서 ‘碣石山’, ‘遂城’이라는 사료상의 용어를 해석하여 등장시켰음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王國良은 ‘碣石山’, ‘遂城’지명에 대한 해석결과 이들 지역을 한반도에 소재한 것으로 비정하였다. 이에 따라 장성 라인을 한반도 지역까지 설정하여 표기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4>의 우측은 譚其驤의 논문에 제시된 것이다. 그림을 보면 秦 長城이 압록강을 넘어와 평양부근 지점까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도를 표기한 배경은 1944년 발표 논문(「秦郡界址考」)에서 진대(秦代) 요동군(遼東郡)의 경계지점에 대하여 ‘東南當逾鴨綠江, 有朝鮮半島東北隅之地, 南近大同江’라고 기술하였다. 그는 진 요동군의 경계가 동남쪽으로는 압록강을 건너가 남쪽으로는 대동강 근처에 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담기양이 이렇게 해석하게 된 근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료를 논거로서 제시하였다.¹⁵⁾

『太康三年地記』：樂浪遂城縣有碣石山，長城所起。

『晉志』：遂城县，秦筑长城之所起。

『通典』：长城起 遂城碣石山 遗迹犹存。

按遂成废址在今平壤西南，是秦境近于大同江之證一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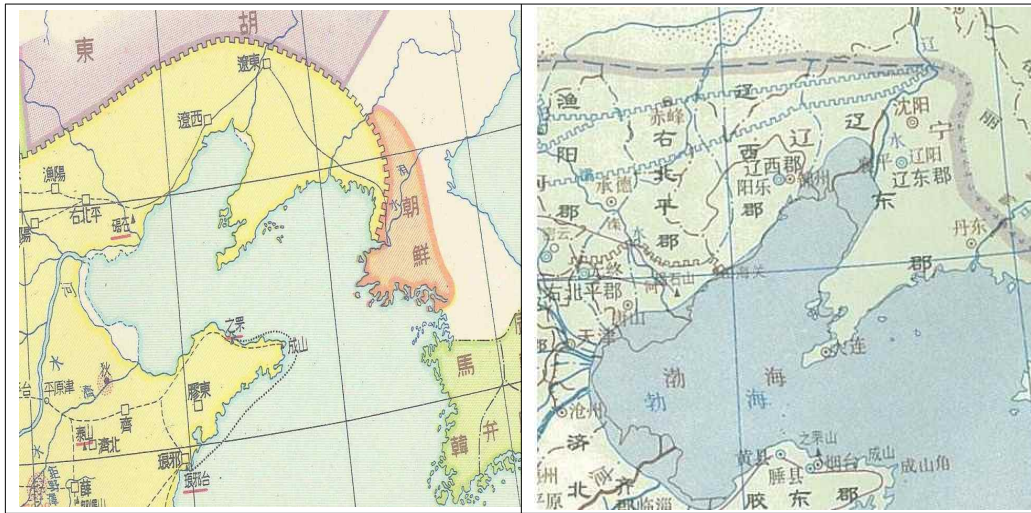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사료해석에 바탕을 둔 先行 연구결과는 이후 중국학계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연구업적을 살펴보자. 『地圖集』 공식 발간 이전에 간행된 중국의 대표적인 지도집으로는 顧頡剛¹⁶⁾과 郭沫若¹⁷⁾의 지도집을 꼽을 수 있다. <그림 5>를 보자.

14) 譚其驤, 1944, 「秦郡界址考」 『眞理雜誌』 第1卷 第2期, 16쪽.

15) 위와 같음.

16) 編者 顧頡剛·章巽 校者 譚其驤, 1955, 『中國歷史地圖集-古代史部分-』, 第7圖 秦統一圖, 6쪽, 地圖出版社.

17) 郭沫若主編, 1979, 『中國史稿地圖集(上)』, 秦統一圖(前221-前207年, 23쪽), 中國地圖出版社.



<그림 5> 顧頡剛지도집(左)과 郭沫若지도집(右)

<그림 5>의 좌측은 1955년에 편찬된 顧頡剛 지도집이다. 여기서는 ‘□□□□’와 같이 표시한 부분에 대하여 圖例를 보면 ‘長城’이라고 표기하였다. 장성라인은 <그림 4>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성은 溟水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는 진시황 시기 축조한 장성을 의미한 것이다. 여기서 패수는 大同江으로 파악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장성의 외곽지역 즉 동쪽과 남쪽지역을 포함하는 라인을 그리고 이 원형의 線 내부에 ‘朝鮮’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영역의 서쪽 경계선 상에다가 장성 표기를 함으로써 조선과의 경계까지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중국학계의 고조선에 대한 초보적인 영역인식을 엿 볼 수 있다.

<그림 5>의 우측은 1979년에 편찬된 郭沫若 지도집이다. 장성라인을 비롯한 그림내용은 <그림 5>의 좌측인 고희강 지도집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괄말약은 ‘平壤’이란 지명을 표기하였고, 그 서쪽지역까지 秦나라의 경계선을 표기하였다. 이는 고희강지도집에서 대동강유역까지 도달하게 표기된 것 보다는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괄말약은 심양의 북방에서 꺾어져 내려온 경계를 ‘××××’로 표시하였다. 하지만 ‘××××’로 표시된 부분에 대한 해설이 없다. 괄말약의 지도집이 간행된 1979년은 이미 『地圖集』이 완성¹⁸⁾되어 내부간행의 상태로 유통되고 있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괄말약 지도집은 『地圖集』의 내용을 감안하여 출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분에 대한

18) 『地圖集』 서문에 따르면 ‘1973년 원고를 마무리하였고, 1974년부터 중화지도학사의 명의로 8권으로 나뉘어 연속으로 내부에서 시험용으로 출판하였다’고 한다. 秦나라지도가 들어있는 제 2책은 1975년도에 출간되었다.

설명이 붙여지지 못한 배경은 곽말약의 지도집이 『地圖集』(1975년판)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2) 『中國歷史地圖集』 발간 이후

(1) 燕 장성

『地圖集』 第 1冊의 내부본이 완성된 1975년 이후 중국 학계에서는 『地圖集』의 내용과 유사한 견해들이 다수 나타났다. 1976년 王灰는 燕長城이 부신→개원→봉성→압록강→안주→대동강→평양까지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¹⁹⁾ 1979년 李文信은 부신→개원→신빈→관전→압록강이라는 또 다른 라인을 주장하였다.²⁰⁾ 1982년에 李殿福은 그 동안 수집된 고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李文信의 주장에 덧붙여 압록강-용강군(낙랑군 수성현)에 이르는 라인을 주장하였다.²¹⁾ 그의 주장은 일부의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이후 중국학자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었다.

한편 1987년 평안북도 博川주변을 흐르는 대령강에서 장성유적이 발견되었다는 북한의 조사보고 내용은 중국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大寧江長城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유적은 장성의 서쪽을 흐르는 대령강을 자연 해자로 삼아 길게 뻗은 이 장성은 주로 돌과 흙을 섞어 쌓아 만들었다. 평안북도 박천군 중남리에서 시작하여 영변군, 태천군, 동창군으로 이어져 그 길이가 무려 120k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²²⁾

燕長城의 경계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국학자들은 일제히 大寧江長城을 燕장성의 遺址로서 해석하게 되었다. 『地圖集』에서 주장했던 滿潘汗=番汗, 沛水=大寧江, 淇水=清川江說이 마침 북한에서 발표된 대령강장성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모양이다. 이후 중국학계의 연구경향은 대체로 대령강 장성을 연장성의 실제 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1990년 顧銘學·南昌龍이 이를 주목하였다.²³⁾

19) 王灰, 1976, 『中國歷史地理 上冊-歷代疆域形勢』, 臺北: 學生書局, 173쪽.

20) 李文信, 1979, 「中國北部長城沿革考 上」, 『社會科學輯刊』 1, 150쪽. 이와 유사한 주장이 1997년 孫杰(「阜新地區燕北長城調查」, 『遼海文物學刊』 1997-2)에게로 계승되었다.

21) 李殿福, 1982, 「東北境內燕秦長城考」, 『黑龍江文物叢刊』 82-1, 62쪽. 그는 연진장성의 東端을 낙랑군 수성현의 갈석으로 파악하였다.

22) 손영중, 1987, 「대령강장성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1987-2.

23) 顧銘學·南昌龍, 1990, 「戰國時期燕朝關係的再探討」 『社會科學戰線』 1990年01期.

(2) 秦 장성

秦나라는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통일왕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秦은 전국을 36개 郡으로 구분하고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한 군현제를 실시한 중국 최초의 왕조이기도 하다. 이 시기 秦나라가 축조한 長城은 중국 疆域史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장성의 경계가 중국 역대 왕조의 강역과 밀접히 연계되어있는 것이다.

1982년 『地圖集』이 공식 발간된 이후 1988년 『地圖集』의 해설서에 해당하는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匯編, 東北卷』²⁴⁾이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이 책에서는 秦 장성의 東端, 그리고 낙랑군 수성현의 위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렇게 비정하는데 영향을 끼친 주요 참고서적을 『地圖集』 앞부분에 명기하였는데, 그것은 稻葉岩吉의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²⁵⁾ 논문이다. 稻葉岩吉은 이 논문에서 秦 장성의 東端지점을 황해도 遂安으로 비정한 바 있다. 하지만 『地圖集』에는 평양 동남쪽에 해당하는 수안은 箕子朝鮮의 정치적 중심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의 주장이 채택되지 않았다. 『地圖集』은 그 대신에 평양 서남쪽의 강서군 함종리(현재 지명은 평안남도 증산군 함종리) 부근으로 비정하게 되었다.²⁶⁾ 『地圖集』第 2冊의 秦나라 지도를 보면 진 장성이 끝나는 지점을 평양의 서쪽지역에다가 표기하였다. 그렇다면 평양의 서쪽 지역까지는 秦나라의 境域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1987년 청천강 북쪽지역의 대령강에서 장성유적이 발견되었다는 북한학계의 조사보고 내용은 중국학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게 되었다. 秦나라 長城의 경계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국학자들은 이 소식에 자극을 받았고, 이후 일제히 大寧江長城을 秦장성의 遺址로서 해석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학계의 연구경향은 대체로 대령강 장성을 秦나라 장성의 실제 유적으로서 파악하고 있다.

이후 중국학자들은 사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先行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그들의 결론은 대체로 『地圖集』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馮永謙은 대령강장성을 秦 장성의 실제 유적으로 생각하였다.²⁷⁾ 馮永謙²⁸⁾은 秦 長城 라인을 대동강입구 북안의 갈석에서부터

24) 譚其驥主編, 1988,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匯編, 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

25) 稻葉岩吉, 1910,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史學雜誌》21卷-2호.

26) 譚其驥主編, 1988,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匯編, 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 38쪽.

27) 馮永謙·何溥濤編著, 1986, 《遼寧古長城》, 遼寧人民出版社, 內表紙 도면.

28) 馮永謙, 1991, 「東北古代長城考辨」<<東北亞歷史與文化>>遼沈書社, 28쪽.

대령강, 창성강을 거쳐 압록강을 지나 관전→환인→신빈→청원→철령→법고로 이어지는 라인을 설정하였다. 碣石의 위치에 대하여는 『수경』, 『태강지리지』, 『통전』 을 해석하여 남포시 북쪽의 용강(현재 지명은 남포특별시 용강군)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 ‘樂浪遂成縣有碣石山, 長城所起’라는 『太康三年地記』 기록 등을 참고하여 秦 장성의 실체를 밝히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薛虹은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이 있다는 기록을 인용하여 갈석의 소재를 대동강과 청천강의 중간지점이라고 하였다.²⁹⁾ 楊昭全.孫玉梅은³⁰⁾ 진장성의 동단을 패수의 남쪽으로 보고 이를 秦과 기자조선의 경계로 파악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위치를 강서군 함종리 부근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후 1997년 鄭君雷³¹⁾, 1998년 李健才³²⁾와 張博泉.魏存成등의 동조를 얻었다. 대령강 장성이 고고학적으로 秦 장성의 실제유적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2006년 景愛³³⁾등에게로 이어졌다. 顧頡剛.史念海³⁴⁾는 秦 장성의 동쪽 끝에 해당하는 갈석을 조선의 평양남쪽이라 하고는 秦 장성의 東端을 대동강까지로 해석하였다. 그는 이곳까지가 秦 遼東郡의 境域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는 張碧波³⁵⁾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³⁶⁾

선행연구에서는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해석하였지만, 이후의 중국학자들은 고고학 자료를 인용하면서 기존 연구를 보강하고 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연구내용이 보다 정교해졌다고 할 수 있다. 요녕성 및 길림성지역에서 燕, 秦, 漢시기의 장성유적을 조사한 내용이 발표되면서부터 이 지역에서 秦 장성의 존재는 보다 분명해졌다고 한다. 더욱이 북한학계에서 대령강 장성이 조사 발표된 사실은 중국학계를 자극하였다. 중국학자들은 대령강 장성을 秦 장성과 관련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학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은 전

29) 薛虹主編, 1993, 中國東北通史, 吉林文史出版社, 82쪽. 이와 유사한 견해로는 李治亨主編, 2003년, <東北通史>中州古籍出版社, 67쪽 참조.

30) 楊昭全.孫玉梅, 1993, <<中朝邊界史>>吉林文史出版社, 29~31쪽.

31) 鄭君雷, 1997, 「大寧江長城的相關問題」, 《史學集刊》1997-1, 70쪽.

32) 李健才, 1998, 「公元前3—公元前2世紀古朝鮮西部邊界的探討」《社會科學戰線》1998年 5期, 199쪽.

33) 景愛, 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181쪽(古長城은 대령강을 따라 대령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과 청천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부근에 걸쳐있다).

34) 顧頡剛.史念海, 2000, <中國疆域沿革史>, 商務印書館, 68쪽.

35) 張碧波, 2006, <中國東北疆域研究>黑龍江人民出版社, 141~142쪽.

36) 한편 秦 장성의 존재 및 통과선에 대한 고고학적인 검토결과 또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2000년 蕭景全是 1976년 李文信, 1996년 劉子敏등의 장성통과선 주장에 대하여 고고학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하였다(2000, <遼東地區燕秦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研究>《北方文物》63). 하지만 그는 秦 장성이 요녕성, 길림성 일부 지역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기존 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고고학 자료를 검토하여 부신시→신민→법고현→철령시→심양시→무순현→본계시→관전현(영진, 장진)→압록강변이라는 새로운 長城障塞라인을 주장하였다. 蕭景全是 長城이라는 용어에다가 障塞라는 용어를 덧붙여 사용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용어사용의 변화는 2011년 李樹林·李妍의 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2011, <燕秦漢遼東長城障塞遺址的量化統計分析>《北方文物》2011-2).

국시대 燕나라 장성의 기초위에다가 秦나라 장성을 덧씌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燕장성과 秦장성 라인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학자들은 이와 같은 고고학적 현상을 통해서 대동강의 서쪽 지역까지 秦시기 중국의 유효한 관할 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파악하게 되었다.³⁷⁾ 한반도내 長城存在說은 현재 중국학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의 이면에는 대동강을 경계로 하여 秦나라 시기의 銅戈를 비롯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는 고고학적인 현상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기도 한다³⁸⁾.

4. 학술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고고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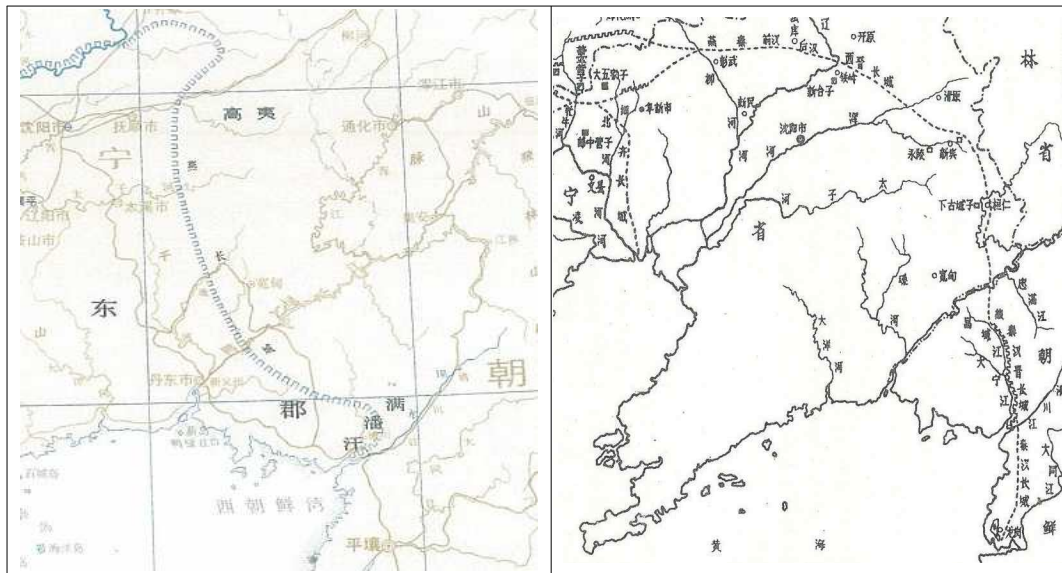
(1) 燕 장성

『地圖集』에 제시된 연장성은 사실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제시된 연장성 라인이 고고학적으로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地圖集』출간이후 그 영향을 받아 이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들과의 연구 성과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분명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다음 <그림 6>는 연장성 노선을 비교한 것이다.

37) 鄭君雷, 1997, <大寧江長城的相關問題> 《史學集刊》1997年-1期, 68-72쪽.

李治亭主編, 2003, 『東北通史』, 中州古蹟出版社, 63쪽.

38) 李治亭主編, 2003, 《東北通史》, 中州古籍出版社, 67쪽. 이 책은 2003년 中國邊疆通史叢書의 일환으로 간행되었다. 邊疆叢書는 모두 7冊으로서, 總序文은 馬大正이 썼다. 또한 修冬(修冬主編, 1987, <中國東北史>1, 吉林文史出版社, 249-250쪽)은 秦장성에 대하여 창무-범고-개원-신빈-관전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수성 갈석에 이른다고 하였다. 평안도에서 출토되는 秦戈 등의 유물은 秦장성의 축조범위와 일치한다고 하고는 갈석의 위치에 대하여 대동강하류인 용강부근으로 비정하였다.



<그림 6> 燕長城 路線 비교도(左: 『地圖集』, 右: 馮永謙 논문)

<그림 6>의 좌측은 『地圖集』에 제시된 노선도이고, 우측은 『地圖集』출간이후 현장에서 다년간 이를 조사해 온 馮永謙이 제시한 노선도³⁹⁾이다. 두개의 노선도를 비교해 보면 연장성의 실제 노선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地圖集』출간이후 연장성에 대한 연구 성과가 달라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地圖集』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문제는 우측에 제시된 馮永謙의 연구결과도 『地圖集』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고학적으로 그 실체를 입증하지 못한 추정선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추정선은 이후 馮永謙 스스로에 의해 부정되었다.⁴⁰⁾ 그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면, 본계지역, 단동지역에서 고고학적으로 확실한 장성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관전지역의 노선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결과 단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소규모의 遮斷城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하여 풍영점은 이 지역의 燕 장성에 대하여 차단성의 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⁴¹⁾ 하지만 차단성은 개념상으로 볼 때 長城과는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청천강유역까지 長城, 障塞, 障 등의 연나라 방어시설이 어떻게 축조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 燕北長城의 고고학적인 흔적이 확인되는 곳은 요녕성 北票市, 또는 阜新市까지라고 한

39) 馮永謙, 1996, 『北方史地研究』, 中州古籍出版社, 14쪽.

40) 馮永謙, 2010, 「東北燕秦漢長城的考古調查與研究」 『遼寧考古文集(二)』,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編, 科學出版社, 85쪽.

41) 同上, 86-91쪽.

다. 근래 한국학계의 연구도 遼河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⁴²⁾ 그런데 연장성의 노선에 대한 변화된 중국학계의 입장(연장성이 요하를 넘어 철령시, 개원현 나아가 무순→신빈→본계→관전→압록강 등으로 연결된다)을 살펴보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제시된 것이 아니다.⁴³⁾ 무순-신빈 지역을 연결하는 연나라 시기의 장성이 있을 것이라는 중국학계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필자가 답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마다 축조된 여러 개의 봉수 또는 돈대관련 유적들이다. 따라서 이들 유적은 장성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사료상으로 연장성의 東端은 襄平까지였다.

연장성이 압록강을 건너 청천강유역까지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제시된 『地圖集』의 내용뿐만 아니라 1987년 북한에서 조사 발표된 대령강장성을 燕장성 遺址라고 해석하는 중국학자들의 견해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을 보자.



<그림 7> 평안북도까지 연결된 燕長城 東端 路線圖 비교

<그림 7>의 좌측은 『地圖集』에 제시된 한반도까지 연결된 연장성노선도이고, 우측은 1987년 북한에서 조사 발표된 대령강장성 노선도이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장성이 지니는 노선 뿐만 아니라 장성의 끝부분 노선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도 『地圖集』의

42) 한국학계에서도 장성線이 대체로 遼河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77쪽. 吳江源, 2010, 「전국시대 연나라 연북장성 동쪽구간의 구조적실체와 동단」, 『선사와 고대』 33. 이종수, 2011, 「遼東地域 燕秦漢 長城 調査現況 및 問題點 檢討」 『韓國史學報』 43).

43) 吳江源, 2010, 「戰國時代 燕나라 燕北長城 동쪽 구간의 構造的 實體와 東端」 『先史와 古代』 33. 이종수, 2011, 「遼東地域 燕秦漢 長城 調査現況 및 問題點 檢討」 『韓國史學報』 43.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地圖集』의 경우 노선이 대령강을 지나 박천을 포함하여 청천강의 서북쪽 지역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연장성이 청천강(湏水)까지 연결된 것으로 해석한 것에 기인한다. 그런데 우측의 대령강장성 노선을 살펴보자. 성벽이 대령강의 동쪽강변을 따라 연결되었다. 이 경우 장성은 박천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그 한계는 청천강이 아니라 대령강이 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먼저 『地圖集』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대령강장성이 조사되면서 장성의 노선도뿐만 아니라 장성의 동단지점에 차이와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地圖集』은 만반한=변한현으로 파악하고 그 중심지로서 박천의 고박릉성을 비정하면서 장성이 박천을 포함한 것으로 지도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령강장성을 연장성의 遺址로서 해석하는 중국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地圖集』의 해석은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것이 된다. 여기서 『地圖集』의 노선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령강장성을 연장성의 유지로 해석하는 중국학자들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그들의 주장은 합리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령강장성을 연나라가 축조하였다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유적을 실제로 조사한 북한 학계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주변에서 출토된 기와와 도자기 파편 등의 유물분석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高麗시대에 축조된 千里長城유적으로 추정 보고되었다.⁴⁴⁾ 2003년에는 기존의 대령강장성 남단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갈라진 2개의 장성이 추가로 조사되었으며, 종합적인 분석결과 대령강장성이 고구려시대 후기에 이미 축조되었다는 조사결과 보고도 제기되었다.⁴⁵⁾ 따라서 이 유적을 실제로 조사한 북한학계의 연구결과는 연나라 시기의 장성유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후대 시기의 장성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령강장성이 연나라가 축조한 성곽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차단물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추론이 가능하다. 만일 연나라가 대령강장성을 축조하였다면 대령강의 서쪽에 축조하여 대령강을 경계로 삼아 강 동쪽에 자리 잡은 고조선세력을 방어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대령강장성은 대령강을 건너 동쪽 강변을 따라서 길게 축조되어 있다. 이것은 대령강장성의 축조목적이 북방(연나라)에서 남쪽의 적(고조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방(중국방면)으로부터 대령강을 건너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적을 방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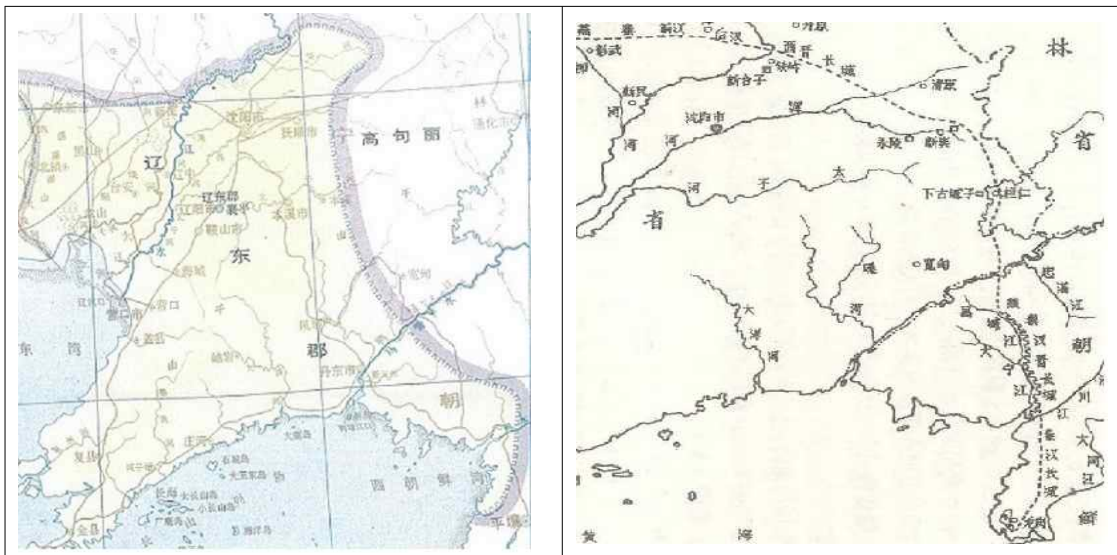
44) 손영중, 1987, 「대령강장성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1987-2.

45) 최승택·문혁, 2003, 「대령강반의 장성방위 시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3-1.

기 위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황은 축조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 상황으로 볼 때 대령강장성은 燕 장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秦장성

秦 長城이 압록강을 건너와 대동강유역까지 연결되었다고 하는 『地圖集』의 주장을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알아보자. 첫째는 대령강장성이 고고학적으로 볼 때 秦 長城 유적에 해당된다고 하는 중국학계의 주장을 검토해보자. 여기서는 평양부근까지 진나라가 축조한 장성의 흔적이 실제로 존재하였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제기와 그 문제점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먼저 지적할 것은 『地圖集』에 제시된 秦 長城 노선도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地圖集』 출간이후 그 영향을 받아 이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들과의 연구 성과에서 구체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림 8>은 秦 長城 노선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8> 秦 長城 路線 비교도

<그림 8>의 좌측은 『地圖集』에 제시된 秦 長城 노선도이고, 우측은 『地圖集』 출간이후 현지에서 이를 조사한 馮永謙이 제시한 노선도⁴⁶⁾이다. 두 개의 노선도를 비교해보면 秦 長城의 실제 노선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地圖集』 출간이후 秦 長城

46) 馮永謙, 1996, 『北方史地研究』, 中州古籍出版社, 14쪽.

路線에 대한 연구 성과가 달라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地圖集』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문제는 우측에 제시된 馮永謙의 연구결과도 『地圖集』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실체를 입증하지 못한 추정선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推定線은 후일 馮永謙 스스로에 의해 부정된 바 있다.⁴⁷⁾

한편 秦 장성이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유역까지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제시된 『地圖集』의 내용이후에 1987년 북한에서 조사 발표된 대령강장성이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秦 長城 유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중국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 <그림 9>를 보자.



<그림 9 > 한반도까지 연결된 秦 長城 東端 路線圖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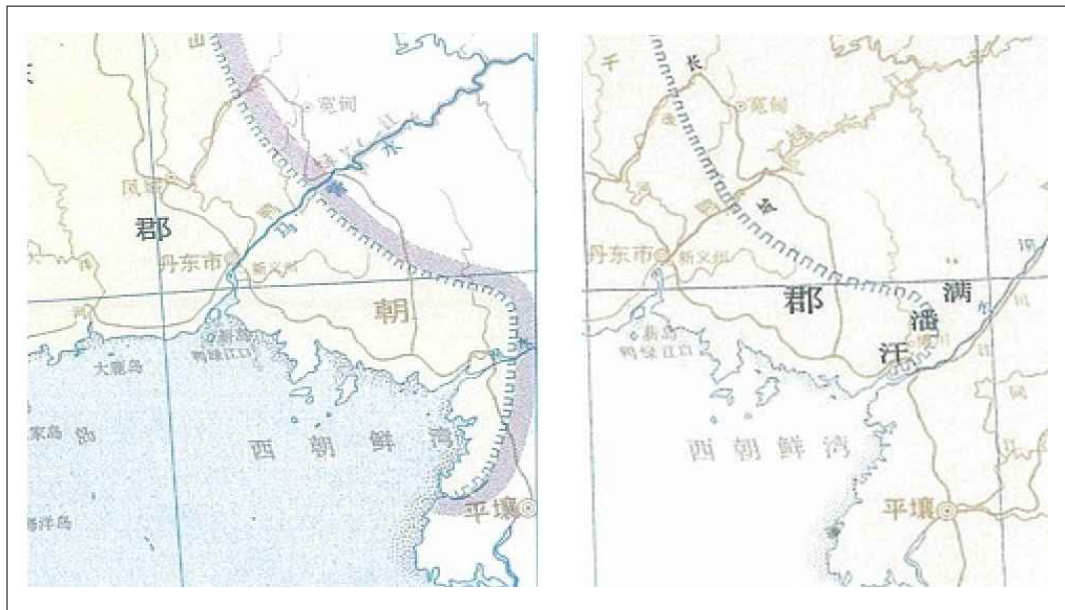
<그림 9>의 좌측은 『地圖集』에 제시된 대동강 유역까지 연결된 秦 長城 노선도이고, 우측은 1987년 북한에서 조사 발표된 大寧江長城 노선도이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장성의 실제 노선도에서 차이가 있다. 『地圖集』에서는 대령강 장성이 아니라 대령강 장성의 동쪽지점을 멀리서 우회하여 그려져 있다. 이처럼 대령강장성이 조사되면서 『地圖集』의 노선도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실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⁴⁸⁾ 대령강 장성을 秦 장성의 遺址로서 해석하는 중국학자들의 견해에 따

47) 馮永謙, 2010, <東北燕秦漢長城的考古調查與研究> 《遼寧省考古文集(二)》,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編, 科學出版社, 85쪽.
 48) 대령강장성은 대령강을 건너 동쪽 강변을 따라서 길게 축조되어 있다. 이것은 대령강장성의 축조목적이 북방에서 남쪽의 적(古朝鮮)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방으로부터 대령강을 건너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낸다(한인호, 1992, <대령강장성의 축조경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2-1, 27쪽), 이러한 정황은 축조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른다면 이러한 『地圖集』의 해석은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게된 것이다. 여기서 『地圖集』에 제시된 노선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령강장성을 秦 長城의 유지로 해석하는 중국학자들의 주장에도 또 다른 실증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들의 주장은 합리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령강장성을 秦나라가 축조하였다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유적을 실제로 조사한 북한 학계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이를 고구려내지는 고려시대의 장성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확인해야할 내용이 있다. <그림 10>을 보자. 『地圖集』의 한반도까지 확장된 長城 東端을 비교(<그림 10>-左: 秦長城, <그림 10>-右: 燕長城)한 것이다.



<그림 10> 『地圖集』의 한반도까지 확장된 燕秦長城 東端 비교

중국학계에서는 대령강 장성을 秦 長城 遺址라고 해석하였음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地圖集』에 제시된 秦 長城노선도는 연장성의 동단지점인 대령강을 넘어와 청천강을 지나 평양 서남쪽의 평안남도 증산군 함종리 부근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燕장성의 동단지점으로 비정한 대령강, 청천강유역에서부터 秦나라가 새롭게 축조된 장성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청천강에서부터 시작하여 평안남도 증산군 함종리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秦 장성유적에 대한 존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지역 안에서 연관된 새로운 장성유적이 존재한다는 자료나 유적 조사보고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地圖集』의 주장처럼 이 지역을 지나서 秦 長城이 실재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秦 長城의 실체를 밝히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중국학자들의 기존 연구들에서 진정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地圖集』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미 稻葉岩吉, 王國良 및 고힐강과 곽말약의 지도집 등을 비롯한 선행의 연구업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파악된다. 『地圖集』 편찬과정에서 사료 상에 나타나는 ‘樂浪郡遼城縣’과 ‘礪石山’관련 기록을 해석하다보니, 선행의 연구업적을 계승하여 그 위치를 평양부근 지역에다가 비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선을 평양의 대동강유역까지 연결하여 표기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秦 長城의 종착지에 대해서는

使蒙恬將三十萬，北逐戎狄，收河南。築長城，因地形，用制險塞，起臨洮，至遼東，延袤萬餘里⁴⁹⁾

라 하여 요동까지였다고 한다. 현재 秦 長城의 고고학적인 흔적이 확인되는 곳은 요녕성 北票市, 또는 阜新市까지라고 한다. 근래 한국학계의 연구도 遼河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⁵⁰⁾ 그런데 秦 長城 노선에 대한 변화된 중국학계의 입장(진장성이 요하를 넘어 철령시, 개원현 나아가 무순→신빈→본계→관전→압록강 등으로 연결된다)을 살펴보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제시된 것이 아니다.⁵¹⁾ 그렇게 본다면 현재로서는 秦 長城의 종착지에 대하여는 요동군이 시작되는 경계부근까지라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⁵²⁾

49) 『史記 卷88 蒙恬列傳 28.』

50) 한국학계에서도 장성선이 대체로 遼河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77쪽. 이종수, 2011, 「遼東地域 燕秦漢 長城 調査現況 및 問題點 檢討」 『韓國史學報』 43).

51) 이종수, 2011, 「遼東地域 燕秦漢 長城 調査現況 및 問題點 檢討」 『韓國史學報』 43.

52) 唐의 장수절은 『史記正義』에서 秦 장성에 대하여 “遼東郡在遼水東，始皇築長城東至遼水”라 하여 秦 장성이 遼水까지 이르렀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後稿할 예정이다.

2. 문헌사료

1) 燕 장성

(1) 長城과 障塞의 구분

『地圖集』은 長城과 障塞에 대한 구분설명이 없이 모두를 일괄하여 ‘燕長城’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地圖集』 제작과정에서 표기방식이 달라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장성에 대한 중국 학계의 인식변화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다. 『地圖集』에서 는 障塞까지도 長城의 개념으로 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長城과 障塞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다음 사료를 보자.

A-1: 自始全燕時, 嘗略屬真番, 朝鮮為置吏, 築鄣塞⁵³⁾

A-2: 自始燕時, 嘗略屬真番, 朝鮮 為置吏築障⁵⁴⁾

연나라 전성기에 진번, 조선에 障塞를 축조(A-1), 또는 진번, 조선에 障을 축조(A-2)라 하여, 障塞, 障으로 나타난다. 이 障에 대하여 顏師古는 ‘所以自障蔽也’라고 주석하여 障을 차단물로서 설명하고 있다. 사료에 따라 축조된 대상을 障塞 또는 障으로 달리 표현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사료는 障塞와 障을 유사한 개념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長城과 障 또는 障塞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塞의 의미를 알아보자. 다음 사료를 보자

塞를 세운지 100여년이 지났는데, 모두 土垣으로 세운 것은 아니다. 산의 바위와 돌, 넘어지고 마른 나무로 만든 울타리, 계곡, 수문을 이용하면서 조금 평평하게 만들어 (중략) 100년 안에 갑자기 변고가 생겨 障塞가 파괴되고 亭隧가 절멸되어...(하략)...⁵⁵⁾

53) 『史記』 列傳 卷115 朝鮮列傳 55.

54) 『漢書』 列傳 卷95 西南夷兩粵朝鮮傳 65, 朝鮮

에서 나타나듯이 塞는 土垣(흙으로 만든 담장)만이 아니고 목책, 계곡, 하천의 수문 등 모든 방어시설을 포함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塞의 범주 안에 障塞, 亭隧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음도 알 수 있겠다. 요컨대 塞는 변경지역의 요충지에 세워진 차단물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용어를 말한다.⁵⁶⁾ 이에 비해서 장성이라는 용어는 변경에 있는 塞와 塞가 서로 연결되어 긴 차단물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長城은 개념상으로 볼 때 塞를 대표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은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⁵⁷⁾ 오히려 塞라는 범주 안에 長城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중국의 고대 사료에서 長城과 障塞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장성은 그 의미를 대체로 짐작하고 있겠지만⁵⁸⁾ 연나라의 장성관련 기록은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라 하여 장성은 길게 이어진 線으로서의 방어물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이를 보충해주는 관련 사료를 몇 가지만 나열해보자.

B-1: 乃使蒙恬 將三十萬 北逐戎狄, 收河南. 築長城, 因地形, 用制險塞, 起臨洮至遼東⁵⁹⁾

B-2: 遣蒙恬築長城, 東西數千里⁶⁰⁾

위의 사료 B는 장성이 線으로 길게 이어진 장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여 景愛는 장성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長城是古代邊境御敵的軍事工程, 系以土, 石, 磚築的連續性高城牆”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⁶¹⁾. 장성은 연속성을 가진 방어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障塞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다. 다음 사료를 보자.

C-1: 顧胤云 鄣 山中小城。亭候望所居也⁶²⁾

C-2: 師古曰 漢制, 每塞要處別築為城, 置人鎮守, 謂之候城, 此即 障也⁶³⁾

55) 起塞以來百有餘年, 非皆以土垣也, 或因山巖石, 木柴僵落, 谿谷, 水門, 稍稍平之, 卒徒築治(중략)百歲之內, 卒有它變, 障塞破壞, 亭隧滅絕(『漢書』 列傳 卷94下 匈奴傳 64下).

56) 塞는 長城, 障, 木柵을 비롯한 모든 방어시설물을 그 범주 안에 포괄한다고 한다(장인성, 1998, 「중국 고대 장세의 출현과 형태」 『백제연구』 28집, 407쪽).

57) 勞幹, 1989, 「漢代的塞和後方的重點」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輯刊』 60-3, 507-509쪽.

58) 중국에서 장성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한 줄로 길게 있는 線으로서의 방어물이라는 것이었다. 萬里長城이라는 용어가 이를 대변한다.

59) 『史記』 列傳 卷88 蒙恬列傳 28.

60) 『史記』 列傳 卷118 淮南衡山列傳 58 淮南厲王長.

61) 景愛, 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25쪽.

62) 『史記』 卷110 匈奴列傳 50의 正義註.

63) 『漢書』 本紀 卷6 武帝 劉徹紀 6, 太初 3年の 顏師古註.

C-3: 師古曰 徼猶塞也。東北謂之塞, 西南謂之徼。塞者, 以障塞為名。徼者, 取徼遮之義也⁶⁴⁾。

障塞는 일반적으로 변경지역에 축조한 방어시설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障이라는 용어는 적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축조한 소규모의 城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군사 지리적 요충지에 축조한 성으로서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 만들어진 방어물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따라서 장새의 의미는 障이 塞에 포함될 경우 塞의 일부분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거주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또한 障이 長城안에 시설물로서 포함될 경우, 장성의 일부 구간을 지키는 군대가 주둔하는 시설물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표현된다. 障塞라는 용어는 長城처럼 대규모의 건축공사 끝에 나타난 한 줄로 길게 이어진 방어시설물이라기 보다는 塞라는 단일 요충지에 축조한 방어시설(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새와 장성은 용어상으로 볼 때 분명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장성과 장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양자가 중국 고대 사료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D-1: 使南北不得交關。於是障塞亭燧出長城外數千里。⁶⁵⁾

D-2: 秦皇帝得天下, 恐不能守, 發邊戍, 築長城, 修關梁, 設障塞, 具傳車, 置邊吏⁶⁶⁾。

D-3: 東北到長城障塞一百十里⁶⁷⁾

D-4: 行觀蒙恬所為秦築長城亭障, 塹山堙谷, 通直道⁶⁸⁾。

D-5: 築長城, 脩障塞, 所以設險也⁶⁹⁾

D-1기록을 보면 장새는 장성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설치하였던 방어시설이다. D-2~5기록을 통하여 장성과 장새가 개념적으로도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료에서는 중국 고대 문헌에서는 장성과 장새가 각기 다른 방어물로서 인식되어 이를 구분하여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64) 『漢書』 卷93 列傳 佞幸傳 63 鄧通傳의 顏師古註.

65) 『後漢書』 卷87 西羌列傳 77 羌無弋爰劍.

66) 『淮南子』 12 道應訓.

67) 『通典』 卷178, 州郡 8 古冀州條.

68) 『史記』 卷88 蒙恬列傳 28.

69) 『新唐書』 列傳 列傳140上, 突厥上.

이상에서 우리는 고대 중국에서는 장성과 장새가 실제 구분되었고, 다른 개념으로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1사료를 통하여 장성의 동쪽 끝은 양평까지였다. 장성이 끝나는 양평 외곽 지역은 어떻게 연나라가 관리하였을까? 이 문제에 대하여는 사료 C-1, C-2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지역에 장새를 축조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地圖集』에서는 고고학적 유적이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점)선으로 연결하고는 ‘燕長城’이라고 표기하였다. 정리해보면 『地圖集』은 장성의 모습을 사료에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게 표기하였다. 장성의 동단으로서 기록된 양평까지 표현한 것이 아니라, 長城線을 계속 동남쪽으로 확장시켜 그 라인이 압록강을 건너 평안북도 박천지역까지 연결하였다. 이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는 부합되지 않는 사실오류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렇다면 『地圖集』에 장성과 장새의 구분을 무시하고 일괄하여 長城으로 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地圖集』의 편찬배경, 주 편찬자인 담기양의 역사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담기양은 중국은 다민족국가이며 중국의 역사는 여러 민족이 함께 창조한 것이라는 統一的多民族主義的 歷史觀에서 중국의 경계를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燕長城은 당시 연왕조의 境域이면서 고조선과의 접경이라는 것이 중국학계의 일반적인 상황인식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장성의 표기방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을 것이다. 애국주의적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담기양 생각의 일단은 漢왕조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의 역사는 당시 중국역사의 일부분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燕나라 시기 古朝鮮과의 갈등과정에서 나타난 사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연나라의 강역의 경계로 인식되는 장성으로 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담기양의 역사관은 1990년대 이후 중국 학계에 유행된 국가주의 역사관⁷⁰⁾으로 연결되고 있다. 『地圖集』 이후 중국학계의 장성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었다. 장성의 개념에 대하여 線을 연결한 구조물이라는 기본 인식에다가 장새, 봉수, 돈루 등의 線이 아닌 點으로서의 방어물까지도 장성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게 되었다.⁷¹⁾

70) 윤취탁, 2004, 「現代中國의 國家主義 歷史觀과 古代東北邊疆史 認識」 『北方史論叢』 창간호, 고구려연구재단

71) 홍승현, 2012,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東北亞歷史論叢』 35,

(2) ‘滿潘汗’의 위치문제

『地圖集』은 『魏略』에 기록된 ‘滿潘汗’이 『漢書』 지리지에 나타나는 요동군 소속의 ‘番汗縣’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다. 『地圖集』은 ‘滿潘汗’과 ‘番汗’의 관련성을 음운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滿潘汗’의 ‘滿’자가 잘못된 글자라고 해석하였다. 만일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가정한다면, 연나라 시기의 ‘滿潘汗’이 漢代에 이르러 요동군에 소속된 ‘番汗縣’ 지역에 해당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나아가 청천강유역이 漢代에 요동군에 속해 있었고, 요동군의 동남쪽 경계지점에 番汗縣이 위치해 있다고 전제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番汗縣’의 위치에 대한 문헌사료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魏略』의 ‘滿潘汗’= 『漢書』의 ‘番汗縣’이라고 파악한 『地圖集』의 주장은 과연 합리적인가를 검토해보자. 사실 『魏略』에 기록된 ‘滿潘汗’이 『漢書』 지리지에 나타나는 요동군 소속의 ‘番汗縣’과 연관된다는 것은 다음 사료를 배경으로 한다.

E-1: 遼東郡(중략)縣十八, 襄平, 新昌, 無慮, 望平, 房, 候城, 遼隧, 遼陽, 險瀆, 居就, 高顯, 安市, 武次, 平郭, 西安平, 文, 番汗, 沓氏⁷²⁾

E-2: 遼東郡 十一城(중략)襄平, 新昌, 無慮, 望平, 候城, 安市, 平郭有鐵, 西安平, 汶, 番汗, 沓氏⁷³⁾

위의 기록에서 前漢 요동군소속 18縣 중에 文縣과 番汗縣이 나란히 보이고, 後漢 요동군소속의 11城 중에서도 汶, 番汗이 나란히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前漢의 요동군소속 18현이 後漢代에 이르러 11城(縣)으로 축소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요동군이 18현에서 11성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도 문현과 변한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 지역은 서로 인접해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⁷⁴⁾ 漢代의 행정구역 개편상황으로 볼 때 문현과 변한현은 요동군의 안정적인 행정지배 체제 속에서 存置했을 것이다. 이는 양 지역이 요동군의 내지에 속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그렇다면 나

72)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遼東郡條.

73) 『後漢書』卷30, 志 23 郡國 5, 幽州 遼東郡條.

74) 丁若鏞(『我邦疆域考』卷1, 朝鮮考)이래 또 다른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魏略』에 기록된 ‘滿潘汗’이 『漢書』 지리지에 나타나는 요동군 소속의 ‘文縣, 番汗縣’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後稿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란히 기록된 문현의 위치도 변한현의 부근에서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문현의 위치를 알아보자. 文(또는 汶)縣의 위치는 이후 사료에 나타나는 검토를 통해서 그 개략적인 위치를 알게 되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營口市 탕지부근의 영수구고성⁷⁵⁾, 海城縣 절목성촌 漢城유지⁷⁶⁾, 大石橋市 영안향 진보촌 漢城유지⁷⁷⁾ 등의 견해가 있는데, 대체로 요동의 서쪽지역으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滿潘汗’=‘番汗’으로 해석하고는 漢代 番汗縣의 위치를 청천강 부근의 박천지역에 비정한 『地圖集』의 견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 ‘番汗縣’의 중심지라고 주장하는 ‘古博陵城’ 문제를 알아보자. 『地圖集』에서는 ‘滿潘汗’이자 漢代 변한현의 중심지로서 평안북도 박천군에 소재한 ‘古博陵城’의 존재를 지목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古博陵城’이 연나라 시기의 ‘滿潘汗’이자 漢代 番汗縣의 중심지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地圖集』을 비롯한 중국학계의 주장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古博陵城’이 연나라(만반한), 한나라(변한현)와 연결된다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충족되어야 한다. 문제는 ‘古博陵城’에서 이와 관련된 고고학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古博陵城’문제를 검토해보자. ‘古博陵城’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관련기록⁷⁸⁾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古博陵城’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성은 德昌鎭과 博州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⁷⁹⁾을 근거로 하여, 고려 定宗 2년(947)에 거란의 침공에 대비하여 축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박천읍의 북쪽에 인접한 봉성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古博陵城’은 문헌기록상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 축조된 성곽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地圖集』은 한 대 변한현의 치지로 파악하고 나아가 만반한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古博陵城’이 고려시대에 축조된 성곽인지, 아니면 『地圖集』의 주장처럼 燕, 漢代에 해당하는 유적인지를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박릉성은 대령강의 동쪽 강변에 위치해 있다. 성의 북쪽과 서북쪽을 따라 대령강의 지천이 인접하여 통과하다가 대령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박천읍은 사방이 평탄한 평야지대에 해당한다.

75)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中国历史地图集』 釋文彙編, 東北卷』 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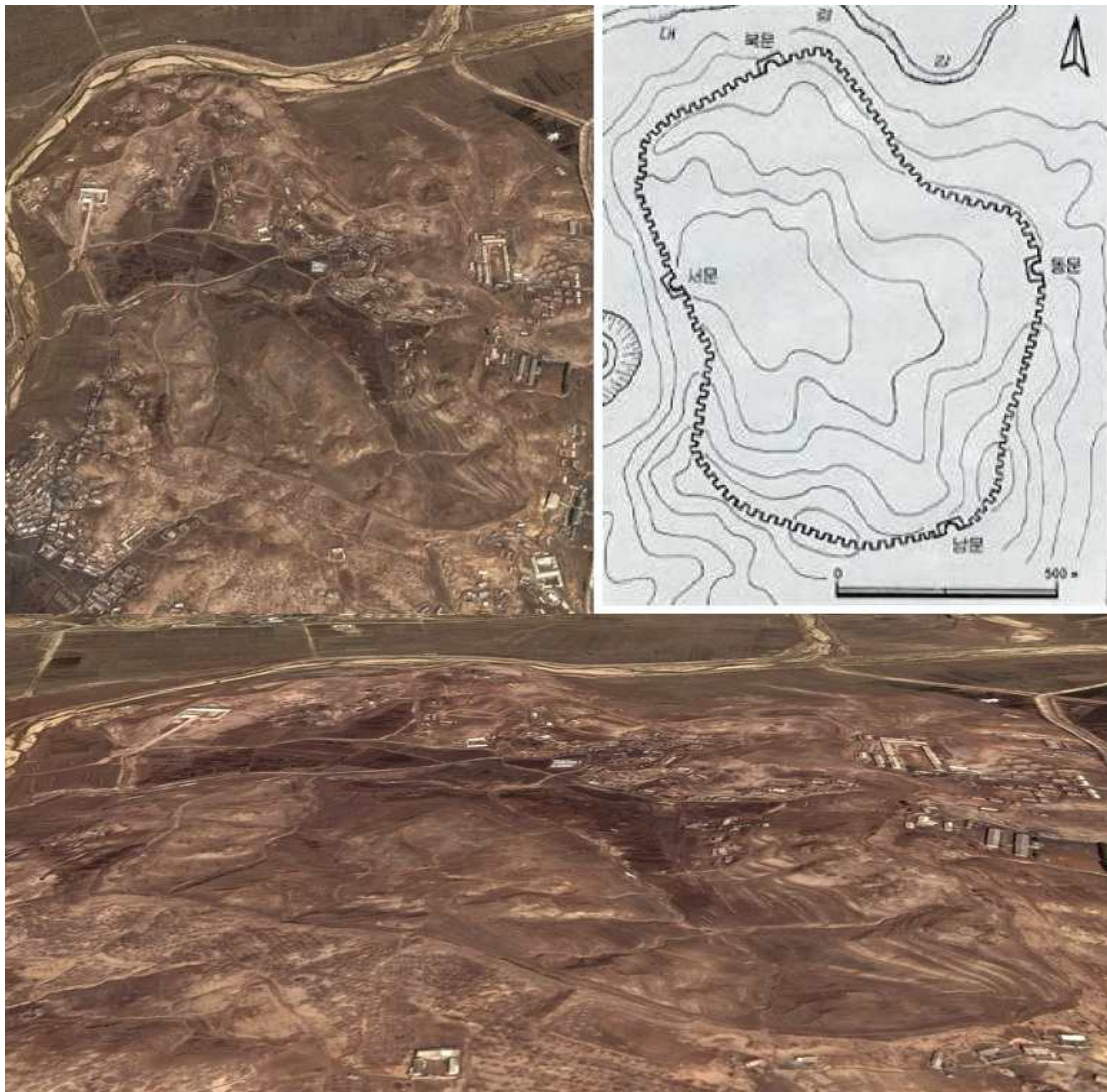
76) 孫進己·王綿厚主編, 1988, 『東北歷史地理』 1, 黑龍江人民出版社, 296쪽, 379쪽.

77) 馮永謙主編, 1996, 『營口市文物志』, 遼寧民族出版社, 51-52쪽.

78) “古博陵城在郡南十里 周七千三百五十五尺 中有九泉三池”(『新增東國輿地勝覽』 卷54 平安道 4 博陵郡 古蹟條).

79) 『高麗史』 卷82, 志36, 兵2, 城堡 “城 博州一千一間, 水口一, 門九, 城頭十六, 遮城九”

성벽의 현상은 서벽과 남벽이 높고 동벽과 북벽이 낮은 지형 상에 구릉 상으로 발달된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성벽의 동북쪽과 북쪽은 평지에 가까운 지형이다. 성의 평면은 불규칙한 모습을 띄고 있으며, 둘레는 약 3.5km에 달한다. 성벽의 높이는 5~7m가량이며 성벽을 따라 9개의 문지를 조성하였다. 동서남북의 큰 문지와 그 사이에 소규모의 문지를 만들었다. 성의 동문지 안쪽을 따라 큰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성안에서는 고려시대 기와 및 청자파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한다.⁸⁰⁾



<그림 11> 潘汗縣의 중심지라고 제시된 古博陵城의 상황

80) 「대령강장성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1987-2, 40-43쪽. 그리고 성안에서 출토되는 기와는 성벽의 기초부분이나 맨 아래 문화층에 출토된다고 한다(44쪽). 손영중, 「대령강반의 옛 장성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7-2, 23-29쪽.

따라서 ‘古博陵城’은 현재까지의 조사내용과 출토유물 등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고려 시대에 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地圖集』의 주장이 성립되기 어려운 것은 ‘고박릉성’이 둘레가 3.5km에 달하는 대규모의 城이라는 점이다. 요동, 한반도 지역에 입지한 중국 漢代 郡縣城의 대부분은 方形의 土城으로서 평지성, 구릉성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다. 특히 요동 및 한반도 지역에 소재한 군현성중에서 ‘古博陵城’과 유사한 입지와 내용을 가지는 유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변 어디에서도 漢代의 郡縣城이 존재한다는 고고학적인 조사보고는 확인된 바가 없다. 요컨대 『地圖集』과 이를 추종하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못한 주장이었다.

漢代 변한현=고박릉성설은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도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고고학 지식이 미숙한 시절에 ‘만반한’을 대령강으로 비정했었던 주장⁸¹⁾이 後代 학자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地圖集』 출간이후, 1987년 북한에서 대령강 장성이 조사된 이후에⁸²⁾, 중국학자들은 대령강장성이 바로 燕長城의 고고학적인 유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地圖集』의 주장은 더욱 보강되어갔고 세분화되었다. 허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 평안북도 박천지역 = 漢代 변한현의 治址 = 燕나라 만반한 說은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

2) 秦 장성

‘秦 長城’의 동단과 관련하여 ‘樂浪郡 遂城縣’이라는 용어가 결합하여 기록된 사료가 있다.

다음 사료 F는 관련기록을 일부 제시한 것이다.

F-1: (平州) 樂浪郡<漢置> …(중략)… 遂城<秦築長城之所起>(『晉書』卷14, 志4, 地理上, 平州 樂浪郡).

81) 陳澧撰, 1872, 『漢書地理志水道圖說』, 開明書店, 및 李丙燾, 1933, 「溟水考」 『靑丘學叢』 13.

82) 「대령강장성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1987-2.

- F-2: 太康地志云 樂浪遂城縣 有碣石山 長城所起(『史記』卷2, 夏本紀 第2의 주석에 인용된 『史記索隱』).
- F-3: 盧龍<漢肥如縣有碣石山 碣然而立 在海旁, 故名之, 晉太康地志同 秦築長城 所起自碣石, 在今高麗舊界, 非此碣石也>(『通典』 卷178, 州郡8, 古冀州 上).
- F-4: 晉太康地理志云 秦築長城 起自碣石. 在今高麗舊界 非碣石山也.
- F-5: 碣石山 在漢樂浪郡遂城縣 長城起於此山. 今驗 長城東截遼水 而入高麗 遺址猶存. (『太平寰宇記』 卷70, 河北道19, 平州 盧龍縣).
- F-6: 碣石山 在永平府昌黎縣西北二十里...(중략)...秦築長城, 起自碣石, 此碣石在高麗界中, 亦謂之左碣, 石<杜佑曰 秦長城 所起之碣石, 在漢樂浪郡遂城縣地. 今猶 有長城遺址, 東截遼水 入高麗, 隋大八年, 伐高麗, 分遣越孝才 出碣石道. 是也>...(중략)...此皆傳譌也(『讀史方輿紀要』 卷10, 北直1, 碣石).

사료 F에서 제시된 몇 가지 내용은 낙랑군의 위치문제, 秦長城의 起點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중·일 학자들 사이에서 이후 다양한 형태로 해석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사료 F를 해석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두 가지라고 하겠다. 낙랑군수성현의 위치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한반도 평양지역 또는 요서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견해의 공통점은 ‘樂浪郡 遂城縣’이 ‘碣石山’ 이나 ‘秦 長城’과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위치문제를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첫째로, 사료 B에 나타나는 낙랑군을 요서지역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특히 사료 F-2는 요서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로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秦長城’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된 ‘樂浪郡 遂城縣’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주로 낙랑군의 위치문제와 관련하여 학계의 통설과는 달리 낙랑군이 요서지방에 위치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⁸³⁾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상고사 대토론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⁸⁴⁾ 이때 필자는 『태강지리지』의 편찬시기를 감안해 볼 때 ‘낙랑수성현’기록은 낙랑군이 요서지방으로 옮겨진 이후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하였

83) 연구사를 몇 가지만 소개하면, 윤내현, 1995, 「한사군의 낙랑군과 평양의 낙랑」 『한국학보』11-4. 복기대, 2001, 「臨屯太守章 封泥를 통해본 漢四郡의 위치」 『백산학보』61. 이덕일, 2009, 「한사군은 어디에 있었는가?」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 역사의 아침.

84) 공석구, 2015, 「낙랑군 수성현 관련기록 고찰」, 24쪽.

다. 따라서 이 사료를 해석하여 한사군 설치 이후부터 낙랑군 수성현이 요서지역에 소재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위 사료에서 사학사적으로 볼 때 검토대상이 되는 것은 『晉書』와 『太康地理志』 관련기록이다. 『太康地記』 즉 『太康地理志』는 ‘秦 長城’, ‘樂浪郡 遂城縣’ 관련 내용을 가장 먼저 기록한 사서에 해당한다. 필자는 왕모의 『太康地記』가 필원이 집록한 『晉太康三年地記』에 비해 사료의 原狀을 기록한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 그림 12 >를 보자

| 사서 | 관련 내용 |
|------------|----------------------------------|
| 『晉書』 | ○ (平州) 樂浪郡〈漢置〉…(중략)… 遂城〈秦築長城之所起〉 |
| 王模, 『太康地記』 | ○ 樂浪遂城縣 有礪石山 長城所起 ○ 秦築長城 起自礪石 |

< 그림 12 > 『晉書』 지리지와 왕모 『太康地記』 관련기록 비교

위 < 그림 12 >는 『晉書』 지리지와 왕모 『太康地記』의 관련기록을 비교한 것이다. 왕모는 두 가지의 사료를 집록하였다. ‘樂浪遂城縣 有礪石山 長城所起’와 ‘秦築長城 所起自礪石’이다. 왕모가 이 두 개의 사료를 별도로 취급하여 집록하였음은 앞서도 설명한 바 있다. 두 개의 사료를 『晉書』와 비교해보자. 『晉書』는 王模의 『太康地記』 기록을 합쳐놓은 것과 유사해 보인다. 문제는 『太康地記』에 집록된 두 개의 사료를 『晉書』에서처럼 하나의 내용으로 합칠 만한 사료적 典據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 그림 12 >의 兩書에 기록된 관련내용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타난다. 그것은 礪石(山)기록의 有無문제라 하겠다. 『晉書』 지리지에서는 王模 『太康地記』에 보이는 礪石(山)을 배제하였다. 그렇다면 『晉書』 지리지에서는 왜 礪石(山)을 배제하고 기록하였을까 하는 점이 궁금해진다.

이와 같은 기록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모가 집록한 2개의 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로, ‘秦築長城 起自礪石’은 어떻게 하여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晉書』를 보면 礪石(山)과 秦長城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사료가 있어 주목된다.

北虜侵掠北平. 以彬為使持節 監幽州諸軍事 領護烏丸校尉 右將軍. 彬既至鎮 訓卒利兵

廣農重稼 震威耀武 宣諭國命 示以恩信. 於是鮮卑二部 大莫廡 撻何等並遣侍子入貢. 兼修學校 誨誘無倦 仁惠廣被. 遂開拓舊境 卻地千里. 復秦長城塞 自溫城泊于碣石. 縣互山谷 且三千里 分軍屯守 烽堠相望.⁸⁵⁾

위 사료는 秦 장성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선비족이 북평군 지역을 침략해오자 당빈을 파견하여 秦나라의 長城塞를 복구했는데 온성에서 碣石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당빈(235~294)이 북평군(현 北京지역)에서 활동하던 시기는 오나라 평정(280년)직후부터 雍洲刺史를 수여받은 元康 初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晉太康年間(280~289)이 아닐까 한다. 관심을 끄는 것은 동쪽으로 碣石까지 이르는 秦長城塞를 복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료에 나타난 갈석의 위치가 평양부근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어쨌든 3세기 말엽까지도 진 장성이 갈석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료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료에 대한 사실 확인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秦장성 유적은 갈석산 보다 훨씬 북쪽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갈석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시된 碣石의 위치는 앞서 『通典』, 『독사방여기요』, 『태평환우기』 등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노룡현(현 요녕성 진황도시 노룡현)지역에 해당할 것이다.

갈석과 진장성의 밀접한 관계는 이 사료 이후부터 나타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碣石(山)’과 ‘秦長城’관련 기록을 남기게 된 배경은 이때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이 후일 편찬된 『태강지리지』에 반영되었고⁸⁶⁾, 또한 『태강지리지』를 인용한 『通典』을 비롯한 많은 사서들에 전승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樂浪遼城縣 有碣石山 長城所起’은 어떻게 하여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 기록은 낙랑군 수성현이 갈석산 지역에 소재하게 내력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알다시피 낙랑군 수성현은 한군현에 속한다. 낙랑군이 요서지방의 갈석산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는 『태강지리지』의 편찬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분석한 것처럼 『태강지리지』의 편찬시기를 감안해 볼 때 ‘낙랑수성현’기록은 낙랑군이 요서지방으로 옮겨진 이후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컨대 이 사료를 해석하여 한사군 설치 이후부터 낙랑군 수성현이 요서지역에 소재한다고 주장하는

85) 『晉書』 卷42 列傳第12 唐彬.

86) 노태돈, 1990,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18쪽

일부 견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이 기록은 『通典』 『太平寰宇記』 을 비롯하여 唐代 이후에 편찬된 많은 사서에 계승되어 졌다.

앞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두 가지 기록이 전승되었다. 먼저 당빈관련기록(秦築長城起自礪石)이 전승되어 오다가 『태강지리지』 에 기록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갈석산 지역으로 이치된 낙랑군 관련기록(樂浪遂城縣 有礪石山)이 전승되어 오다가 『태강지리지』 에 기록된 것이라 하겠다.

『晉書』 지리지는 『태강지리지』 의 ‘礪石(山)’부분을 배제하고서 “遂城<秦築長城之所起>”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었다. 왜 그렇게 기록하였을까? 필자는 이문제에 대하여 『晉書』 찬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갈석산의 위치가 평주지역의 낙랑군과는 다른 지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던 『晉書』 찬자에 의해 갈석산이 배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추적해보자. 필자는 평주 낙랑군 기록에 대한 『晉書』 지리지의 편찬 의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이성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고구려에 대한 침공명분을 확보하려는 唐의 포석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⁸⁷⁾ 필자는 이와 같은 견해에 일부 동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리지의 편찬 기준과 편찬의도라는 측면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즉 『太康地理志』 의 관련내용이 『晉書』 지리지의 편찬의도와 달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晉書』 지리지 평주조는 평주가 존재 하던 시기(274~282)의 상황을 기록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평주 낙랑군에 소속된 6개현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다. 그 의도는 당시 한반도의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낙랑군의 존재를 설명하려는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太康地理志』 의 ‘낙랑군 수성현’ 관련기록은 요서지방(현 요녕성 진황도시 노룡현)에 소재한 갈석산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한 『晉書』 撰者는 지리지 평주 낙랑군 소속의 수성현을 소개하면서 요서지역의 수성현 갈석산과는 성격이 맞지 않게 되자, 당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용어인 ‘礪石(山)’ 부분을 삭제하고는 이 두 개의 사료를 혼합하여 ‘(樂浪郡)遂城(縣)<秦築長城之所起>’라고 기록하였던 것이라고 분석된다. 결국 이렇게 하여 『晉書』 지리지에 평주 낙랑군 소속의 수성현을 소개하면서 “遂城<秦築長城之所起>”라는 생소하고도 돌발적인 주석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87) 이성규, 2005, 「4세기 이후의 낙랑교군과 낙랑유민」 『동아시아역사속의 중국과 한국』, 서해문집, 219쪽.

다. 요컨대, 필자는 “滌城<秦築長城之所起>”라는 기록이 나타나게 된 것은 『太康地理志』 관련기록을 『晉書』 찬자가 편찬의도에 맞추어 재편집한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낙랑군 수성현이 진나라가 축조한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이 기록이 한반도 평양지역을 지칭한다고 해석해 온 종래의 분석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진장성의 동단 관련기록은 갈석산이 소재한 요서지역(현 요녕성 진황도시 서쪽지역)과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갈석산이 있는 낙랑군 수성현은 요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5. 맺음말

앞서 제기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중국역사지도집』을 비롯하여 그 이후 중국 학계에 일반화된 연구 성과가 있다. 燕秦왕조의 長城이 한반도 중북부지역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장성은 고대 중국의 강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편인 고조선의 입장에서조차 장성이 가지는 의미는 고조선의 서쪽 국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문헌, 고고학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학계의 이와 같은 영역인식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4〉

위만조선의 왕검성과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위만조선의 왕검성과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1. 들어가는 글

왕검(협)성은 위만조선의 마지막 수도이고,¹⁾ 낙랑군 조선현은 낙랑군을 다스리던 치소였다. 그런데 위만조선의 왕검성과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처럼 서로 혼동하기 쉬운 것도 드물다. 왕검성과 조선현의 위치를 각각 따로 보는 견해도 있고, 같은 곳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점이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왕검성의 위치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는 같은 것으로 여겼던 것은 위만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에 낙랑군 조선현을 설치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학계의 일부에서는 위만조선의 왕검성은 대동강 북쪽의 평양일대에, 낙랑군 조선현은 대동강 남쪽의 토성리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분리하고 있다. 왜 대동강 북쪽의 왕검성 자리에 낙랑군의 치소인 조선현을 설치하지 않고, 강 하나 남쪽에 설치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리된 인식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소속의 일본인 학자들이 분리한 것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사기』 「조선열전」 등에 ‘위만이 패수를 건너 왕협성

1) 고조선은 통상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의 순서로 인식하지만 기자조선이 단군조선을 대체하고 들어섰다가 위만조선이 기자조선을 대체하고 들어섰다는 뜻은 아니다. 윤내현 교수처럼 단군조선만을 우리 역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에 도읍했다'고 서술되었는데, 일본인 학자들이 이때의 패수를 지금의 대동강으로 보고 대동강 남쪽에 조선현이 있었다고 한 것을 추종한 결과이다. 이나바 이와기치 등의 식민 사학자들은 패수가 대동강이란 전제에서 대동강 남쪽에 조선현을 갖다 둔 것인데, 해방 후 한국인 학자들은 패수를 청천강, 또는 압록강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낙랑군 조선현만은 대동강 남쪽으로 비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학문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학자들은 패수를 압록강, 또는 청천강으로 보면서 대동강 북쪽의 평양에 왕검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낙랑군 조선현만은 대동강 남쪽으로 비정하는 이상한 논리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한국 학계 일부의 논리적 구조의 모순을 지적하고 실제 왕검성과 조선현의 위치를 중국 사료를 통해서 찾으려는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2. 위만조선의 왕험성과 낙랑군 조선현에 대한 기존의 견해

1) 위만조선 왕험성과 낙랑군 조선현이 분리되는 과정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위만조선의 왕험성과 낙랑군 조선현을 분리해서 사고하지 않는 견해가 다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들이 둘을 분리한 이후 해방 이후에도 한국인 학자들 일부가 이를 추종하면서 왕험성과 조선현은 분리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런 경향을 대표하는 것이 동북아역사재단인데, 먼저 왕험성과 조선현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09년 홈페이지에 실은 견해를 보자.

“위만조선은 그 왕성인 왕험성(王險城)이 현재의 평양시 대동강 북안에 있었는데, 이는 위만조선과 한의 경계 역할을 한 패수(溟水)가 지금의 압록강이라는 점, 위만조선의 도읍 부근에 설치된 낙랑군 조선현의 치소가 지금의 평양시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 토성이라는 점, 왕험성 및 조선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열수(列水)가 지

금의 대동강으로 비정되고 있다든지 하는 점을 통해서 입증된다.”²⁾

필자가 동북아역사재단의 2009년도 홈페이지 내용을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동 재단의 이런 견해가 관련학자들 중심으로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2013년 하버드대에 1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 한국 내에서 발간한 『The Han Commanderies In Early Korean History(한국 고대사의 한사군)』 등을 비롯해서 2015년까지 국고 47억여원이 지급된 『동북아역사지도』에도 위 홈페이지의 내용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이 기술은 단 하나도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 없다. 패수는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고 낙랑군 조선현의 치소는 지금의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 토성이 아니고 열수는 지금의 대동강이 아니다. 『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는 “열(列)은 강이름이다. 열수(列水)는 요동(遼東)에 있다”³⁾고 열수가 요동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 대동강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언제부터 요동이 대동강으로 옮겨왔는가? 1차사료를 검토하는 학문적 방식 대신 머릿속에 전제를 세워놓고 그 전제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일관하다보니 나오는 오류들에 불과하다.

게다가 위만조선의 왕험성은 대동강 북쪽의 평양으로 비정하고 낙랑군 조선현은 대동강 남쪽의 토성동으로 비정하는 것도 합리적 근거가 없다. 이병도는 1976년 간행한 신수정판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研究)』의 「낙랑군고(樂浪郡考)」에서, “조선현……은 낙랑군의 치소(治所:首府)로 그 중심지를 이루고 있었던 만큼 중요한 현이거니와, 흔히 현명(縣名)으로 보아 위씨조선의 수부인 왕험성(王險城), 즉 지금의 평양이라는 설이 유행되었다”⁴⁾라고 썼다. 그간 ‘위만조선 왕험성=낙랑군 조선현’으로 보아왔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보지 않은 학자들도 있었다. 다산 정약용이 “기자가 반드시 평양에 도읍했다는 것은 본래 명확한 근거가 없다. 평양이 기자의 고도(古都)라면 왕검성(王儉城)이란 이름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⁵⁾라고 말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정약용은 낙랑군을 지금의 평안도와 황해도로 비정하는 등⁶⁾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혼란된 인식을 갖고

2)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고조선조’ 2009년. 동북아역사재단은 현재 홈페이지는 바꿨지만 이 내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後漢書』 「郡國志」, 「幽州 樂浪郡 列口縣 註釋」郭璞注山海經曰,“列, 水名. 列水在遼東”

4) 李丙燾, 「樂浪郡考」, 『修訂版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초판, 140쪽. 여기서는 중판(2001년) 133쪽.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중판을 텍스트로 사용할 것이다.

5) “然箕子之必都平壤. 本無明據. 平壤若係箕子故都. 則不應以王儉城得名也” 丁若鏞, 「跋箕子井田圖」, 『茶山詩文集』 14권

6) “樂浪者. 今平安黃海二道之地也”, 丁若鏞, 「樂浪考」, 『疆域考 其一』, 『與猶堂全書』. 정약용은 「地理策」에서도 같은 내용을 피력하고 있다.

있었지만 중국 1차사료를 검토한 결과 나름대로 문제의식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병도는 왕험성에 조선현이 세워진 것으로 인식해왔다는 서술에 뒤이어 이렇게 말했다.

“낙랑군은……그 수부(首府:首縣)의 이름이 조선현(朝鮮縣)인만큼 지금의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종래에 별로 이론(異論)이 없었다. 또 낙랑군이 한사군 중의 중추적인 구실(役割)을 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⁷⁾

이병도는 ‘왕험성=조선현’이 지금의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별로 이론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조선의 정약용이 이미 “지금 사람들은 낙랑군의 여러 현들이 혹은 요동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⁸⁾라고 말했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요동에 있었다는 ‘재요동설’과 ‘한반도 북부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이병도는 이런 주장은 모른채 하면서 “그러나 다른 유력한 문헌과 더욱이 일제 초기 이래 발굴·발견된 많은 유물·유적으로 인하여 조선현 평양(故王險城)설은 부인되고 말았다.”⁹⁾라고 서술했다. ‘왕험성=조선현=평양성’이란 기존의 인식이 ‘유력한 문헌’과 ‘많은 유적·유적’으로 인해 “부인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럼 이병도는 ‘조선현=평양설’을 부인하고, 그와 양립하고 있던 ‘조선현=요동설’로 돌아선 것일까? 그럴 리는 없다. 이병도는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요동으로 밝혀졌다는 것이 아니라 대동강 북쪽이 아닌 대동강 남쪽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병도는 이렇게 덧붙였다.

“과연 일제초기로부터 일인(日人) 조사단에 의해서 대동강 남안인(대동면) 토성리(土城里) 일대가 낙랑군치(樂浪郡治)인 동시에 조선현치(朝鮮縣治)임이 그 유적·유물을 통하여 판명되었다……낙랑의 유적과 유물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지만, 특히 이 대동면(大同面) 토성리를 중심으로 한 부근 일대에 집중된 감이 있다. 이로써보다도 이 일대가 낙랑군치(樂浪郡治)인 조선현의 소재지였던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이병도, 「낙랑군고」, 『한국고대사연구』)”¹⁰⁾

7) 李丙燾, 『修訂版 韓國古代史研究』, 133쪽.

8) “鋪案今人多疑樂浪諸縣。或在遼東” 丁若鏞, 「四郡總考」, 『疆域考 其一』, 『與猶堂全書』

9) 李丙燾, 「樂浪郡考」, 『修訂版 韓國古代史研究』, 140쪽.

10) 李丙燾, 「樂浪郡考」, 『修訂版 韓國古代史研究』, 140~142쪽.

앞서는 ‘조선현=대동강 북안 평양성’에 별로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조선현=대동강 남안 토성동’이라는 점이 ‘재연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이 ‘대동강 남안 토성동’으로 바뀌었으니 남들도 따라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단이다. 문제는 이병도가 그 근거로 든 것이 겨우 일인 조사단의 발굴 결과라는 점이다. 일인들의 발굴결과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판명’되었다고 단정하면서 ‘재연을 요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일인 조사단의 발굴이란 조선총독부가 1915년에 발간한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등의 내용을 뜻할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고적도보』에서 토성동 토성을 낙랑군 조선현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의 토성동(土城洞)은 대동강 좌안(左岸)에 있는데, 사방 45정(町)의 지역에 흙으로 쌓은 성벽을 두른 유적의 자취가 뚜렷하다. 그 안팎에서 한나라 때 와당(瓦當)이 발견되었는데, 이와 같은 문양을 갖고 있는 기와 및 한·위(漢魏)시대에 속하는 벽돌을 다수 발견했다. 또 그 부근에 낙랑군 시대의 고분군(古墳群)이 존재하는데, 이곳은 아마도 낙랑군치(樂浪郡治)의 유적일 것이다”¹¹⁾

앞서 동북아역사재단이 홈페이지에서 “위만조선의 도읍 부근에 설치된 낙랑군 조선현의 치소가 지금의 평양시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 토성”이라고 주장한 것은 조선총독부의 발굴 결과를 지금껏 따르고 있다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이병도가 말하는 ‘유물·유적’은 조선총독부의 의도된 발굴결과를 뜻한다. 그럼 ‘유력한 문헌’은 무엇을 뜻할까?

2) 대동강 남쪽을 주목한 이나바 이와기치식 실증주의

이병도가 ‘조선현=지금의 평양성’을 부정하고, ‘조선현=대동면 토성리’로 수정한 문헌적 근거를 찾으려면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1876~1940)라는 식민사학자를 주목해야 한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이른바 교토 [京都] 학과의 나이토 코난(内藤湖南)에게 사사(師

11) 關野貞, 「樂浪郡治址」, 『朝鮮古蹟圖譜』, 朝鮮總督府, 1915.

事)한 후 1900년에 북경에 유학했다가 1908년부터 만철(滿鐵) 조사부에서 쓰다 소키치 등과 함께 『만선역사지리(滿鮮歷史地理)』 편찬 사업에 참여했다. 만철은 조선총독부가 생기기 이전부터 한국과 만주를 점령할 목적으로 역사조작에 나섰던 제국주의 침병이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1925년부터는 조선사편수회 수사관(修史官)을 역임하면서 경성제대의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하는 『조선사(朝鮮史)』 35권 편수에 관여했다. 한마디로 한국사 왜곡의 주역 중의 하나라는 뜻이다. 그와 함께 총독부에서 근무했던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패전 후 일본으로 쫓겨 가서 임나(任那)가 경상도는 물론 충청도 및 전라도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었다는 『임나흥망사(任那興亡史:1949)』를 서술했다. 패전으로 실의에 찬 일본인들에게 일제는 다시 한국을 점령할 수 있으니 좌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극우파 역사학자이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일본의 『사학잡지(史學雜誌)』 제21편 제2호에 「진 장성 동쪽 끝 및 왕험성에 관한 논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를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지금껏 한국의 일부 사학자들에게 낙랑군의 위치를 한반도 내로 비정하는데 주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 이병도의 「낙랑군고」는 이나바 이와기치 논문의 주요 부분을 짜깁기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나 이나바 이와기치이든 쓰다 소키치든 식민사학자들의 논리 전개는 천편일률적이다. 전제, 즉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하위 논리를 꿰맞추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이른바 실증주의’다. 그런데 이나바 이와기치는 ‘이른바 실증주의’에 따라 ‘왕험성=대동강 북쪽 평양설’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동강 남쪽을 주목한 것이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한 한국 학계 일부가 대동강 남쪽에 낙랑군 조선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이렇게 서술했다.

「평양 즉 왕험성’ 설은, 근본적인 의혹을 발생하게 하는 것(釀生)인데, 이 설(說)은 『괄지지(括地志)』에서 비롯되었다. 『괄지지』에는 이르기를, “고구려의 도읍 평양성은 본래 한나라 낙랑군 왕험성이다. 옛날에는 조선땅이었다고 일렀다(高麗都平壤(一作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古云朝鮮地也)”라고 했는데, 이 설이 나오고부터, 『통전(通典)』은, “그 왕이 거주한 평양성은 즉 한나라 낙랑군 왕험성인데 또한 장안성이라고 말했다(其王所居平壤城即漢樂浪郡王險城亦曰長安城)”라고 했고,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

傳) 주석(註釋)에는 “평양은 곧 왕험성이다(平壤卽王險城也)”라고 했고……(이나바 이와기치, 「진 장성 동쪽 끝 및 왕험성에 관한 논고」, 이나바 이와기치가 한문으로 쓴 것을 필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석하고 한문은 괄호로 실은 것이다.)¹²⁾

이나바 이와기치는 당(唐)나라 왕족이었던 이태(李泰:620~653)가 『괄지지』에서 왕험성의 위치를 ‘고구려 평양성’으로 비정한 것이 고조선 왕험성의 위치를 고구려 평양성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이태가 고조선 왕험성의 위치를 고구려 평양성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북위(北魏)의 역도원(酈道元) 때문이다. 역도원이 패수를 대동강으로 착각하고 “패수는 동쪽 바다로 흐른다”¹³⁾는 『수경(水經)』 원문을 “서쪽으로 흐른다”고 자의로 바꾼 결과 많은 혼란이 생긴 것이다. 만약 이나바 이와기치가 역도원이나 이태가 말하는 ‘고구려 평양성=위만조선 왕험성’이 현재의 평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왕험성의 위치를 요동으로 비정할 생각은 없었다. 아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 낙랑군을 평양일대로 비정하는 것은 조선총독부에서 입안한 식민사학의 핵심 요소였기 때문이다. 그럼 이나바 이와기치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계속 살펴보자.

“한(漢)과 조선’은 『위략(魏略)』의 설과 마찬가지로, 패수(溟水)를 경계로 여기고, 원봉(元封) 2년(서기전 109), 한나라 사신 섭하(涉何)가 조선을 떠날 때, 전송해서 경계상(境界上)의 패수에 임(臨)했다고 되어 있다. 섭하가 이미 조선의 비왕(裨王)을 찢러 죽였다. 즉 ‘도(渡:건너다)했다’고 되어 있는 것은 패수를 가리킨다. 도(渡)한 뒤에 요새(塞)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한(漢)의 요새(鄣塞)는, 지금의 대동강의 북안(北岸), 평양 방면에 좇아서(沿) 축조되기 시작(起築)했다는 것으로서, ‘왕험 즉 평양성’이라는 이치의 근거(理據)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이나바 이와기치, 「진 장성 동쪽 끝 및 왕험성에 관한 논고」)¹⁴⁾

난해한 듯이 보여도 이나바 이와기치의 논리는 간단한 것이다. 『사기(史記)』 「조선

12)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사학잡지(史學雜誌)』 第21篇 第2號, 42쪽.

13) “溟水出樂浪鏤方縣, 東南過臨溟縣, 東入于海”, 『수경주(水經注)』 14권의 패수에 대한 원문 기록.

14)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사학잡지(史學雜誌)』 第21篇 第2號, 43쪽.

열전」과 『한서(漢書)』 「조선열전」 등에 한나라 사신 섭하가 고조선에서 배웅 나온 비왕(裨王) 장(長)을 찔러죽이고 패수를 건너 도망갔다는 구절에 ‘이나바 실증주의’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사기』 「조선열전」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나라에서 사신 섭하(涉何)를 보내서 우거(右渠:위만조선 임금)를 꾸짖고 타일렀으나 끝내 조서를 즐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섭하가 돌아가면서 국경인 패수에 이르러 마부〔御〕를 시켜 전송 나온 조선의 비왕 장을 찔러 죽이고 패수를 건너서 요새로 달려 들어갔다.”¹⁵⁾

한 무제가 섭하를 사신으로 보내 위만조선의 우거왕에게 한나라로 조공하려는 고조선 제후국들인 후국(侯國)들의 입조(入朝)를 막지 말라고 권했으나 우거왕이 거부해서 회담이 결렬되었다. 우거왕은 비왕 장을 보내 돌아가는 섭하를 패수까지 배웅하게 했는데 섭하가 마부를 시켜 비왕 장을 찔러죽이고 패수를 건너 요새로 달려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한서』 「조선열전」은 『사기』 「조선열전」의 이 내용에서 ‘마부 어(御)’자를 같은 뜻의 ‘마부 어(馭)’자로 바꾸었을 뿐 같은 내용이다. 섭하가 왕검성에서 패수를 건너 요새로 달려 들어갔으므로 이나바 이와기치는 왕검성은 패수를 건너 곳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나바 이와기치가 “한(漢)은 진(秦)나라 변경 요새(秦塞)가 멀어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물러나 대동강 북안(北岸)에 이르렀다.”¹⁶⁾라고 패수를 대동강이라고 단정 지었다.

바로 이 점이 이나바 이와기치설을 따르는 한국 식민사학계를 코미디로 만들었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패수를 대동강으로 비정짓고 왕험성을 대동강 남쪽에서 찾았다. 『사기』 「조선열전」은 위만이 동쪽으로 요새를 나와 패수를 건너 왕험성에 도읍했다¹⁷⁾고 했지 남쪽으로 건넜다고 하지는 않았다. 『사기』 「조선열전」의 험독현에 대한 주석에서 신찬(臣瓚)은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 동쪽에 있다, 이로부터 험독이라고 했다¹⁸⁾’라고 일관되게 패수 동쪽이라고 설명했고, 『한서(漢書)』 「지리지」 요동군 험독현 조

15) “漢使涉何譙諭右渠，終不肯奉詔。何去至界上，臨溟水，使御刺殺送何者 朝鮮裨王長，即渡，馳入塞” 『史記』，「朝鮮列傳」

16) 稻葉岩吉，「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사학잡지(史學雜誌)』第21篇 第2號，43쪽.

17) “(衛滿)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渡溟水，居秦故空地 上下郡，稍役屬真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險”，『史記』，「朝鮮列傳」

18) 臣瓚曰，「王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此自是險瀆也」，『史記』 「朝鮮列傳」의 『索隱』 주석

주석에서 안사고(顔師古)는 ‘신찬의 설이 옳다(攢說是也)’고¹⁹⁾ 동의했다. 즉 왕험성은 패수 동쪽에 있다는 것이 중국 고대사료의 일관된 기술이다. 그러나 이미 내린 결론에 사료를 꿰맞추는 것이 ‘이른바 실증주의’인 식민사학에 이런 사실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패수를 대동강으로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패수가 대동강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논리는 허구가 된다. 물론 패수는 대동강이 아니다. 윤내현은 패수를 하북성의 난하로 보고 있고, 북한의 리지린은 요녕성 대릉하를 패수로 보고 있다. 패수를 한반도 내로 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압록강설(쓰다 소키치·노태돈), 청천강설(이병도), 대동강설(이나바 이와기치) 등으로 갈리고 있다. 패수가 대동강이 아니라면 ‘패수=대동강’을 전제로 세운 이나바 이와기치의 논리는 모두 무너지는데 신기하게도 패수는 이처럼 다양하게 비정하면서도 낙랑군 조선현은 모두 이나바 이와기치의 논리에 따라 대동강 남쪽의 토성동으로 보고 있다. 패수는 다른 곳에 있지만 낙랑군 조선현만은 토성동 토성으로 보는 이 희한한 현상을 어찌 설명해야 할까?

이나바 이와기치는 패수를 대동강으로 단정 짓고 왕험성을 대동강 남쪽에서 찾았지만 근거가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청나라 양수경(楊守敬:1839~1915)을 끌어들었다. 양수경은 일본에 유학하면서 일본인 식민사학자들과 깊게 교류했던 중국인 식민사학자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양수경이 『수경주소요산(水經注疏要刪)』에서 “내가 『한서』 「조선전」을 읽어보니, 왕험성은 패수의 남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니, 평양성은 왕험성이 아닌 것이다.”²⁰⁾라고 말했다면서 왕험성이 대동강 남쪽에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켰다. 그래도 근거가 부족하자 고고학에 기댔다. 즉 조선총독부의 발굴결과를 주목한 것이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왕험(王險)은 이미 평양이 아니다. 그것을 대동강 남쪽에서 구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지당(至當)”하다면서도 “조선현 즉 낙랑군의 치성(治城:다스리는 성) 왕험(王險)은 명백히 그것이라 비정하기 어렵다.”²¹⁾고 한 발 물러서는 척 했다. 그러면서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발굴 결과를 부회했다.

“다만 지난 설달(昨臘) 중 세키노 공학박사 등이 발견한 대동강면(大同江面:대동강 남

19) 臣瓚曰：「王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此自是險瀆也。」師古曰：「攢說是也。溟音普大反」，『漢書』 「地理志」，遼東郡 險瀆縣 주석

20) 稻葉岩吉，「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사학잡지(史學雜誌)』第21篇 第2號，46쪽. 이나바 이와기치가 인용한 원문은 “余讀史漢朝鮮傳，而知王險在溟水之南，平壤城非王險城也”이다.

21) 稻葉岩吉，「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사학잡지(史學雜誌)』第21篇 第2號，47쪽.

쪽 [大同江南])의 유분(遺墳)은 수개(數個)의 한나라 거울(漢鏡), 칼(刀), 창(矛), 한나라 동전(漢錢) 등이 출토되었는데, 유분(遺墳)의 고전(古磚·옛 벽돌)의 문양 등이 전혀 한나라와 위나라 사이(漢魏之際)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쩐지 오인(吾人)으로 하여금 낙랑 치소(治所)의 유허(遺墟)에 닿을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없지 않다(이나바 이와기치, 「진 장성 동쪽 끝 및 왕험성에 관한 논고」)²²⁾

도쿄대 건축학과 출신의 세키노 타다시(関野貞:1868~1935)는 조선총독부의 위촉으로 한반도 내의 수많은 유적·유물들을 발굴하면서 식민사학을 고고학으로 합리화한 인물이다. 세키노 타다시는 역사해석의 기본이 되는 1차 문헌사료와 배치되는 여러 발굴 결과를 내놓았고, 식민사학은 이를 근거로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만들어진 고고학의 대표격인 사례이다. 세키노 타다시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만든 조선총독부의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1915)』는 「낙랑군」에 대해서, “원봉(元封) 3년 한무제가 설치한 낙랑군은 대략 지금의 평안남북도, 황해도 및 경기도에 걸친 지역에 있었다”²³⁾라고 단정 짓고 있다.

이처럼 이나바 이와기치가 낙랑군 조선현을 대동강 남쪽에 비정한 것은 1차사료적 근거가 전무한 조선총독부식 ‘이른바 실증주의’였다. 이런 식민사학 실증주의에 세키노 타다시로 대표되는 고고학계가 가세한 것은 조선총독부의 짜여진 각본에 따른 것이었다. 문제는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한국 역사학계 일각의 문제이다.

3. 위만조선 왕험성과 요동군 협독현의 위치

1) 요동군 협독현과 낙랑군 조선현

위만조선 왕험성과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사기』·『한서』 등 중국

22)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사학잡지(史學雜誌)』 第21篇 第2號, 47~48쪽.

23)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解說第1冊』, 1915, 1쪽.

의 고대 사서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측 사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의 고대 사료들은 왕험성은 평양이나 대동강 남쪽에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우선 『사기』 「조선열전」의 “위만이 왕험에 도읍했다 [都王險]”는 구절, 즉 왕험성에 대한 『사기집해』 및 『사기색은』의 주석을 살펴보자.

「『집해(集解)』: 서광(徐廣)은, “창려(昌黎)에 험독현이 있다.”고 말했다. 『색은(索隱)』: 위소(韋昭)는 “고읍의 이름이다”라고 말했다. 서광은 “창려에 험독현이 있다”고 말했다. 응소(應劭)는 주석에서 “지리지에는 요동에 험독현이 있는데, 조선왕의 옛 도읍이다”라고 말했다. 신찬(臣瓚)은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고 말했다.」²⁴⁾

이 주석은 위만조선 왕험성의 위치에 대해 세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는 그 위치가 창려현에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요동에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낙랑군 패수 동쪽에 있다는 것이다. 먼저 왕험성이 요동군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양이나 대동강 남쪽이니 하는 주장들은 모두 근거를 상실한다. 언제 요동이 평양이나 대동강 남쪽으로 옮겨왔는가? 또한 창려현의 위치만 찾아도 왕험성의 위치는 한반도 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기』의 주석자들을 살펴보면 응소(應劭)는 낙랑군이 존재하고 있던 후한(後漢) 때 사람으로서 후한 중평(中平) 6년(184) 태산(泰山)태수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위소(韋昭:204~273)는 오(吳)나라 사람으로서 역시 낙랑군이 존재하고 있을 때 생존했던 학자 겸 벼슬아치이며, 서광(徐廣:352~425)은 동진(東晉)의 역사학자이다. 낙랑군이 존속하고 있을 때의 역사학자들은 위만조선의 수도 자리에 세운 험독현은 요동군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위치는 창려라고 말하고 있다.

응소(應劭)의 말대로 「지리지」, 즉 『한서』 「지리지」는 험독현을 낙랑군이 아니라 요동군 소속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기의 선후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서』 「지리지」 편찬 당시에는 한나라에서 위만조선의 수도자리에 있던 험독현을 낙랑군이 아니라 요동군 소속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한서』 「지리지」 ‘요동군(遼東郡)’조는 요동군이 “유주에 속해있다 [屬幽州]”²⁵⁾고

24) 『集解』 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 『索隱』 韋昭云 “古邑名” 徐廣曰 “昌黎有險瀆縣” 應劭注 “地理志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 臣瓚云 “王險城在樂浪郡浪水之東”也. 『史記』 「朝鮮列傳」 중 都王險의 주석.

설명하고 있다. 유주는 지금의 북경지역인데, 『한서』 「지리지」는 유주에 속한 군으로 대군(代郡)·상곡군(上谷郡)·어양군(漁陽郡)·우북평군(右北平郡)·요서군(遼西郡)·요동군(遼東郡)·현도군(玄菟郡)·낙랑군(樂浪郡) 등 여덟 개 군을 들고 있다. 이 여덟 개 군은 북경 부근에 있었다는 뜻이다. 이중 요동군은 열여덟 개의 속현(屬縣)을 갖고 있었고, 낙랑군은 스물다섯 개의 속현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요동군에 왕험성 자리에 세운 험독현이 있고, 낙랑군에 조선현이 있었다는 것이다. 험독현과 조선현은 소속 군이 달랐다. 『한서』 「지리지」의 요동군 험독현에 대한 주석에 그 위치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요동군 험독현; 응소(應劭)가, ‘조선왕 위만의 도읍이다. 물이 험한 데 의지했으므로 험독(險瀆)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신찬(臣瓚)은 ‘왕험성(王險城)은 낙랑군 패수 동쪽에 있다, 이로부터 험독이라고 했다’고 했다. 안사고(顏師古)는 ‘신찬의 설이 옳다’고 했다 (『한서』 「지리지」 요동군 험독현)”²⁶⁾

이 주석은 요동군 험독현이 위만조선의 옛 도읍으로서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안사고도 패수 동쪽이라는 신찬의 위치 설명이 맞다고 동의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서』 「지리지」는 조선현은 낙랑군 소속으로 달리 분류하고 있다. 『한서』 「지리지」의 낙랑군 조선현에 대한 설명을 보자.

「낙랑군, 한 무제 원봉 3년에 열었다. 왕망(王莽)은 낙선(樂鮮)군 이라고 불렀는데, 유주(幽州)에 속해 있다. 호수는 6만2,812호이고, 인구는 40만6,748명이다. 운장(雲鄣)이 있고, 25개 속현이 있다. 조선현 [주석; 응소(應劭)는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했다”라고 말했다] ……」²⁷⁾

낙랑군 조선현에 ‘주 무왕이 기자를 봉한 곳’이라는 주석을 단 응소는 낙랑군이 존재

25) 『漢書』 「地理志」 遼東郡 조(條)

26) “遼東郡, 險瀆縣: 應劭曰,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曰險瀆.’ 臣瓚曰, ‘王險城在樂浪郡溇水之東, 此自是險瀆也.’ 師古曰, ‘瓚說是也’ (『漢書』 「地理志」 遼東郡 險瀆縣 주석)

27) “樂浪郡, 武帝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 戶六萬二千八百一十二, 口四十萬六千七百四十八. 有雲鄣. 縣二十五. 朝鮮, 應劭曰, ‘武王封箕子於朝鮮’ ” (『漢書』, 「地理志」 樂浪郡)

했던 후한 때의 인물로서 이는 후한 사람들의 역사지리 지식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나라 때의 학자들은 낙랑군 조선현을 주(周) 무왕이 기자(箕子)를 봉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기자(箕子)는 서기 전 12세기 경의 인물로서 『사기(史記)』 「송미자(宋微子) 세가」의 주석은 “두예(杜預)가 말하기를 ‘양국(梁國) 몽현(蒙縣)에 기자의 무덤이 있다’고 했다”²⁸⁾고 설명하고 있다. 양국 몽현은 지금의 하남성 상구(商丘)인데, 기자 사화(史話)가 사실이라면 기자의 수봉지는 하남성 상구에서 먼 지역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사서는 위만조선의 도읍지인 왕험성에는 험독현을 설치해 요동군에 속하게 했고, 기자조선의 도읍지에는 조선현을 설치해 낙랑군에 속하게 했다고 분리해서 말하고 있다. 『한서』 「지리지」는 분명 험독현과 조선현의 소속 군(郡)을 다르게 분류했다. 여기에 대해서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는 1946년 간행한 『조선사연구 상(上)』에서 “조선(현)은 낙랑군에 쓰고, 험독(현)은 요동군에 썼으니 이를 가지고 보면 요동과 낙랑이 넘나들던 것(괄호는 필자)”²⁹⁾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요동군과 낙랑군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뜻이다. 정인보는 또한 “각군(各郡)의 동시 상황을 고거(考據)한 것이 아니라 각자 선후(先後)한 것을 단취(斷取)한 까닭”³⁰⁾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즉 요동군과 낙랑군이 가까운 곳에 있었고 행정구역의 변천에 따라 서로 뒤섞이기도 했던 과정을 무시하고 함께 서술하면서 생긴 혼란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2) 왕검성은 하나였는가?

정인보는 왕검성의 위치에 대해서, “왕검성(王儉城)인 조선현이 지금 평양과 원래 무관(無關)”³¹⁾하다고 서술했다. 정인보의 견해를 보자.

“왕검성인 조선현이 지금 평양과 원래에 무관이므로 이같이 좌괴우열(左乖右裂:왼쪽으로 어그러지고 오른쪽으로 갈라짐)하는 것이거늘 지치(地置)를 정돈하지 못하고 수편(隨便牽合:편한 것을 서로 끌어서 합침)하기에만 근고(勤苦)하니 자재(自在)한 위치가 엄연

28) “杜預云, ‘梁國蒙縣有箕子冢’ 『史記』 「宋微子世家」, 주석 「索隱」

29)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 『薈園 鄭寅普全集 3』,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151쪽.

30)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 『薈園 鄭寅普全集 3』,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152쪽.

31)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 『薈園 鄭寅普全集』,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3, 177쪽. 이 책은 2012년 우리역사재단에서 문성재(文盛哉) 역주의 『오천년간 조선의 얼, 조선사연구 上』이란 제목으로 보다 읽기 쉽게 재출간되었다.

함을 어찌하려 하는가?”³²⁾

즉 왕검성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고 원래부터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혼란스런 논리로 평양으로 비정한다는 비판이다. 정인보는, “설찬(薛瓚·신찬)의 말한 바 왕검성은 패수(溟水)의 동(東)에 있는즉 패수는 곧 왕검성의 서(西)이니 지금 봉천(奉天) 해성(海城)현 서남(西南)에 있는 어니하(淤泥河)가 그 물이다”³³⁾라고 말하고 있다. 정인보는 한사군 중의 진번(眞番)과 현도(玄菟)에 대해서는, “현도를 진번 조선호국(眞番朝鮮胡國)이라 한 것을 보면 현도와 진번이 접양(接壤)이던 것이요, 변한(番汗) 즉 고조선 ‘변한(弁韓)’의 유허(遺墟)가 지금 대릉하부근……진번의 한쪽이 대릉하 부근에 붙은 것은 사실”³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고대 조선과 한의 국경선이었던 패수를 대릉하로 보는 견해이기도 하다. 정인보는 왕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왕험성이 해성현임을 고(考)하라”³⁵⁾라고 지금의 요녕성 안산(鞍山)시 산하의 해성(海城)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병도는 열수(列水)의 위치를 대동강으로 비정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에서 “열(列)은 강이름이다. 열수(列水)는 요동(遼東)에 있다”³⁶⁾라고 열수를 요동에 있는 강이라고 말하고 있다. 낙랑군 열구(列口)현은 이 열수가 있어서 생긴 이름인데, 이병도는 『한서』보다 후대의 사서인 『진서(晉書)』를 인용해 열구현을 진번군의 잔현(殘縣)으로 분류하면서 지금의 황해도 은율(殷栗)군이라고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인보는 요하(遼河) 하구의 영구(營口)가 열구라면서 “요동만(遼東灣) 이외에 구할 것이 아님은 의심 없는 바이다”³⁷⁾라고 말해서 열구를 지금의 요동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

북한의 리지린은 1963년 출간한 『고조선연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패수를 압록강이나 대동강으로 비정한다면 왕검성이 평양으로 될 수 없다. 만일 패수를 대동강으로 비정한다면 왕검성은 대동강 동쪽 백여 리 밖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양은 패수 서쪽에 있다”³⁸⁾라면서 패수를 대동강으로 보는 일본인 학자들의 견해를 비판했다. 『사기』 「조선열전」 등에 따르면 위만이 패수를 건너 진(秦) 고공지(故空地)였던 상하장(上下鄣)에 거주했고, 조선 왕이 그에게 백리 땅을 봉해주었는데, 패수가 대동강이라면 그 백리 지역은 어

32)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 『齋園 鄭寅普全集 3』,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177쪽.

33)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 『齋園 鄭寅普全集 3』,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163쪽.

34)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 『齋園 鄭寅普全集 3』,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153~154쪽.

35)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 『齋園 鄭寅普全集 3』,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177쪽.

36) 『後漢書』 「郡國志」, 『幽州 樂浪郡』 列口縣 註釋 ‘郭璞注山海經曰, “列, 水名. 列水在遼東”

37)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 『齋園 鄭寅普全集 3』,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165~166쪽.

38) 리지린, 『고조선연구』, 1963, 여기서는 열사람, 1989, 86쪽.

다로 비정할 것이냐는 비판이다. 리지린은 일본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비판했다.

“오랫동안 그들(일본 학자들)은 모두 국경선인 패수와 왕검성에 립한 패수를 구별하지 못하고 다만 대동강 남안에서 출토되는 고고학적 유물로써 역사 지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그들은 『사기』 「조선열전」의 기록을 완전히 무시하였다.”³⁹⁾

이처럼 리지린은 국경선에 립한 패수와 왕검성에 립한 패수를 구별하고 있다. 『사기』 「조선열전」과 『위략(魏略)』에 나오는 패수와 『한서』 「지리지」 주석의 패수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경선인 패수는 오늘의 대릉하이고, 국경선에 립한 패수는 개평(蓋平) 인근의 강이라는 것이다. 리지린은 “고조선의 국경선인 패수가 대동강이나 압록강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대릉하 외에 다른 강으로 될 수 없다. 또 『사기』 「조선열전」의 전문을 통하여 고찰할 때 왕검성은 발해 연안의 도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⁴⁰⁾라고 왕검성은 발해 연안의 도시라고 주장했다. 리지린은 “대릉하를 국경선인 패수로, 어니하를 왕검성의 패수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필자는 왕검성을 오늘의 개평(蓋平)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게 된다.”⁴¹⁾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평은 현재의 요녕성 개주(蓋州)로서 정인보가 왕검성으로 보고 있는 안산(鞍山)시 산하 해성의 남쪽 영구(營口)시에 속한 도시이다. 패수나 왕검성을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만주지역에 왕검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여럿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정창(文定昌)도 그의 『고조선사 연구』에서 혐독을 두 군데로 비정하고 있다. 그는 위만조선의 왕도였던 왕험성=혐독은 “오늘날의 허북성(河北省)~직예성(直隸省:현 허북성, 괘호는 필자) 동북부를 관류(貫流)하여 발해로 들어가는 난하(灤河)의 동쪽 편에 위치해 있었”⁴²⁾다고 말하고 있다. 즉 지금의 허북성 난하 동쪽에 위만조선의 왕험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 문정창은 창려(昌黎)라고 보고 있다. 그는, “창려(昌黎) 지방에 혐독현이 있고, 혐독현은 조선왕 만(滿:위만)의 구도(舊都) 왕검성(王儉城)이었고 낙랑군이 패수의 동쪽에 있었다 함은 사기(史記) 조선열전의 여러 주자(注者:주석자)들이 전하는 바이다”⁴³⁾라고 현재의 허북성 창려지역에 왕험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39) 리지린, 『고조선연구』, 1963, 여기서는 열사람, 1989, 86쪽.

40) 리지린, 『고조선연구』, 1963, 여기서는 열사람, 1989, 85쪽.

41) 리지린, 『고조선연구』, 1963, 여기서는 열사람, 1989, 88쪽.

42) 문정창, 『고조선사 연구』, 초판발행 1969년, 재판 발행 1993년, 한뿌리, 118쪽. 여기서는 재판을 사용했음.

그런데 문정창은 남만주에도 험독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문정창은 “이 남만주의 왕협성 즉 험독은 오늘날의 봉천성(奉天省) 광녕현(廣寧縣) 동남방에 위치한 고장”⁴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녕현은 현재 요녕성 금주(錦州)시 산하인 북진(北鎮)시 일대를 뜻한다. 정인보, 리지린, 문정창 등은 모두 현재의 요동반도 서남쪽 지역을 왕검성 자리로 비정하는 것이다.

그럼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중국에서는 왕협성 자리에 세웠다는 험독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금의 평양일대로 볼 것 같지만 희한하게도 험독현만은 만주지역에서 찾고 있다. 『한서』 「지리지」에서 험독현을 요동군에 소속시킨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공정의 토대가 된 담기양(譚其驤) 주편(主編)의 『중국역사지도집(中國歷史地圖集)』에 대한 문헌 설명서인 『석문회편(釋文滙編) 동북권(東北卷)』의 제1장 「양한위진시기(兩漢魏晉時期)」 요동군 편에는 험독현(險瀆縣)조가 있다. 이 구절은 중국에서 동북공정 차원에서 역사왜곡을 하더라도 어디에선가는 그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험독은 후한 때 요동속국(遼東屬國)에 속하게 되었다. 또한 요동속국에 소속된 각 현은 모두 요하(遼河) 서쪽에 있었는데, 험독 한 현만 조선반도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험독과 왕협성은 두 개 지방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⁴⁵⁾

이 구절은 중국 동북공정의 논리를 스스로 파탄 낸 것으로서 중요하다. 위만조선의 왕협성 자리에 있었던 험독현이 지금의 요동에 있었다면 낙랑군을 지금의 북한지역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요동속국에 속해 있던 험독현의 위치를 지금의 요녕성 태안(台安)현 동남쪽 20리의 손성자(孫城子) 지역으로 꼽고 있다.⁴⁶⁾ 지금의 요녕성 안산(鞍山)시 산하의 태안현을 뜻하는데 중국에서도 험독현의 위치를 요녕성 서부로 꼽는다는 사실은 왕협성을 평양일대로 보는 국내 사학계 일부의 위치비정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자국사에 대한 폄하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43) 문정창, 『고조선사 연구』, 110쪽.

44) 문정창, 『고조선사 연구』, 119쪽.

45) “險瀆 後漢改屬遼東屬國，而遼東屬國所隸各縣，都在遼河以西，不可能單有險瀆一縣朝鮮半島，險瀆與王險城，顯然是兩個地方”，譚其驤 主編，『中國歷史地圖集』，『釋文滙編 東北卷』，中央民族學院出版社，1987年，11쪽.

46) 譚其驤 主編，『中國歷史地圖集』，『釋文滙編 東北卷』，中央民族學院出版社，1987年，11쪽.

윤내현은 위만조선의 도읍지인 왕검성(왕협성)과 고조선의 도읍지로 추정되는 검독(협독)이 각각 다른 곳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고조선 도읍지 이전의 결과로 보고 있다. 윤내현은 중국의 각종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서광(徐廣)이 말한 협독은 지금의 난하 유역에 위치⁴⁷⁾해 있었다는 것이다. 즉 서한의 요동군은 지금의 난하 하류 유역에 있었다⁴⁸⁾고 보고 있다. 그는 협독은 여러 곳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 첫 번째 위치가 지금의 심양시 동남쪽의 본계(本溪)시라는 것이다. 『요사(遼史)』 「지리지」의 집주(集州) 회중군(懷衆軍) 지역에 대한 서술을 검토한 결과이다. 『요사』 「지리지」에 “집주(集州) 회중군(懷衆軍)은 옛 비리군(陴離郡)의 땅으로서 한(漢) 시대에는 협독현에 속했고, 고려(고구려)는 상암현(霜巖縣)으로 삼았는데, 발해는 주(州)를 설치했다”⁴⁹⁾라는 구절이 있다. 윤내현은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에 따르면 요(遼)나라 때 집주는 지금의 심양시 동남쪽의 본계(本溪)이기 때문에 『요사』 「지리지」가 말하는 집주가 곧 협독이라는 것이다. 『만주읍조선지도(滿洲及朝鮮地圖:1913)』에 따르면 본계시에 조선령(朝鮮嶺)이란 지명이 남아 있는데, 이 또한 고조선의 도읍지 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⁰⁾

윤내현은 지금의 대릉하 동부 연안의 북진(北鎭)시도 협독의 하나로 보고 있다.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에 “협독구성(險瀆舊城)이 광령현 동남에 있는데 한(漢)시대에는 (협독)현으로서 요동군에 속해 있었다”⁵¹⁾는 구절이 있다. 청나라 때 편찬한 『독사방여기요』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 청나라 때 광녕은 지금의 대릉하 동부 연안에 위치한 북진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역시 고조선의 도읍지일 가능성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다.⁵²⁾ 그래서 윤내현은 “지금의 난하 하류 동부 유역에 위만조선의 도읍이었던 왕검성(왕협성)이 있었으며, 고조선의 도읍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독(협독)은 세 곳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위치는 지금의 난하 유역, 본계(本溪)시 유역, 북진(北鎭) 동남이었다”⁵³⁾라고 설명하고 있다. 『삼국유사』에도 고조선의 도읍지가 여러 번 천도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도 고조선의 도읍이 만주에 있는 고구려의 평양성

47) 윤내현, 『고조선연구 상』, 만권당, 2015 개정판, 431쪽

48) 윤내현, 『고조선연구 상』, 만권당, 2015 개정판, 434쪽

49) 『遼史』 권 38 「지리지」 2 東京道 集州 懷衆軍

50) 윤내현, 『고조선연구 상』, 만권당, 2015 개정판, 437쪽.

51) “險瀆舊城, 在廣寧縣東南, 漢縣屬遼東郡” 『大清一統志』, 「錦州府」 2.

52) 윤내현, 『고조선연구 상』, 만권당, 2015 개정판, 436쪽 및 주석 44.

53) 윤내현, 『고조선연구 상』, 만권당, 2015 개정판, 437쪽.

이 되었다는 구절이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 동천왕 21년(247)조의 천도 기사이다.

“동천왕 21년(247) 봄 2월에 왕은 환도성에서 전란을 겪었는데, 다시 도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해서 평양성을 쌓고 백성들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 평양성은 본래 선인(仙人) 왕검(王儉)의 땅이다. 혹은 (동천)왕이 왕검성에 도움을했다고 말했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천왕 21년)”⁵⁴⁾

여기에서 말하는 왕검성은 고조선의 수도를 말하는 것이지 장수왕이 천도했던 평양과는 다른 평양성이다. 고구려 동천왕 때도 만주의 평양성을 고조선의 왕검성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지금의 하북성과 만주 여러 지역에 왕검성 또는 험독으로 비정할 수 있는 사료들이 남아 있는 것은 고조선의 수도가 여러 차례 천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4. 고조선과 한의 국경선과 험독현의 위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만조선의 도움에 세웠던 험독현의 위치이다.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란 이름의 역사침략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위만 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선을 찾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 중국 사료를 통해서 위만조선과 한의 국경선을 찾아보자.

먼저 한사군 설치 직전의 기록으로 『회남자(淮南子)』가 있다. 『회남자』는 한(漢) 고조 유방(劉邦)의 손자인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서기전 179~서기전 122)이 편찬한 것인데, 유안은 한사군 설치 14년 전까지 생존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회남자』에는 한사군 설치 직전의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에 대한 한(漢)나라 왕실 지식인의 인식이 담겨 있다. 『회남자』 「시측훈(時則訓)」에 두 나라 국경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54)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王之都王險”(『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川王 21년)

“오위(五位); 동방의 끝, 갈석산에서 (고)조선을 지나 대인(大人)의 나라를 통과하여……”⁵⁵⁾

“갈석산에서 (고)조선을 지나”라는 『회남자』 「시측훈」의 기술은 갈석산을 지나면 곧 고조선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이 갈석산이었다는 뜻이다. 한나라 왕실 출신의 지식인이 위만조선 멸망 직전에 말한 두 나라의 국경에 대한 언급은 정확한 역사지리 지식을 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조한전쟁(朝漢戰爭) 직전 위만조선과 전한(前漢)의 국경은 갈석산이었다. 왕험성을 평양이나 대동강 남쪽에서 찾은 것은 부산에서 광화문을 찾는 격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서(漢書)』 「가연지 열전(賈捐之列傳)」에도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선을 말하는 기록이 있다.

“서쪽으로는 여러 나라와 연대하여 안식(安息)에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갈석을 지나 현도, 낙랑으로써 군을 삼았습니다.”⁵⁶⁾

가연지(賈捐之: ?~서기전 43년)는 가의(賈誼)의 증손(曾孫)으로서 전한 원제(元帝: 재위 서기전 49~서기전 33) 때의 인물인데, 상서령까지 역임한 관료 지식인이었다. 한사군이 설치된 지 약 50여년 후의 인물인 가연지 역시 “동쪽으로는 갈석을 지나 현도, 낙랑으로써 군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갈석산을 지나면 있었던 위만조선 자리에 현도군과 낙랑군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갈석산 가까운 곳에서 현도군과 낙랑군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한서(漢書)』 「지리지」는 위만 조선의 도읍에 설치한 험독현은 ‘요동군’ 산하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조선현’은 ‘낙랑군’ 산하로 분류하고 있다. 『한서』 「지리지」 ‘낙랑군 조선현’에 대한 주석에서 응소(應劭)는, “기자(箕子)를 봉한 곳이다”라고 기자조선의 도읍지라고 설명했고, 『한서』 「지리지」 ‘요동군 험독현’에 대한 주석에서 응소는 “조선왕 위만의 도읍이다”라고 위만 조선의 도읍지라고 달리 설명하고 있

55) “五位：東方之極，自碣石山過朝鮮，貫大人之國”，劉安，『淮南子』 「時則訓」

56) “西連諸國至于安息，東過碣石以玄菟、樂浪為郡” 『漢書』 「賈捐之列傳」

다. 낙랑군과 요동군이 존속하고 있던 후한 때의 인물인 응소는 낙랑군 조선현과 요동군 험독현이 각각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대 요동은 지금의 요동쪽을 뜻하는 현재의 요동과 달리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 험독현을 평양 부근에서 찾는 것은 일체의 사료적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당시의 역사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진서(晉書)』의 「모용황·모용한·양유(慕容皝·慕容翰·陽裕) 열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모용황(慕容皝)이 모용소(慕容昭)를 죽이고, 사신을 보내 모용인(慕容仁)의 허실을 엿보게 했는데, 모용인을 험독에서 만났다. 모용인은 (모용황을 폐하려던)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 모용황의 사신을 죽이고 동쪽 평곽(平郭)으로 돌아갔다”⁵⁷⁾

전연(前燕) 문명제(文明帝) 모용황(慕容皝:297~348)이 동모(同母) 동생인 모용소(慕容昭)를 죽인 것은 333년이다. 이때 모용인이 험독에서 모용황의 사신을 죽이고 동쪽 평곽으로 돌아갔다. 지금 중국에서는 평곽을 요녕성 개주(盖州) 남쪽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 위치비정에 따르면 험독은 개주시 서쪽에 있었다는 뜻이 된다. 지금의 평양인 험독에서 모용황의 사신을 죽였다면 동쪽에 평곽이 있을 수가 없다. 이처럼 중국 사료에 따르면 험독은 평양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조선의 도읍지가 여러 번 천도했으므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여럿이다.

반면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는 비교적 정확하게 비정할 수 있다.

조선성, 즉 조선현의 위치에 대해서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는 “노룡현(蘆龍縣) 조선성(朝鮮城), 즉 기자가 은나라로 봉함을 받은 지역이다. 지금은 폐성이다.”⁵⁸⁾라고 말하고 있다. 『태평환우기』는 북송(北宋)의 낙사(樂史:930~1007)가 편찬했는데, 이때의 노룡현은 현재의 하북성 노룡현을 뜻한다. 이는 송나라 때도 하북성 노룡현에 낙랑군 조선현으로 알려진 폐성(廢城)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다음은 명나라 때 기록인 『일지록(日知錄)』을 보자.

57) “皝殺昭，遣使按檢仁之虛實，遇仁於險瀆，仁知事發，殺皝使，東歸平郭” 『晉書』 「慕容皝 慕容翰 陽裕 列傳」

58) “蘆龍縣：朝鮮城 卽箕子受殷封之地 今有廢城” 『太平寰宇記』 권70

“『일통지(一統誌)』에서 말하기를 ”조선성이 영평부(永平府) 경내에 있는데, 기자(箕子)가 봉함을 받은 지역이다.“라고 했다. 즉 이는 기자가 봉함을 받은 지역이 영평부라는 뜻이다”⁵⁹⁾

『일지록』은 명나라 때 학자 고염무(顧炎武:1613~1682)가 지은 유명한 책이다. 이때의 영평부는 현재의 하북성 노룡현을 뜻하는데, 그가 인용한 『일통지(一統誌)』는 13세기 작성된 『대원일통지(大元一統志)』를 뜻할 것이다. 여기에도 하북성 노룡현에 낙랑군 조선현이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청나라 고조우(顧祖禹:1631~1692)가 편찬한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를 보자. 『독사방여기요』의 영평부(永平府)조는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에 대한 역대의 변천 사실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노룡현 신창성:(지금 영평부를 다스리는 곳이다……)수(隋)나라에서 노룡현으로 개칭했다. 또 조선성(朝鮮城)이 있는데, 영평부 북쪽 40리이고, 한나라 낙랑군 속현이다.”⁶⁰⁾

송나라 때 작성한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와 명나라 때 작성한 『일지록(日知錄)』, 그리고 청나라 때 작성한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는 일관되게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을 낙랑군 조선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독사방여기요』는 이 구절 뒤에 “지금은 조선 경내에 있다”라고 부연해놓았지만 이는 한나라 때의 역사지리 지식과 청나라 당시의 역사지리 지식이 혼재된 결과로서 무시해도 좋다.

『사고전서(四庫全書)』 등 중국 사료를 보다 폭넓게 섭렵한다면 송나라 이전의 기록 들에도 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료만으로도 ‘송나라→명나라→청나라’의 역사학자나 역사지리학자들이 일관되게 현재의 하북성 노룡현을 낙랑군 조선현으로 비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패수를 대동강으로 비정하고 그 아래에서 낙랑군 조선현을 찾으려고 했던 이나바 이와기치나 세키노 타다시 등 조선총독부 소속학자들의 행태는 한국사의 시작을 식민지로 시작한 것으로 만들려는 정치선전 외에

59) “『一統誌』乃曰, “朝鮮城在永平府境內, 箕子受封之地。”則是箕子封於今之永平矣“ 『日知錄』 권31

60) “新昌城, 即今府治……隋改曰盧龍縣。又朝鮮城, 在府北四十里, 漢樂浪郡屬縣也” 『讀史方輿紀要』「北直 八」永平府.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이런 저급한 정치선전이 해방 70년이 되는 지금까지 일부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현 상황은 통절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낙랑군 조선현이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이라면 요동군 험독현도 여기에서 그리 먼 지역은 아니었을 것이다. 고대 요동이 이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사기 색은(索隱)』에서 신찬(臣瓚)이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 동쪽에 있다, 이로부터 험독이라고 했다’고 말한 것과 『사기 집해(集解)』에서 서광(徐廣)이, “창려(昌黎)에 험독현이 있다.”고 말했다는 구절에 해답의 일단이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창려(昌黎)에 대해서 현재의 하북성 창려현과 요녕성 금주(錦州)시, 부신(阜新)시 등으로 혼재되어 설명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연구가 뒤따라야하겠지만 요녕성의 창려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요동군을 동쪽으로 확대시키면서 옮겨간 상상의 지역일 것이다.

5. 나가는 글

이상에서 위만조선의 수도 자리에 세웠던 요동군 험독현과 기자조선의 수도 자리에 세웠던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평양 일대에서 찾는 것은 일체의 근거가 없는 일체의 정치선전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도 한국 학계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서영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찍부터 낙랑군의 치소로 알려져 왔던 토성리 유적 대부분이 위만조선의 왕도였던 대동강 북안의 왕검성(王儉城) 일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동강 남안에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낙랑군이 고구려를 비롯한 예맥사회의 압력에 쫓겨 군현의 중심지를 방어에 보다 유리한 대동강 남안으로 옮겼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⁶¹⁾

61) 서영수, 「對外關係史에서 본 樂浪郡」, 『史學志』 제31집(1998. 12), 17쪽.

서영수는 토성리가 ‘일찍부터’ 낙랑군의 치소인 조선현 자리로 알려져 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살펴본 대로 토성리를 낙랑군 조선현이라고 최초로 주장한 인물은 조선총독부의 이나바 이와기치다. 2천여년 전에 설치된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조선총독부 소속의 일본인 식민사학자가 20세기 들어 주장한 것을 ‘일찍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서영수의 견해는 지금의 대동강 북쪽의 평양 일대에 왕검성이 있었는데 예맥사회의 압력에 쫓겨 대동강 남안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이는 식민사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주장을 따른 것이기도 하다. 대동강 북안의 왕검성이 위험하면 최소한 한강 남쪽 정도로 천도해야지 대동강 남안으로 천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이는 지금 한강 북쪽의 서울이 위험하다고 한강 남쪽으로 천도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이다. 낙랑군의 치소를 대동강 남쪽으로 비정한 조선총독부의 견해에 꺾어 맞춘 어거지 논리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노태돈의 견해를 살펴보자.

“왕검성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 지역인만큼 역시 평양 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 평양 일대에는 B.C. 3세기 이래의 유적이 연속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한다. 조선현의 치소(治所)는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土城洞) 지역으로 보인다. 토성의 규모가 변성하였던 군(郡)의 수부(首府)가 있었던 곳으로는 작음을 들어 회의적인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당시 낙랑군의 지배구조의 성격을 반영하는 일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⁶²⁾

노태돈도 서영수처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뒷받침하는 1차사료적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순리이다’,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비학문적 희망사항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태돈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는 대동강 북쪽의 평양이라고 말해놓고, 곧바로 조선현의 치소는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으로 비정하는 논리의 모순까지 보이고 있다. 이나바 이와기치나 이마니시 류, 세키노 타다시 등이 억지로 꺾어 맞춘 조선총독부의 논리를 비판 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하다. ‘왕검성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 지역인만큼 역시 평양 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

62)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1990, 22~23쪽.

다.’라는 문장을 중국의 1차사료를 바탕으로 바꾸면, “왕검성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인만큼 역시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라고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 송호정의 견해를 보자.

“요서(遼西)·요동(遼東), 한반도의 평양 일대 가운데 고조선의 문화와 중국 한(漢)의 문화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곳은 바로 평양일대이다. 그렇다면 평양 부근에 고조선 왕검성이 있었고, 그 뒤에 낙랑군이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왕검성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 지역인만큼 역시 평양 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다. 평양 일대에 기원전 3세기 이래의 유적이 연속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한다.”⁶³⁾

송호정 역시 서영수나 노태돈처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1차사료적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이다’, ‘순리다’ 따위의 비학문적 희망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엄밀한 사료검증에 의한 역사학적 방법론은 사라지고 이미 내린 결론에 쫓아 맞추는 비학문적 희망사항만 나열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만조선의 왕검성 자리에 세웠던 험독현에 대해 지금 중국에서도 요녕성 태안(台安)현 동남쪽 20리의 손성자(孫城子) 지역으로 꼽고 있다.⁶⁴⁾ 이런 내용을 담은 『석문회편·동북권(釋文滙編 東北卷)』이 나온 것이 1988년이다. 중국에서도 “험독 한 현만 조선반도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험독현=평양설’을 고집하는 한국 학계 일부의 몰역사학적 태도는 그야말로 불가사의라는 말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조선총독부 사관에 대한 극단적인 추종 자세에서 벗어나 1차사료를 중시하는 정상적인 학문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늦었지만 잘못을 바로 잡는 지름길일 것이다. 낙랑군 조선현은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에 있었고, 요동군 험독현도 그 부근에 있었다.

63) 송호정,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한국고대사학회, 2010, 53쪽.

64)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釋文滙編 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7년, 11쪽.

〈발표 5〉

**토성리토성(낙랑토성)의
발굴조사와 출토유물의 성격**
-낙랑군의 위치비정 문제와 관련하여-

정인성 (영남대 교수)

토성리토성(낙랑토성)의 발굴조사와 출토유물의 성격

- 낙랑군의 위치비정 문제와 관련하여 -

정인성 (영남대학교수)

1. 머리말

古朝鮮의 강역과 王儉城의 위치비정 문제는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쏟은 주제이니만큼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 중 소위 ‘요녕설’, ‘평양설’, 그리고 ‘이동설’이라 하는 것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들 모두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漢이 고조선을 멸하고 설치했다는 漢四郡의 소재 문제와도 연결된다. 반면 고고학계에서는 서북한지역의 토성들을 낙랑군이 설치된 유력한 증거로 판단하는 연구자가 많은데, 이는 그 토성들에서 漢式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고대 중국 군현 설치의 실현 형태가 성곽의 축조라고 판단(윤용구 1996 재인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漢武帝의 침략군이 왕검성에서 오랜 攻城 끝에 고조선 왕조를 무너뜨렸다는 『史記』 조선열전¹⁾을 참조한다면, 고조선 역시 성곽을 축조하고 이에 기반한 국가통치를 실현했음이 분명하다.

漢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독립정권을 유지하다가 고조선보다 먼저 군사공격을 받았던

1) 『史記』 「朝鮮列傳」 “左將軍破涇水上軍乃校勘前至城下圍其西北樓船亦往會居城南右渠遂堅守城數月未能下”

남월국 역시 평지성곽에 기초한 통치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월국의 번우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성과는 고고학적 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번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부구조는 물론 물질문화의 특징도 분명히 규명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장차 중국 동북지역과 서북한지역에 축조된 관련 시기 성곽에 대한 고고학적 기초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짐작하는 바와 같이 관련 연구는 대단히 미흡해서 개별 성곽의 구조와 형태, 출토유물의 분석에 바탕한 축성시기와 관련하여 기초 연구마저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무게를 통감하여 본고에서는 서북한지역의 토성자료를 검토해보고자 하며, 일단 그 대상으로 소위 ‘樂浪土城’이라 불리는 土城里土城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이 토성이 일제강점기부터 고조선 왕검성과 낙랑군치의 위치비정문제에 있어 중심이 되었던 유적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조사는 그 신뢰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한 치밀한 검증작업 없이 이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배제하려 든다면 관련 연구의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이래로 최근 북한까지 토성리토성을 다루었던 조사들을 검토하여 그 조사내용과 출토유물을 현재 한국고고학의 시선으로 재검증해보도록 하겠다.

2. 西北韓 지역의 土城

지금까지 서북한지역과 동해안에서 발견되어 보고된 평지 토성들 중에서 대략 고조선이나 낙랑병행기로 이해되는 유적은 6개소 정도이다. 평양시 낙랑구역 토성동에 소재하는 토성리토성(소위 낙랑토성), 평남 온천군 성현리에 소재하는 성현리토성(소위 갈성리토성), 해방 후에 발견된 황해도 은율군 운성리토성, 황해도 신천군 청산리토성(북부면 토성리토성), 황해도 봉산군 지탑리토성(문정면 송산리토성, 당토성)이 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함남 금야군 새동리(舊 영흥군 순령면 소라리)에도 일찍부터 토성의 존재가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라리토성으로 불린다. 서북한지역의 토성자료를 검토한 바 있는 윤용구는 이 외에도 황주의 고연리토성이나 안악의 복사리 건물지, 대동군 당정리 토성, 신원군 아양리토성도 縣의 城址일 가능성을 제시했으나(윤용구 1996) 이에 대한 고고학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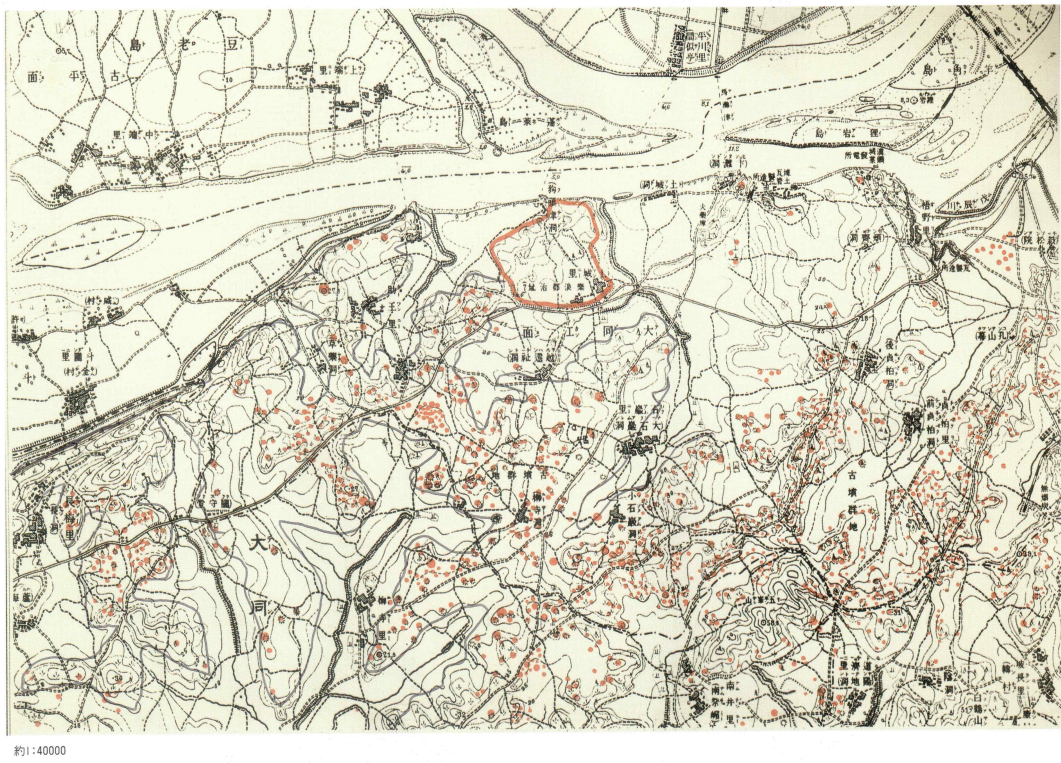


그림 1 토성리토성(낙랑토성)과 그 주변의 고분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서북한 지역의 토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고조선 단계의 토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 이는 토성리 토성이 위만조선 단계로 소급될 지²⁾의 여부와 연결되는 문제인데, 내부 출토유물에 대한 성격 파악과 편년작업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연구주제이다.

2) 원래 고조선 왕검성이라는 주장과 왕검성의 별성이라는 주장, 그리고 낙랑군 설치 시에 새로 축조했다는 설과 도중 신축설 등이 있다.

3. 土城里土城(樂浪土城)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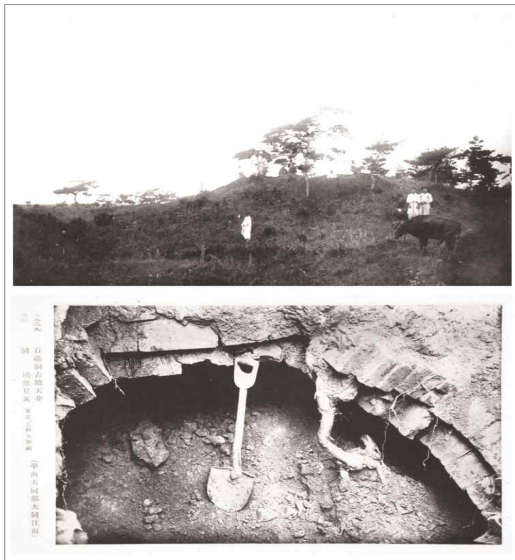


그림 2 세키노가 발굴한 석암동 고분

토성리토성은 지금의 평양시를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대동강의 남안 자연구릉에 축조된 토성이다. 그 주위로 수많은 고분이 분포하는데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북한학계의 발굴로 그 내용의 일단이 알려져 있다. 발견 당시 지명을 따서 처음에는 토성리토성이라 불렀지만 낙랑군평양설이 확산되면서 일반적으로 낙랑토성, 혹은 낙랑군치라 불리게 되었다(東京大文學部 1965).

1) 土城里土城(樂浪土城)의 발견 경위와 조사과정 검토

(1) 토성리토성의 발견 경위

평양 인근에서 漢文化의 요소가 농후한 고분군을 처음 굴착 조사한 것은 1909년인데, 널리 알려진 것처럼 조사자인 세키노와 야쓰이는 이를 고구려 무덤으로 보고했다. 그런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직후에 이미 요동지역을 답사하고 한대 고분을 관찰한 바 있는 도리이류조가 이를 고구려 무덤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1910년의 일이다. 평양 전실묘의 귀속을 둘러싼 논쟁이 발발하자 이미 1909년도에 하기와 같이 평양지역의 전실묘를 발굴했던 이마니시류(今西龍)는 도쿄제국대학 문학부에 가져다 놓은 대동강면 고분 출토 칠기를 다시 검토하였고, 여기서 王으로 시작되는 이름을 발견하였다(今西龍 1910·1912). 이를 계기로 평양지역의 벽돌무덤을 낙랑과 연결시키는 의견이 본격 대두된다. 1911년에 대방태수장무이라는 문자가 적힌 벽돌무덤이 발견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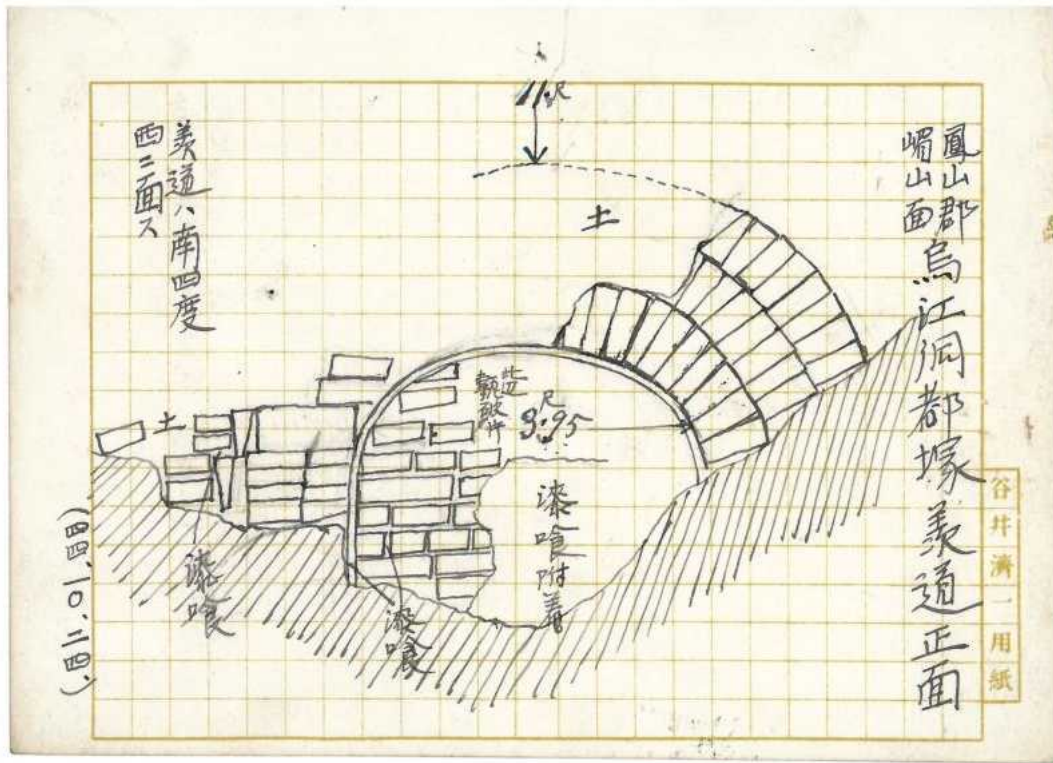


그림 3 야쓰이가 조사한 장무이묘의 야장기록(1911년)

점제비와 토성리토성(낙랑토성) 등이 연속해서 발견되면서 낙랑군평양설을 지지하는 연구자가 늘어났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식민지 조선지배의 역사적 당위를 설명하는데 악용된 낙랑군평양설이 일제관학자들의 사전 합의를 바탕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이다. 즉 고적조사 초창기에 고고자료의 역사성에 대한 그들의 해상도는 그리 높은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발굴이 연속되었던 1911년에 이루어진 조선고적조사에서 정작 단장인 세키노다다시(關野貞)가 중점을 두었던 사업은 한왕묘(고구려 고분)의 발굴이었다. 1911년 10월 5일부터 강동군 마산면에서 漢王墓 발굴을 시도하였지만 도중에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 무덤을 굴착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자 인부들이 작업을 거부하면서 발굴조사는 중지되었다. 세키노와 야쓰이는 할 수 없이 평양으로 돌아갔는데, 이 때 안주를 다녀온 평안도 사무관이 채집해 온 벽돌을 보고 야쓰이를 파견하여 출토 지점을 조사하게 하였다. 그 결과 평양지역과 동일한 문양벽돌을 사용한 무덤이 安州에도 축조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청천강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한편 세키노 본인은 황해도 봉산군에 가서 이왕가 박물관에서 관찰한 「太康元年三月八日王氏」 명 문자벽돌이 출토된 지점을 조사하였다. 10월 14일에 봉산군청에서 문자벽

돌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 그렇지만 15일에 사리원역 남쪽에서 도묘평(都墓坪) 고분군을 발견하는 성과를 얻었고 출토 벽돌이 평양의 그것과 동일함을 알았다. 그리고 사리원역으로 향하는 들판에서 무덤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주위에 「漁陽張」 등의 문자가 흩어져 있었다. 낙랑,대방군의 위치논쟁을 둘러싸고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었지만 일정상 굴착하지 않고 평양으로 돌아와 16일부터는 한왕묘 발굴에 다시 도전하였다. 곡절 끝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21일에 경성으로 돌아온 세키노는 경주로 갔고 대신 야쓰이가 사리원 근처의 문자벽돌 무덤을 조사하였다.

야쓰이는 세키노가 발견한 고분(어양전 문자)의 현실을 부분 굴착하여 내부에서 「使君帶方太守張撫夷塼」이 적힌 문자벽돌을 확보했다. 중요성을 간파한 그는 그 근처를 답사하여 동 시기의 土城도 발견했는데, 이는 육지측량부 지도에 적힌 唐土城이라는 지명에 주목한 결과였다. 이때 현실을 완전히 발굴하지 못했던 지라 1912년 9월에는 세키노가 나서서 직접 장무이묘를 추가 발굴하였다. 결국 장무이묘는 세키노가 발견했지만 굴착은 야쓰이가 했고 이를 다시 세키노가 검증 발굴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발표자는 이 당시 굴착조사를 실시한 야쓰이의 조사기록 원본을 확보했는데 장무이묘와 당토성 조사 시의 동선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1910년대에 확보된 장무이무덤과 문자벽돌의 자료적 신뢰성은 인정된다.

육지측량부의 지도를 참고해서 당토성을 발견한 경험은 대동강 남안에 적힌 土城里라는 지명에도 눈이 가게 만들었다. 고분군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라서 세키노는 당장이라도 현지를 조사하고 싶었지만, 해를 넘겨서야 실현할 수 있었다. 1913년 9월에 해주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도중에 세키노는 이마니시와 야쓰이를 보내 먼저 흑교리 발견 청동기 출토지점을 조사하게 했다. 당시 이왕가박물관에 보관된 흑교리 청동유물을 관찰했던 지라 현지에서 성과를 기대했지만 토기 편 몇 개를 줍는데 그치고 말았다.

흑교리의 현지조사 결과에 실망한 야쓰이는 이마니시와 함께 9월 23일에 대동강면을 답사하였고 그 내부에 漢式 기와편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關野貞 1927). 이 때 토성 내부에서 발견한 기와를 漢式이라 판단한 것은 석암리 고분을 발굴할 당시 벽돌사에서 발견된 기와 조각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날인 24일에 두 사람은 세키노가 매산리 고구려 벽화고분을 조사하고 있던 진남포로 가서 세키노에게 성과를

보고하였다. 이때 신문지상에 잘못된 보도가 나가서 어쩔수 없이 조사하게 된 지역에서 점제비를 발견했다.

세키노 조사단은 1913년 9월 29일 오후에 평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30일에 세키노는 총독부 내무부장과 문학사 나카가와 씨 등과 평양세관에서 배를 빌려 평양에서 대동강을 가로질러 토성을 답사하였다. 세키노도 토성 내에서 漢式 와당과 벽돌을 발견하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1927년의 보고에서 세키노는 고구려 한왕묘 발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점제비와 낙랑토성, 그리고 장무이 무덤과 당토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고하였다(關野貞 1927). 당시 문헌을 통한 낙랑군치의 비정은 평양시라는 인식이 압도적이었는데 오히려 생각치도 못한 곳에서 중요 토성이 발견된 것이다.

2) 土城里土城 발견 후 발굴조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토성리토성에서 채집된 운기문 와당 등을 근거로 이마니시류(今西龍)는 이것이 대동강 北岸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 낙랑군치 왕검성의 別城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이마니시는 위만조선 왕검성이 대동강의 북안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漢 水軍의 왕검성 공략 방향을 의식한 결과이다. 그리고 한무제가 설치한 낙랑군은 고조선 왕검성을 그대로 군치로 활용했다고 본 것이다. 당시 대동강의 북안에서는 고구려 요소가 물씬 풍기는 평양성이 인지되었을 뿐 그 보다 소급되는 성곽이나 유물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림 4 대동강에서 바라본 토성리토성(낙랑토성; 동경대학 문학부 소장사진)

이를 왕검성의 別城이라 판단한 이유는 토성의 규모가 생각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시라토리(白鳥) 역시 왕검성 대동강 北岸說을 주장했다(駒井 1965, pp.1~12 再引用).

반면 세키노(關野貞)와 야쓰이(谷井濟一)는 이를 고조선과는 무관한 것이고 漢武帝가 군현을 설치하면서 새로 축조한 토성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수경주』의 기사를 참고하는 한편 토성의 주변에 漢 병행기의 고분들이 밀집된 상황을 참고로 이 토성이 서북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토성의 위치가 서북한 지역 수운교통의 중심에 해당하고 그 내부에서 「樂浪禮官」, 「樂琅富貴」 「大晉元康」 등의 瓦當과 「樂浪太守章」, 「朝鮮右衛」의 봉니 등이 채집되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³⁾. 뿐만 아니라 토성에서 채집된 청동촉과 운기운 와당과 기와의 문양 형태가 前漢時期的 것과 유사한 점, 그리고 토성에서 발견된 반량전 거푸집은 무제 때에 제작이 끝났다고 판단하여 토성리토성(樂浪土城)은 樂浪郡 설치 당시부터의 군치라고 주장하였다. 토성의 규모가 대동강과 재령강 유역권에서 가장 큰 편이라는 사실도 낙랑군치임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왕검성과 낙랑군치를 동일시하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山海經』의 ‘朝鮮在列陽’이라는 기사, 그리고 『史記』 조선열전의 漢軍 진격루트를 고려하여 왕검성은 대동강의 북쪽 목단대와 을밀대 부근의 구릉일 가능성이 있고, 낙랑군치는 대동강 남안의 토성리에 새로 축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關野貞 1927, 駒井 1965).

그러나 이마니시는 고조선의 왕검성을 재이용한 것이 낙랑군치이기에 대동강의 北岸에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이케우치히로시(池內宏)도 여기에 동조하였다. 쓰다소우키치(津田左右吉)도 『史記』 조선열전의 漢軍 공격루트를 참고하여 왕검성은 물론 이를 재이용한 樂浪郡治는 대동강의 북안에 비정해야 되겠지만, 대동강 남안에서 가장 중요한 토성이 발견된 것도 사실이기에 대동강 북안에 있던 낙랑군치지가 언젠가 대동강 남안으로 옮겨진 것이라 보았다. 군치이동설인데 세키노와 다른 점은 그 시기였다.

이상을 살피면 일제강점기에도 왕검성 비정문제와 낙랑군치의 위치를 둘러싼 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문헌해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⁴⁾.

3) 문자와당과 봉니 중에서 위조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낙랑예관명 와당과 낙랑부귀명 와당은 발굴조사에서도 출토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의 발굴조사에서도 봉니가 출토되었다.

4) 지금 우리학계가 직면한 과제 역시 토성리토성의 철저한 검증 발굴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미 토성의 대부분이 주택건설로 파괴된 상황이다. 결국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북한에서 발굴한 자료를 우리 눈으로 살펴서 검증하는 방법이 차선책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한편 이미 1916년에 조선고적조사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1차년도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이를 주도한 세키노와 야쓰이는 조사 대상으로 한치군 유적을 노골적으로 지목했다. 고적조사 초창기의 혼란을 넘어 낙랑유적을 통해 식민지배의 당위를 설명하려는 속내가 본격적으로 발휘된 것이다. 당시 현장 조사를 담당했던 야쓰이는 놀랍게도 첫 해에 100여기에 달하는 낙랑고분을 발굴하려고 했지만 엄청난 출토유물에 10여기 정도에 그쳤다. 그렇지만 예상을 훨씬 능가하는 성과에 학계는 물론 일반 호사가와 수집가들의 관심은 대동강 주변의 고분과 토성으로 모아졌다⁵⁾.

낙랑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가는 상황에서 1921년에 이미 토성리토성을 굴착하였는데 이에 주목하는 연구자는 많지 않다(關野 1927). 세키노는 오가와, 노모리와 함께 1921년 10월에 낙랑고분 분포조사와 더불어 낙랑태수장 봉니가 출토되었다는 지점을 굴착하였다(關野貞 1927). 여기저기를 파 본 결과 기와와 벽돌 그리고 동전은 다소 출토되었지만 글자가 새겨진 봉니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술회하였다. 봉니를 노린 최초의 굴착조사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굴착 조사를 지켜보던 조왕리의 조선인이 2달 뒤에 토성 내부에서 봉니를 발견하여 일본인 수집가에게 넘겼다는데 그것이 ‘樂浪右尉’이다. 결국 낙랑군치와 군현의 위치논쟁이 발발한 초기에 알려진 봉니자료는 모두 정식 발굴품이 아니기에 1급 고고자료로 취급할 수 없다.

1926년 4,5월 경에는 樂浪禮官 명 와당이 수집가를 통해서 공개되었는데 이 역시 출토상황이 검증된 자료가 아니다. 문제는 이들 문자자료가 고가에 거래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를 노린 대규모 도굴이 발생한 점이다. 유적 훼손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정식 발굴조사의 당위를 뒷받침하였다.

3) 토성리토성의 정식 발굴조사와 보고

토성리토성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는 의외로 늦어져서 이미 낙랑군평양설이 굳어져 버린 1935년과 1937년에야 실현되었는데 도굴의 피해가 극심한 상태였다. 당시 발굴조사

5) 1921년에는 오가와게이키치와 노모리켄이 토성 주변의 고분의 분포조사를 벌여 1400여기에 달하는 봉토분의 위치와 현황을 기록하였는데 이미 많은 수의 고분이 도굴당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국박 소장 총독부 문서).

의 주체는 1931년에 새로 설치된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인 「朝鮮古蹟研究會」가 담당했지만 실제로는 도쿄대학 고고학연구실의 하라다요시토(原田淑人)의 책임 하에 고마이카즈치카(駒井和愛)가 현장조사를 맡았다.

발굴조사에서는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고 그 대부분은 일본으로 반출되어 도쿄대학 문학부에 보관되었다. 현장조사를 문학부 고고학연구실이 담당했기 때문이다.

발굴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몇 차례의 소략한 약보고가 있었으나 오랫동안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1964년으로 고마이카즈치카(駒井和愛)가 주도하였다(駒井 1964). 概報에 기초하고 유구와 유물 도면과 사진을 약간 추가한 것이다. 보고서에서 강조한 조사 성과는 채집품을 통해서만 존재가 알려져 왔던 「樂浪」명 와당과 봉니들이 실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점이었다(그림 2 참조). 이는 오랫동안 중요 채집유물의 眞實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토성의 축조연대를 둘러싼 논쟁을 정리할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도 토로하였다. 다만 보고자 고마이는 토성 내에서 출토된 「樂浪禮官」명 와당을 大同江面 船橋里에서 출토된 효문묘 銅鐘의 명문과 비교하여 적어도 효문묘가 폐지되는 기원전 40년 이전에는 토성 내에 禮官 건물이 있었고 여기에 廟가 설치되어 제사를 거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키노의 인식을 답습한 것이다.



그림 5 토성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樂浪禮官」명 와당

보고자 고마이는 무제가 설치한 낙랑군치가 원래 대동강 북안에 있었으나 강의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설을 선택하고 그 시점을 진번군이 폐지되는 기원전 82년 무렵이라고 하였다. 즉 大樂浪郡이 형성되면서 군현 내부에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고 그 일환으로 대동강 남안에 새로 토성을 축조해서 군치를 옮겼다는 이해였다. 물론 낙랑군치 왕검성 재사용(고조선 왕검성 평양설), 그리고 강북설을 신용한 바탕에서의 입론이다.

반면 토성의 하한연대와 관련해서는 「大晉元康」 명 문자와당을 근거로 西晉代까지 사용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즉 고구려에 의해 멸망하는 순간까지 성이 기능한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遺構의 중복 상황으로 보아 토성 내에서 여러 번에 걸친 건물의 증·개축이 있었다고 보고 벽돌 건축물들은 낙랑말기에 축조된 것이라 판단했다(駒井 1965).

4) 해방 후 북한학계의 조사와 연구

한편 해방 후가 되면 토성을 포함한 낙랑유적의 조사는 북한 연구자들이 주도한다. 북한학계도 해방 직후에는 낙랑군평양설이 일반적이었고 토성리토성(낙랑토성)을 낙랑군치로 인정하였다. 도유호나 정백운 등 해방 후 북한고고학을 주도하였던 대표 연구자들의 인식도 그러하였다(도유호 1962). 북한의 낙랑군 및 토성리토성에 대한 인식은 1968년 조사를 즈음하여 파격적인 변모한다(이순진, 장준협 1973). 즉 일제강점기에 봉니가 출토되었다고 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았으나 단 한 점의 封泥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낙랑토성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근거로 기원후 1~3세기라고 하였는데 이는 토성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고분에서 가져온 연대판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성과를 재발굴을 통해 발빠르게 검증하고자 했던 점은 높이 평가되지만, 이후의 연구분위기는 일제강점기의 조사연구 성과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비난하는 일색으로만 흘렀다. 그 결과 고조선과 낙랑군을 평양으로 비정하던 도유호와 같은 연구자들은 역사연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낙랑군요동설이 한동안 부동의 지위를 차지했다. 관점과 해석을 달리하는 역사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이 분야의 연구는 급속하게 활력을 잃었고 발굴조사 내용마저도 공개되지 않는 지경으로 쇠퇴하고 말았다.

낙랑군요동설을 지남한 이순진은 토성 내부에서 생산도구가 출토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실제 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며 피지배계층을 억압하는 소수의 지배계층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土城里土城에서 동북으로 800m정도 떨어진 곳에 기원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는 토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4. 토성리토성의 발굴성과와 출토유물의 재검토



1~11: 낙랑토성출토

그림 6 토성리토성의 수공업생산 관련유물

개보에 기초한 간단한 보고서가 간행된 이후에 토성리토성과 그 출토유물에 대한 연구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가 되면서 토성리토성 출토 유물에 대한 추가 보고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연구가 재개된다. 도쿄대학 고고학연구실의 타니도요노부(谷豊信)는 1983년에서 1986년까지 4차례 걸쳐 도쿄대학 『考古學研究室紀要』에 토성리토성에서 출토되었지만 미보고 상태였던 유구와 토기류를 소개하였다(谷豊信 1983,1984,1985,1986). 해방 전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토기의 분석과 보고는 한창 와질토기논쟁이 진행 중이던 한국고고학계에도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본고고학의 입장에서 정리된 내용이었기에 한국고고학으로의 파급은 제한적이었다.

그 후 상당기간 추가 보고와 연구는 없었는데, 발표자가 낙랑토성 출토유물을 정리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이다. 당시 대다수의 미보고 자료는 지하 창고에 쌓인 채로 다른 지역 유물을 넣은 상자들과 뒤섞여 있었다. 그 양이 상당해서 토성리(낙랑)토성에서 출토된 유물을 분류해서 가려내고 세척과 주기를 거쳐서 공개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에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발굴 후에 도쿄대학으로 반출시킨 상태에서 꺼내지도 않았거나 봉투에 밀봉된 채로 발견된 것도 적지 않았다. 마치 토성리토성을 직접 발굴하는 느낌이었다고 회고할 수 있다.

유물의 내용면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알려진 토기 뿐만이 아니라 기와와 벽돌류, 각종 토제품, 청동기류, 철기류, 유리류, 석제품, 골각기류 등이 망라되어 토성리토성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자료임을 직감하였다. 또한 일본연구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소개되지 않은, 즉 세척되지도 않은 1차 고고자료를 한국 연구자가 직접 정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재검토 작업은 일제강점기는 물론 1965년의 보고에도 소개되지 않았던 청동기 주조 관련 자료의 분석으로 시작했는데 이는 발굴 출토품이었고 眞贋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자료들이었다⁶⁾. 그 결과 토성리토성 내에서 실제 청동기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으며, 전체적인 청동기의 제작공정과 생산품의 내용도 복원할 수 있었다(鄭仁盛 2000). 즉 지금까지 漢式 청동기로 이해했던 여러 종류의 기물을 토성리토성에서 직접 생산했음을 알았다. 또한 개별 유물의 출토위치를 분석하여 토성 내의 청동기 제작공방

6)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생산관련 자료가 수집되거나 거래된 사실이 인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치를 비정할 수 있었으며, 유리제품도 청동기와 함께 같은 공방에서 제작되었음을 밝혔다. 공방에서는 소형 철제 공구도 생산되었는데 주조제품과 단조제품을 망라한다. 손칼을 비롯하여 송곳이나 조각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역시 철기 공방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료이다.

그 다음 출토량이 많은 中原式 청동촉을 분석하였더니 이들 자료 중의 일부가 낙랑 현지에서 직접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중원지역에서 제작된 청동 삼릉촉이 거푸집 3장으로 제작되는 것임에 반해 토성에서 출토된 청동촉 중에는 거푸집 2장으로 제작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鄭仁盛 2002). 또한 토성내부에서는 이 외에도 골각기, 토기와 기와를 포함한 각종 생활용품도 생산되고 있었다. 즉 토성리토성은 당시 이 지역의 수공업 제품 생산기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토기와 기와 등으로 분석대상을 넓혔다.

1) 토성의 구조 검토

토성리토성은 기본적으로 대동강 변의 자연구릉을 그대로 이용하여 설치된 평면 부정형 토성이다. 하천을 끼고 설치되었다는 점은 중국에서 발견되는 토성들과 기본입지가 유사하지만 자연 구릉의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은 부정형 토성이라는 점은 이질적인 요소이다⁷⁾.

대동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지류가 토성의 동벽과 남벽을 감싸고 도는 것도 중요한 구조상 특징이다. 이는 수로인 동시에 해자의 역할을 겸한다. 또한 토루는 그 단면이 梯形에 가깝고 성벽의 곳곳에는 주위보다 높은 토대가 만들어졌다. 특히 대동강에 면한 북쪽 토루가 주변보다 높은 점으로 보아 망루일 가능성이 높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토성 내에는 군데군데 민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외부에서 내부로 통하는 길이 북벽과 남벽에서 발견되었다. 이들이 모두 토성이 기능할 당시의 문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구조상 적어도 토루의 남쪽에는 문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7) 秦漢代의 토성이 대개 평지에 축조되고 방형이거나 장방형인 경우가 많지만 예외가 없는 것도 아니다. 閩越國의 군치라 이해되는 福建城의 武夷山村 漢城이 그러하며 內蒙古의 화린골 土城, 長江 下流域 강소성 鎮江鐵甕 土城, 호북성의 蕪春故城 등은 모두 자연구릉을 이용한 축성사례이며 평면형태도 부정형이다. 중원세계의 외부에 해당하는 요서지역에 위치하는 柳城이나 안장자고성, 대집둔 고성 등도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축성한 부정형 토성이라 할 수 있다. 길림지역의 二龍湖古城도 평면형태는 기본적으로 방형이지만 하천변 높은 구릉을 이용한 축성이다(徐龍國 2011).

도쿄대학 문학부에 소장된 미공개 사진 중에 성벽이 절단되어 통행로가 확보된 남쪽 토루를 찍은 사진이 있어 참고가 된다(그림 7 참조).

중국 중원에 축조된 평지성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연한 판축 성벽이라 할 것이다. 영정주를 설치하고 이를 고정시킨 다음 점토를 수평으로 거듭 다지는 것인데 판축단위가 대체로 일정하다. 이는 한 대 이전의 연산산맥 이남에 축조된 토성들은 물론이고 요서지역이나 내몽고지역에서 발견되는 대다수의 동시기 토성에서 인지되는 특징이다. 그런데 토성리토성의 경우 북한학계는 기본적으로 자연구릉을 이용하여 성벽을 만들었고 남쪽(성벽)은 바다에 진흙을 두껍게 깔고 그 위에 붉은 흙을 쌓아 올린 것이라 주장하며 판축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벽 자체는 단일문화층으로 판단했다. 戰國時代와 漢代는 물론이고 遼金代에 축조된 중국 대부분 지역의 토성이 정연한 판축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성토법의 차가 의미하는 바를 앞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토성의 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정치가 보고되었으나 대략 한 변이 400m~500m에 이른다. 당초 군치로 기능하기에 규모가 작다고 판단되었기에 이동설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으나, 근년의 조사결과 연산산맥 이남과 요녕지역의 토성 중에도 이와 규모가 유사한 토성들도 적지 않다.



그림 7 토성리 토성의 남문지(도쿄대학 문학부 소장 사진)

2) 토성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遺構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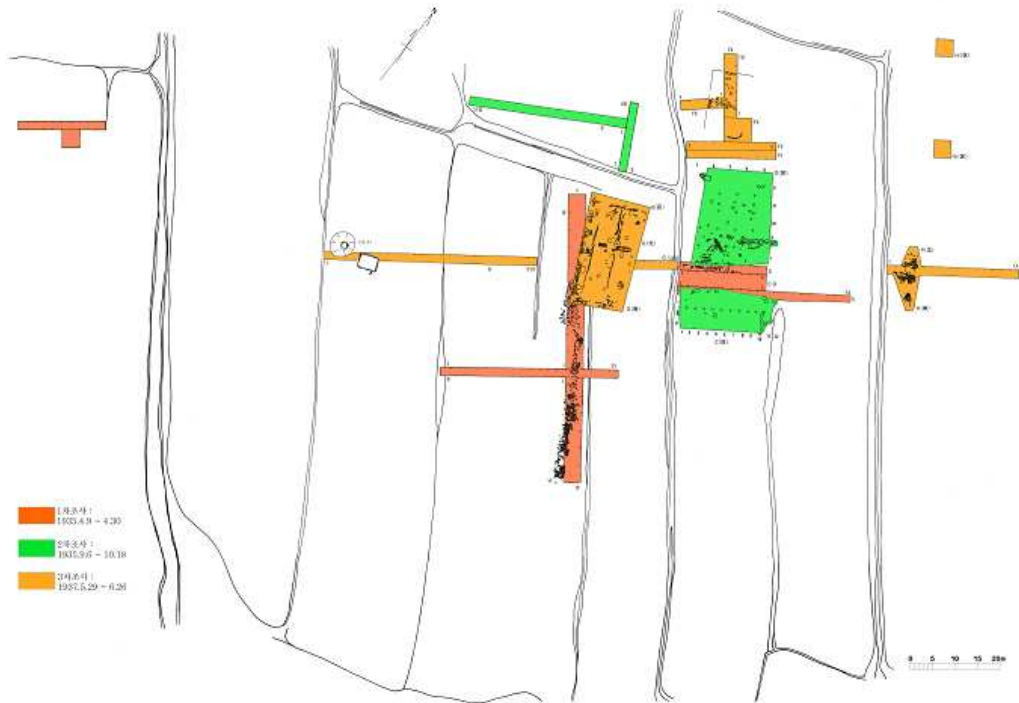


그림 8 토성리토성(낙랑토성) 내부의 발굴구와 드러난 유구

1930년대의 발굴조사는 토성 내부에서 동북으로 약간 치우친 구릉 경사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당시 유물 출토가 많은 부분과 유구를 따라가며 발굴구를 확장하는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발굴된 공간이 토성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과 유구가 밀집했던 곳일 가능성이 높다.

(1) 중심 건물지

토성 내부에서 중요한 건물지는 B 트렌치와 트렌치를 확장한 G그리드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B트렌치 내부에서는 토성주변의 전실묘에 사용하는 벽돌을 깔아서 만든 보도가 30m정도의 길이로 노출되었다. 그 중심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지만 주변 미발굴지에 이에 필적하는 건물지의 초석이나 적심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G 구역에는 이와는 장축방향이 약간 어긋나는 건물지의 흔적이 드러났다. 배수로로 추정되는

暗渠가 그 방향을 달리하며 발견되었으며 납작한 초석이 군데군데 모습을 드러내었다. 퇴적이 두껍지 않았던 터라 후대 교란이 심하지만 평평한 자연석을 깔아서 만든 형태였다. 그 중심에 평면 직사각형으로 구덩이를 파고 강자갈을 채워놓은 유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근처에서 발견된 암거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배수시설이다. G구역의 서쪽에 치우쳐서 남북으로 길게 암거에 면해 건물 기단이 형성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거칠게 가공된 석재를 사용해서 축조했다.

D구역에서도 암거시설과 함께 초석이 발견되었는데 발굴구의 남쪽에는 벽돌을 깬 보도시설이 확인되었다. 이 구역의 암거는 돌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 반면 전실묘와 동일한 벽돌을 쌓아서 만든 곳도 있다. 물론 층위적으로는 자연석으로 만든 것이 앞선다. 여기에 방향을 달리하는 벽돌의 중복이 보여 최소한 D구역에서는 3번 이상의 건축물 중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초의 건축물은 자연석을 가공한 기초시설 위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우물유구

발굴구의 서쪽에 약간 치우쳐서 동서방향으로 긴 트렌치(발굴조사를 위한 전용 도랑)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원래의 G트렌치이다. 이 트렌치의 그 동쪽 끝에서는 벽돌을 쌓아서 만든 우물유구와 변소유구가 발견되었다. 우물은 구덩이를 폭 5m이상의 폭으로 굴착한 다음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사용된 벽돌은 장방향으로 벽돌무덤 축조용으로 제작된 것과 같은 규격이다. 단면상 우물의 중간 부위가 약간 넓어진 것이 특징이며 평면 형태는 원형이다. 보고서에 제시된 사진을 보면 우물조사는 바닥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도쿄대학 문학부에는 이 우물에서 나온 유물들이 미보고인 채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철기와 토기, 기와 등으로 구성된다.

(3) 벽돌로 쌓은 변소유구

우물유구의 중심에서 5m가량 떨어진 곳에 벽돌로 짠 변소유구가 발견되었다.

평면 형태가 장방향으로 역시 전실묘 축조에 일반적인 장방향 벽돌을 이용하여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낙랑벽돌무덤에서 일반적인 3횡1수, 즉 3단을 눕혀서 길게 쌓고 1단

을 세워서 쌓는 등의 축조법은 보이지 않는다. 길이 방향의 문양이 없는 면이 유구의 내부를 향하게 만든 것으로 대변을 보는 곳의 양단은 전들의 짧은 면이 유구내부를 향하는 구조이다. 母子塼이 사용된 경우도 있으며 군데군데 문양면이 유구의 안쪽을 향하는 부분도 있다. 제시된 도판 사진으로 보아 축조에 이용된 벽돌들은 원래는 한쪽 긴면에 문양이 있는 것이 많다. 이 문양면이 보이지 않게 돌려서 쌓은 것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돌기가 있는 모자전이 사용된 것을 보면 벽돌들은 원래 이 변소 유구를 축조하기 위하여 특별 제작된 것이 아니라 전실묘 축조용 벽돌을 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처에 우물도 있어 이를 水槽(集水施設)로 볼 수도 있겠으나 굳이 변소라 판단하는 것은 유사한 사례가 중국 낙양 등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우물과 동시에 기능하던 집수시설이라 볼 경우 입수구의 위치가 반대인 점도 문제가 된다. 입수구의 경사도로 보건데 내용물이 아래로 떨어지기를 고려한 구조적 고안인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그 내부가 방형으로 비교적 넓게 형성된 것은 돼지사육을 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변소를 축소해서 만든 명기가 후한대에 크게 유행한다. 우물과의 상관관계와 함께 설치시기가 중요한데 문양벽돌의 형태는 대부분 중원지역에서 후한대에 유행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결국 이 변소시설은 우물과 함께 토성을 처음 조형할 당시에는 없었던 시설이었을 것이다.

(4) 敷塼 步道施設

B 트랜치를 따라서 확인된 부전시설은 틀림없이 우물이나 변소와 마찬가지로 기원후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에서 모자전이나 문양전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는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의 존재를 암시하는데 이 역시 토성이 처음 조용되었을 때는 없었던 시설이었다. 즉 후한대의 어느 시점에 토성 내부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재차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보도시설은 G구역에서 발견된 건물지 기단시설과 축조에 사용된 자재도 다르며 장축방향도 틀어져 있다. 보고서에 제시된 사진으로 판단되는 층위관계로 보아 G구역의 건축물이 먼저 축조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들 건축물은 대개 자연석을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장방형 벽돌이나 문양벽돌을 이용하는 B트랜치의 보도와는 차이가 있다.

대규모의 敷塼 보도시설은 발굴구의 가장 동쪽에 해당하는 H 발굴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여기에도 장방형의 문양전이나 무문전을 한 벌씩 깔아서 만든 넓은 부전시설이 발견되었다. 이들이 D구역의 보도와 우물이나 변소 축조에 사용된 벽돌과 성격이 동일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들 문양전과 석조 구조물들과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은 D발굴구이다. 암거와 같은 석제구조물의 위로 퇴적토가 덮인 위에 장방형 문양전이 놓여 있다.

그리고 D트렌치의 가장 아래층에는 폭이 넓은 벽돌, 즉 고분축조에 흔히 사용되는 장방형 벽돌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벽돌이 깔려 있다. 그 층위적인 관계가 자연석을 가공해서 만든 것과 대부분 동일한 점을 보면 처음 토성리 토성의 내부시설을 조영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부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토성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용된 건축부재는 문양이 없으면서 활석이 함유된 방형벽돌이었다. 토성리토성에서 활석혼입계 토기들의 상한연대가 기원전 2세기로 소급된다고 판단하기에 토성리 토성의 연대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자료이다.

3) 출토유물로 본 토성 내 공방시설과 수공업 생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F트렌치에서는 청동기와 유리구슬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다양한 유물들이 드러났다. 토성리토성에서 각종 수공업생산을 담당하던 공방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최하층에서 곡선상의 암거시설(배수로)이 발견되었을 뿐 유구의 구체적인 형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공방의 둘러싸는 기단열이 부분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만약 발굴 구역을 넓혀서 조사했다라면 공방의 전모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다.

토성리토성에서는 기와나 대형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내박자가 출토되었다. 이 내박자를 통해서 토성 내부에서도 토기와 함께 기와류 생산도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기나 기와가마는 성형 공방지에서 멀지않은 곳에 설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토성 내부에는 가마가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토성내부에 생산시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연산산맥 이남 중원세계의 경우 비교적 일반적이다. 전국시대 연국의 연하도, 곡부의 노국고성, 산동성의 임치 제고성, 중

산국의 영수성, 서안의 함양궁과 장안성 등도 그러한 사례이다. 즉 거점토성은 수공업생산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관영공방이기도 하다.

漢代에 燕國과 광양군이 설치되었던 북경 평원의 경우에도 토성을 중심으로 금속기들의 생산기지가 설치되었던 정황이 드러난다. 특히 清河 북변에 설치된 일명 清河古城에서는 철기류를 생산한 흔적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내몽고에 가까운 흑성고성에서는 후한대의 철기류와 화폐를 주조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림 9 토성리토성(낙랑토성) 출토 반량전 거푸집과 화폐 각종(左) 및 오수전 일부(右)

지금까지의 자료조사를 통해서 토성리 토성에서는 청동기제작과 관련해서는 정련과 용해, 그리고 주탕을 시사하는 고고자료가 확보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유리제품도 같은 곳에서 출토된다. 도가니와 정련 및 용해 과정에서 발생한 청동 불순물과 찌꺼기도 다수 발견되어 토성리토성에서 상당수의 청동기가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종류의 청동기가 제작되었는지는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흔히 우리가 한식청동기라고 말

하는 청동기류도 제작되었다. 또한 토제거푸집 파편과 반량전 거푸집 파편이 발견되어 토성 내에서 반량전 주조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량전을 주조하는 데 이용된 滑石 範의 발견은 토성리토성의 축조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수전이 주조되기 시작하기 전인 전한초에 토성이 기능하였고 그 내부에서 반량전을 주조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오수전과 후한대의 화폐를 주조한 거푸집이 다수 수집가를 통해서 공개되었으나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서 출토된 것은 반량전 거푸집 1점에 지나지 않는다.

토성리토성의 공방내부에서 철기를 제작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에서 철기생산의 전개를 밝히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으며 군현으로서 낙랑군의 철기생산을 이해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형 주조철부들은 토성내부의 공방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내범이 부착된 철기류가 있고 주조 후에 제거된 철부의 내범파편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손칼이나 각종 철제공구도 토성내의 공방에서 제작되었을 것인데, 이는 미완성 상태의 철도가 발견된 점, 그리고 小刀의 손잡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 둔 사슴뿔 등으로 검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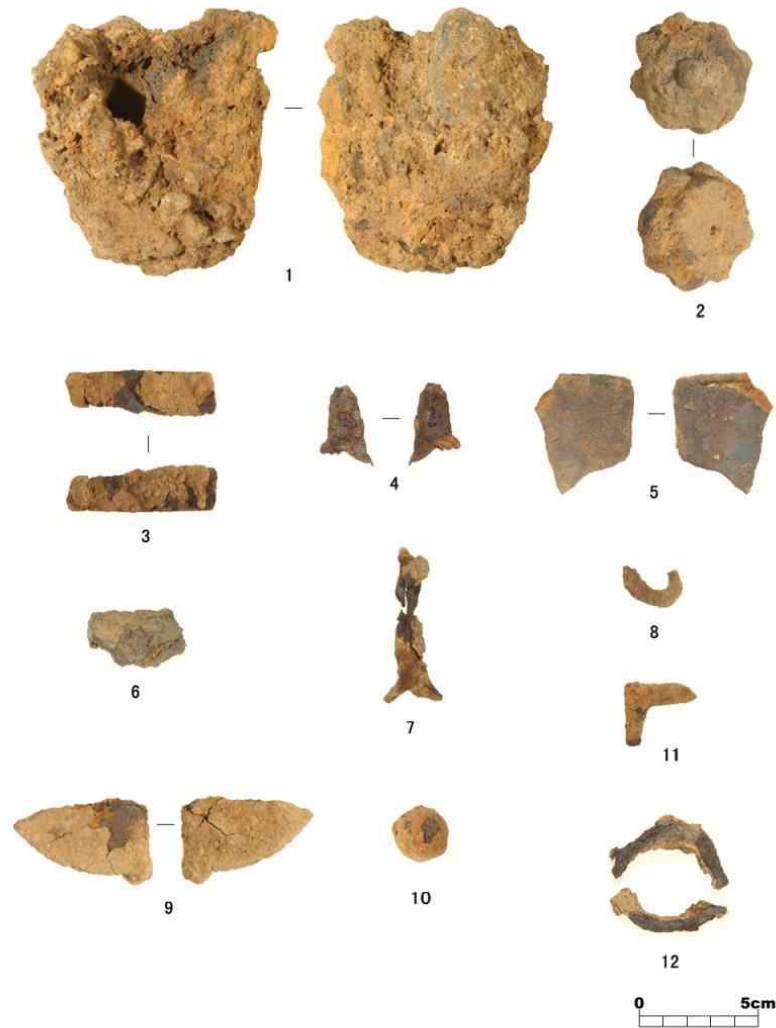


그림 10 토성리토성(낙랑토성)에서 출토된 철기류(1번 유물은 철녹이 발생하였지만 분석결과 청동기 주조과정에서 발생한 철로 판명됨).

다만 토성리토성(낙랑토성)에서 발견된 철기에는 기본적으로 前漢 초기나 그 이전으로 소급되는 자료는 없는 듯하다. 위원 용연동으로 이어지는 燕系鐵器가 발견되지 않는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초기 철기문화의 성립과 토성리토성의 철기는 서로 특별한 관계가 없는 듯하다.

한편 토성내부에서는 사용되었던 다수의 방추차를 통해서 織物이 토성리토성에서 생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개 토제품이며 파손된 토기나 기와를 이용한 방추차 제작도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석제 숯돌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석제품도 출토되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출토유물로 본 토성내부의 풍경



그림 11 토성리토성(낙랑토성)에서 출토된 맷돌

그간 연구자들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지만 토성리 토성에서는 돌로 만든 맷돌이 여러 점 출토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 형태가 낙양 등지에서 발견된 후한대 중원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맷돌의 直上方에서 곡물을 투입할 수 있고 손잡이가 상판의 측면에 달린 형태이다. 하판 중심에 철심을 박아서 맷돌의 상하판을 고정시켰다. 일찍이 보고자는 이를 밀가루 製粉用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駒井 1965). 실제로 어떤 곡물을 빻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後漢代 중국 중원지역과 동일한 맷돌이 여러 점 출토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발굴 당시의 사진과 도면을 확인한 결과 출

토정황에 문제는 없다.

완성품으로 수입된 것인지 맷돌 공인이 서북한 현지에서 만들었는지 현재로서는 검증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과제이다. 그리고 식용과 각종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각종 동물 뼈가 발굴되었는데 소뼈와 사슴뼈와 사슴뿔, 그리고 돼지뼈 등이 인정된다. 그 내용으로 보아 토성리 토성 내부에서는 後漢代 이후의 畫像石에서 보이는 것과 거의 유사한 廚房風景이 연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토기를 통해서 토성 내의 풍경이나 생활에 접근한다면 우선 취사용 토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토성 내에서는 화분형토기가 취사용으로 중심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소수의 무문토기류가 병용된 듯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무문토기란 점토대토기를 일컫는다. 화분형토기는 원래 재지사회에 없던 기종으로 그 발생과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발표자는 재지 점토대토기문화와 연계토기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해한다. 화분형토기는 활석혼입계에 속하는 독특한 토기인데 이는 서안과 낙양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북경을 중심으로 한 하북성에서 특화된 연의 토기문화이다. 즉 서북한지역의 취사용토기는 연국 토기문화와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화분형토기는 그 중심 분포범위가 북으로는 청천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는 전형적인 세형동점의 분포범위와 겹친다. 원래 이 토기들의 계보는 연산산맥 이남의 연식부에서 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직접적인 조형은 요동지역에서 지역화된 부형토기에 있다. 요동지역의 활석혼입토기를 서북지역의 화분형토기와 연식부를 이어주는 토기형식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요한 것은 토성리토성 내에서 연식토기가 변용된 화분형토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 토기는 부뚜막에 걸쳐서 쓰는 기종인데 그 위에 시루를 얹어서 조리할 수도 있다. 이는 노천에 세워두고 열을 가하는 점토대토기류와는 다른 이용방법이다. 즉 토성 내에서는 점토대토기가 보조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대개는 화분형토기류(혹은 활석혼입계의 심발형토기)가 중심적인 조리기구였다. 토성 외부의 동시기 취락이 모두 이러한 토기를 사용했는지, 즉 그 파급 정도는 앞으로의 자료증가를 기다려 따져야 할 것이다.

토성리토성 내부에서 사용한 식기와 용기류의 대부분은 니질제의 회도인데 소백산맥 이남의 영남지역에서 확산된 와질토기 소성과 흡사하다. 이 역시 재지토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대개 전국시대 이래로 하북지역이나 요서, 요동지역에서 인지되는 회도들과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제작기법이나 형태적인 면에서 분명한 차이도 있다. 서북한 지역에서 회도와 기와는 동일한 제법으로 제작되는데 이는 점토와 성형법, 정형법은 물론이고 소성방법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검증된다.

한편 토성리토성과 주변의 벽돌고분에는 발표자가 석영혼입계토기라 분류하는 白陶(혹은 백색토기)가 대량으로 사용되거나 부장되었다. 석암리 9호를 위시하여 수많은 낙랑목곽묘와 전실묘에는 白陶가 부장되었는데, 그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저장용 토기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최근 산동반도에서 백도를 생산한 대규모 가마유적이 발굴되면서 그

제작지가 산동반도로 밝혀졌다. 산동반도 용구시 주변에서 발견된 가마에는 백도 성형용의 내박자를 위시하여 다양한 종류의 백도들이 출토되었다. 완형토기나 이배형토기 등 한반도의 서북한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종들도 제작되었다. 특정 기종에서 형태와 제작기법이 완전히 일치하고 서북한 지역에서 제작된 활석혼입계나 니질계 토기와는 제 도술에서 이질적이기 때문에 수입토기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북한 지역의 백도들은 비록 크기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배가 부른 저장용 토기이다. 이는 토기 자체가 수입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물품의 수출용기(컨테이너)로 사용된 토기임을 시사한다. 어떤 내용물을 담아서 수출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성 내부에서 발견된 건물지에서 집중적으로 무기류들이 출토된 것을 보면 당연히 무기고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무를 수행하던 건축물과 공간도 있었다. 낙랑예관 와당에서 확인되었듯이 성곽의 내부에는 교육과 제사를 담당하던 건물의 존재도 예상된다.

6) 지금의 土城里土城

2006년 평양시를 방문하여 살핀 결과 1990년 이후 평양시가 대동강의 남쪽으로 그 지역을 급격하게 넓히면서 토성지역과 그 주변에는 많은 고층아파트가 건설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토성리토성도 궤멸적으로 파괴되었음을 확인했다. 지금은 북성벽의 극히 일부만이 잔존하는 상황이다. 결국 이 토성을 둘러싼 오래된 논란과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자료의 등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토성의 성격을 고고학적으로 분명히 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1930년대에 조사되어 일본으로 반출된 유물의 분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조건이 허용된다면 평양 현지에 남아있는 토성 성벽과 미파괴 공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출토유물로 본 토성리토성의 성격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어 일본으로 반출된 유물을 검토한 결과 토성리토성에서 「樂浪禮官」과 「樂琅富貴」명 와당은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조선 태수장을 포함한 중요 봉니류는 출토자료가 아니어서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위조품이 유통된 것도 사실이다.

다만 발굴과정에서 일부 봉니자료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 과정에서 기록된 조사 일지를 전부 살핀 결과 출토 정황에 별 다른 이상은 없었다. 유물을 수습한 봉투를 찾아 주기와 야장에 기록된 출토위치를 대조한 결과도 일치했다.

토성 내부에는 처음 자연석을 가공하고 활석을 섞어서 만든 네모난 벽돌이 깔린 대형 건축물이 건설되고 운기문과 쥘수문이 시문된 기와가 덮였다. 다만 이들 기와들은 토기와 마찬가지로 한 長安이나 洛陽 등지에서 유행하던 것이 아니고 그 계보를 연의 제와, 제도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상한연대도 군현 설치시점보다는 약간 소급된다(정인성 2004b, 2005).

토성 내부에서 출토된 다수의 맷돌, 그리고 변소 유구와 우물 등은 낙양 등 중원세계의 그것과 대부분 흡사한 제품들이다. 토성 내부에는 무기고가 있었고 다양한 수공업 생산 공방도 설치되었는데 이 역시 그 양상이 연산산맥 이남의 중원세계와 다르지 않다. 漢帝國이 금수품으로 관리했던 노기와 그 부속구가 출토되고, 청동 화살촉이 대량으로 출토된 점, 그리고 반량전과 오수전이 무더기로 발견된 정황도 아울러 주목되는데, 이 역시 출토 정황에 별다른 문제는 감지되지 않았다.

토성리토성 내부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고고학적 정황은 이 토성이 낙랑군과 관련된 유적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토성의 주변에서 발견된 수천기의 고분들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근년에 공개된 낙랑호구부를 들지 않더라도 해방 후 북한학계가 발굴한 부조예군묘, 신천군의 長岑長 왕경묘 등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1916년에 발굴되어 주목을 모았던 석암리 9호에서 보는 것처럼 사천성 등지에서 제작된 고가의 칠기를 대량으로 부장하는 무덤이 축조되었고, 중국 강남이나 남방에서 생산되는 사치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부장하는 사회를 현재로서는 낙랑군 상정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물며 그 시

기도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로 보는 한 기원전 1세기대 이후가 중심이다. 한의 황실공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순금제 교구와 흉노를 통해서 입수된 행엽과 청동술 등의 존재도 그러하다.

아울러 평양 일대에서 발견되어 발굴된 수백기의 벽돌무덤은 배가 밖으로 부르다는 서북한 독특한 요소도 인정되지만 요동지역이나 산동지역, 혹은 장강유역의 그것들과 상통하는 속성이 더욱 많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잘못 발굴되거나 해석된 부분은 치밀하게 분석하여 비판해야 된다. 예를 들어 발표자가 이미 발표했듯이 장무이묘는 일제강점기의 해석처럼 대방군이 아니라 고구려시기에 축조된 무덤이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대방군의 강역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낙랑군과 대방군의 위치관계를 고려하고 벽돌무덤의 분포를 더해서 판단하건데 여전히 재령강 유역설은 유효하다(정인성 2010).

아울러 본문에서 밝히지 못했지만 서북한 지역에서 유행한 이 시기의 토기들은 기형과 제작법에서 뚜렷한 지역색이 인정된다(정인성 2004). 이를 통해 제작지 검토가 가능한데 산동지역은 물론 요녕지역의 그것들과 분명히 변별해 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낙랑이나 대방군의 강역으로 거론되지 않는 삼한지역과 예, 그리고 일본열도(왜)에서 출토된 수입토기들을 분석했더니 그 대부분이 평양지역에서 제작된 토기임을 알았다(정인성 2003). 문헌사료의 분석에 바탕한 낙랑, 대방군 위치 비정문제가 온전한 동의를 얻어 내지 못하고 지리한 논쟁을 거듭하는 것은 평양설을 지지하는 기록과 요동설(요서설) 등을 지지하는 기록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그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삼국지 위서동이전 등의 기록에는 일관되게 이들이 군현을 통해서 중국세계와 접촉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한 교류의 결과 한,왜의 공간에 漢鏡과 銅錢을 포함한 각종 위세품이 전해진 것이다. 결국 이들 위세품과 같이 이동된 토기의 제작지가 바로 군현의 위치일 가능성이 높다. 분석 결과 해방 이후의 발굴에서 확보된 반입토기의 대부분이 평양지역에서 제작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낙랑군 평양설을 강하게 지지하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발표자는 이상의 고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낙랑군평양설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위만조선을 포함한 고조선의 강역과 왕검성이 평양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토성리토성

과 그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분명히 군현 설치 이전으로 소급되는 자료가 있고, 이것이 위만조선대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매우 빈약하고 왕검성을 증명할 고고자료는 전혀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핀 토성리토성의 경우에도 왕검성을 시사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요동지역의 성곽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자료의 등장을 기다리고 연구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평양지역에서 얻은 고고학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낙랑군과 관련없는 것이라 부정한다면, 요동지역의 고구려 유적 역시 부정당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요서지역으로 넓혀서 추구해야 될 고조선의 강역과 문화요소 역시도 그러하다.

- * 발표의뢰를 급하게 받은지라 그간 연구 성과의 일부를 거칠게 편집했음을 밝혀둔다. 정확하지 않은 출처와 자료제시 등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발표자에게 있다.

〈참고문헌〉

- 도유호, 1961, 『지탑리 원시유적 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 도유호, 1962 「왕검성의 위치」, 『문화유산』
- 駒井和愛 外、1965、『樂浪郡治址』、東京大學文學部.
- 리순진, 장준협, 1973 『고조선문제연구』
- 리순진, 1974 「운성리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 2(고조선, 부여, 진국편).
- 박진옥, 1974 「함경남도 일대의 고대유적 조사보고-소라리유적」, 『고고학자료집』 4, 사회과학출판사.
- 남일룡, 1995 「평양지방의 고대토성」, 『조선고고연구』 1995-2.
- 남일룡, 1996 「평양일대 고대토성의 축조연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6-1.
- 吳永贊, 1996 「樂浪郡의 土着勢力 再編과 支配構造」, 『韓國史論』 35 33-41.
- 閔德植, 1984 「三國時代 以前의 城郭에 관한 試考」, 『韓國上古史學報』 16, 上古史學會.
- 徐龍國, 2011, 『秦漢城邑考古學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이성규, 정인성 외, 2006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권오중, 1992 『樂浪郡研究』, 一潮閣.
- 鄭仁盛, 2000, 「樂浪土城 內에서의 靑銅器製作과 工房의 위치」,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20주년 기념논총』.
- 鄭仁盛, 2003b, 「弁韓·加耶의 對外交涉 -樂浪郡과의 교섭關係를 중심으로-」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출판사.
- 鄭仁盛, 2004a, 「樂浪土城의 土器」, 『韓國古代史研究』 34, 한국고대사학회 편.
- 鄭仁盛, 2004b, 「樂浪土城의 「滑石混入系」 土器와 그 年代」, 『百濟研究』 40.
- 鄭仁盛, 2006a, 「낙랑 토성의 철기와 제작」,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鄭仁盛, 2006b, 「복원실험을 통해 본 樂浪 盆形土器와 평기와의 제작기법」, 『韓國上古史學報』 53, 韓國上古史學會.
- 정인성, 2010, 「대방태수 張撫夷墓의 재검토」, 『韓國上古史學報』 69 韓國上古史學會.

鄭仁盛, 2011, 「일제강점기의 낙랑고고학」, 『韓國上古史學報』 71, 韓國上古史學會.
정봉찬, 2005, 「새로 발굴된 낙랑우물유적과 유물」, 『조선고고연구』 2, 사회과학출판사.
정인성 외, 2014, 『낙랑고고학 개론』 진인진.

(일문)

今西龍, 1910, 「朝鮮平壤郡大同江面南の古墳」, 『東京人類學會雜誌』 25-293, 東京.
今西龍, 1912, 「大同江面南の古墳と樂浪王氏との關係」, 『東洋學報』 2-1, 東京.
谷井濟一, 1914, 「黃海道鳳山郡における漢種族の遺蹟」 『朝鮮古蹟調査略報告』, 朝鮮總督府.
關野貞, 1914a, 「朝鮮文化の遺蹟」 『朝鮮古蹟調査略報告』, 朝鮮總督府.
關野貞 外, 1915, 『朝鮮古蹟圖譜』 一,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17,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白鳥庫吉, 1921, 「漢の朝鮮四郡疆域考」, 『東洋學報』 2-2.
朝鮮總督府, 1922,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跡」, 『大正十一年度考蹟調査報告』 2.
關野貞外, 1925(본문 1927), 『樂浪郡時代の遺蹟』 古蹟調査特別報告第四冊
小田省吾, 1935, 『帶方郡及基の遺蹟』, 朝鮮總督府.
關野貞, 1936, 「樂浪帶方兩郡の遺蹟及遺物」, 『考古學講座』, 雄山閣.
高橋勇, 1937, 「本年度樂浪土城發掘概況」, 『朝鮮學雜論』 27-8
駒井和愛 外, 1938, 「樂浪土城址調査(概報)」,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駒井和愛 外, 1938, 「樂浪土城址調査(概報)」, 『昭和12年度古蹟調査報告』.
梅原末治, 1947, 「朝鮮に於ける漢代遺蹟就の調査と其の業績」, 『東亞考古學概觀』.
駒井和愛 外, 1965, 『樂浪郡治址』, 東京大學校學部.
容豊信, 1983, 「樂浪土城址の發掘とその遺跡」, 『東京大學校學部考古學研究室』 2, 東京大學校學部 考古學研究室.
容豊信, 1984, 「樂浪土城址出土の土器(上)-樂浪土城研究その2-」, 『東京大學校學部考古學研究室紀要』 第3号
容豊信, 1985, 「樂浪土城址出土の土器(中)-樂浪土城研究その3-」, 『東京大學校學部考古學研究室紀要』 第4号
容豊信, 1986, 「樂浪土城址出土の土器(下)-樂浪土城研究その4-」, 『東京大學校學部考

古學研究室紀要』 第5号

容豊信, 1991, 「樂浪郡土城の土器」, 『日韓交渉の考古學-弥生時代編』 六興出版.

鄭仁盛, 2002, 「樂浪土城の青銅鏃」,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17,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

鄭仁盛, 2003a, 「樂浪円筒形土器の性格」,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18,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

(원본자료)

『史記』 「朝鮮列傳」

關野貞 조사 자료

谷井濟一 조사 자료

〈발표 6〉

민족 저력의 뿌리 상고사 복원 방향

박정학 (치우학회 회장)

민족 저력의 뿌리 상고사 복원 방향¹⁾

박정학 (치우학회 회장)

1. 머리말

우리 겨레는 지난 세기에 35년간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잔인한 일제의 식민 탄압과 전국토를 폐허로 만든 6.25 전쟁 후 많은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되어 '회복 불가'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그 후에도 남북의 무력대치와 이념대립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 고비용을 지출해야 했으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반세기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강국이 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민족 저력을 발휘했다.

그런 과정에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2002 월드컵과 2010년의 G20 정상회의 등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IMF 사태도 조기에 극복했다. 최근에는 국가부도설 등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예 분야는 물론 우리말과 글, 우리 음식, 새마을 운동 등으로 한류가 확산되면서 '무한경쟁 원리에 따라 1%:99%라는 극단적 양극화로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는' 서구식 미래 인류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세계 석학들로부터 '21세기 정신문화 시대,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이끌어갈 민족'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것이 저력 있는 우리 겨레의 본 모습이다.

1)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한민족의 형성과 열에 대한 연구」(강원대학교, 2009) 중 관련 부분을 요약하고 보완하였다.

1) 강원대학교 문학(역사학) 박사, 사)한배달 이사장, 역사의병대 총참모장, 예비역 준장.

조선총독부에서는 이와 같은 배달겨레의 얼이 살아 있으면 식민지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리 역사에서 겨레 얼이 형성되는 상고사를 철저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외국의 식민지로 시작된 ‘무능하고 분열을 일삼는 못한 민족’이었다고 왜곡하였다. 그런데 광복 7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그 조선총독부 사학이 이 나라 학자들에게 이어져서 제도권을 장악하고 왜곡된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질학과 인류학에서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생겨났고, 인류는 약 500만 년 전 지구상에 살기 시작했으며,²⁾ 70만 년 전 구석기 시대가 시작된 후에도 오랜 시간 무리 지어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1만 년 전을 전후해서 정착생활을 시작하였고, 약 5,000년 전을 전후하여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고 역사를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기서 민족이나 국가 형성 이전, 즉 기록을 남기지 않은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한다. 선사시대가 인류가 살아온 전체 기간의 99.9%가 되는 셈이다. 그 후에 민족이 형성되었으니 민족이 형성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선사시대에 성숙되었으며, 민족저력의 뿌리가 되는 겨레의 얼도 그 기간에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만큼 선사시대 역사는 민족사의 뿌리로서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이 시대의 역사를 상고사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선사시대는 구석기 시대-신석기 시대-청동기 시대로 이어지는 매우 미개했던 시대라고 가르치고 있다. 겨레의 얼이 형성되는 4,990,000여년의 역사를 제거해버린 것이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단군의 고대조선 건국까지도 신화라고 이름 붙여 역사가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만약 광복 후 조선총독부 사학을 청산하고 겨레의 얼이 살아 있는 역사교육을 시켰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지금보다 더 빨리 발전했을 것이고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들이닥친 세계 경제난국을 해결해내는 실마리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인류사회에 새로운 길을 보다 일찍 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발표자는 오늘 그런 민족저력이 만들어진 선사시대 역사의 복원 방향으로서 시대구분의 기준을 인간이 만든 사회조직으로 바꾸고, 겨레 얼의 원형이 담겨져 있는 민족 창세신화를 살리며, 선사시대 역사가 축약되어 있는 단군사화도 새롭게 해석할 것을 제의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정신이 가장 잘 요약되어 전해지고 있는 천부경 속에서 겨레

2) 초·중·고 교과서에서는 400만 년 전~600만 년 전으로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

얼의 원형을 찾아보고 그 후 전개된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 속에 살아 있는 겨레 얼을 찾아 우리 민족 저력의 뿌리가 상고사에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 많은 사학자들이 더 깊이 연구하는 계기가 되고, 새로 만들어질 국사교과서에도 반영되어 통일조국과 미래 인류사회의 지도자가 될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 ‘우리가 인류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과 꿈을 가지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긍심 넘치는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후손들에게 넘겨 줄 정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민족 형성 역사의 문제점

1) 민족과 국가의 관계

‘민족’이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 영어의 ‘ethnic group’이나 ‘nation’을 번역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대응어로서 일본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다.³⁾ 따라서 그 학문적 정의도 서양과 동양이 다르고 서양에서도 혈연을 중시하는 원초론(Primordialism), 19c 이후 ‘근대화(modernization)’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근대론(Mordernism), 두 시각을 절충하여 민족주의의 근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전근대적 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복합상징론(mixed symbolic theory) 등으로 다양하다.⁴⁾ 우리나라 안에서도 학자들마다 다르고 학자들과 국민들의 정서도 약간 다르다. 일반적으로 혈연, 문화(언어, 종교, 전통문화 등), 정치, 경제, 지역, 귀속의식 등의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집단을 민족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많은 공동요소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 하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공동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한 집단’이라고

3) 윤내현은 nation의 번역어라고 이해했고(『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5, 142쪽), 이선복은 ethnic group에 대한 대응어라고 주장했다(『화석인골 연구와 한민족의 기원』, 이기백 책임편집 『한국사 시민강좌』 32, 일조각, 2003, 64쪽).

4) 민족의 개념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필자의 앞 논문 참조.

하는 귀속의식, 즉 민족의식만 있으면 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거나 문화공동체라는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연을 좀 더 중시하는 편이다.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민족이라는 집단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시각이 많으나, 필자는 1990년대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한 민족국가들을 보면서 스미스(A.D.Smith)의 “민족주의의 힘은 종족적(ethnic) 요소에 있으며, 현재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핵심 요인도 바로 이 종족적 요소”⁵⁾라고 한 주장에 동의하고, 실체가 있든 없든 힘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민족이 형성될 시점의 원초적인 모습은 바로 종족적 성격이 강하며, 이런 의미에서는 ‘민족’이라는 말보다 우리말 ‘겨레’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민족은 역사적 공감성에 의해서 특정 성원들 사이에 운명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집단”⁶⁾이라는 진덕규의 말처럼 긴 역사 과정에서 혈통과 민족전통을 중심으로 씨족, 부족, 종족으로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동체’로서, 법이나 제도로 규정되거나 눈에 보이는 경계를 가진 유형적 공동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실체는 있는 자연공동체라고 필자는 인식하고 있다.

이런 민족은 국가라는 유형적 조직과 직접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다. 하나의 민족이 세계의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형성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둘 사이에는 뗄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서양 근대론에서는 국가가 형성되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민족이 만들어졌다고 보기도 하지만, 나는 국가보다는 앞서거나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고, 민족을 형성하는 원동력인 민족의식이라는 단결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이렇게 성립된 국가는 민족의 단결을 공고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1990년대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여 형성된 국가들이 대부분 민족국가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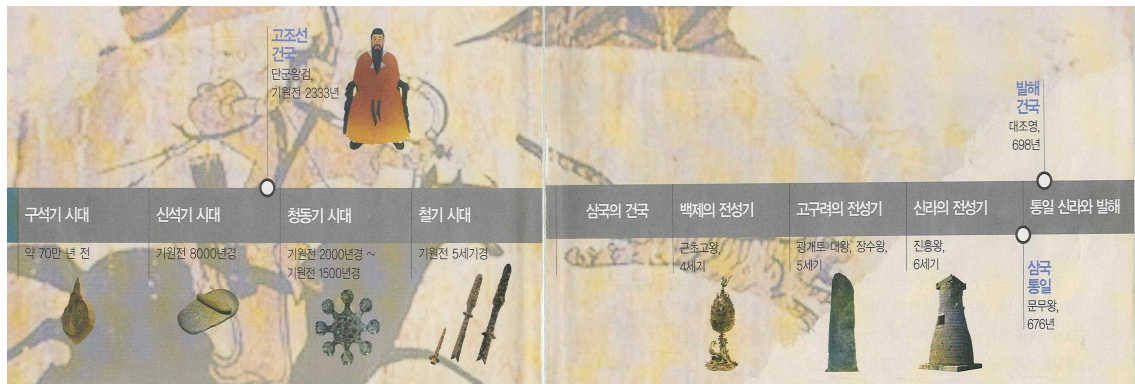
그리고 이때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의식은 민족전통에서 나오며, 민족전통을 만드는 공통적 사유체계를 필자는 민족정신 또는 겨레 얼이라고 부르며, 이 겨레 얼은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민족 저력이 되며, 민족의 역사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된다. 따라서 민족 형성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5) A.D.Smith, The Ethnic Revival in the Modern World(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1).

6) 진덕규, 『현대 민족주의의 이론 구조』, 지식산업사, 1983, 22쪽.

2) 잘못된 '선사시대'의 시대구분

인류가 이 지구에서 살아온 기간의 99.9%를 선사시대라고 한다. 교육부의 지침과 현재의 교과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역사책에서는 시대를 구석기 시대 - 신석기 시대 - 청동기 시대 - 철기시대로 구분하고,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선사시대로 본다.⁷⁾ 그런데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쯤 시작되었다고 하므로 그 이전 430만년에 대한 기술이 없으며,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 건국되었고, 고조선 말기에 철기시대가 되었다면서 그 후 삼국시대의 건국으로 연결시키고 있다(<그림1>). 시대를 펜돌, 간돌, 청동기 등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의 질로 구분하다가 고조선, 삼국 등 사람들이 만든 사회조직체로 그 기준이 바뀐 것이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한 시대를 연결시키려니 부자연스럽게 된다.



<그림1> 2013년판 초등학교 사회 5-1, 7쪽의 연표

그런데 『삼국유사』의 단군사회를 보면 고려 때 우리 조상들의 선사시대 시대구분은 이와 좀 다르다. 우리 겨레는 환국-신시-고대조선으로 이어졌다고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고대조선을 역사시대로 볼 경우 선사시대는 환국과 신시 시대가 된다. 인간이 만든 사회 조직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여기서 ‘환국(桓國)’이 아니라 환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삼국유사』에도 분명히 원문에는 ‘昔有桓國’이라 해놓고 아무런 설명 없이 ‘옛날에 환인(桓因)’이라고 국

7) 교육부의 교육과정을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선사 문화의 발전 과정을 도구의 변천을 중심으로 파악”하라고 하면서, 선사시대의 생활과 문화의 주요학습요소를 “구석기(펜석기), 신석기(간석기), 토기, 신석기 혁명”등으로 제시하고 있다(중학교 역사, 5쪽, 고등학교 역사 26쪽 등).

역해놓았다.⁸⁾ 이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런데, 현 교과서에는 ‘구석기인들은 땀석기를 사용하면서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을 하였고, 빙하기가 끝난 후 시작된 신석기 시대에는 간석기를 사용하면서 씨족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씨족 동동체가 여러 개 모여 부족 사회를 이루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크게 발전하였다’⁹⁾고 기술하고 있다. 시대는 도구의 질을 기준으로 분류하면서 사람들이 만든 사회 조직은 혈연 조직과 정치조직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종족이나 민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교과서 전체에서 보면, 인류사회 조직의 명칭도 선사시대로부터 마을·씨족·부족·족장사회·국가·나라·연맹왕국·연맹체·소국 등 다양하게 나오는데, 각 집단의 성격, 규모 및 분류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어떤 집단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교과서에서는 씨족, 부족, 종족, 민족 등 혈연관련 족(族) 사회의 이름과 그들이 만든 정치조직(마을, 고을, 나라, 국가 등)의 관계를 좀 더 체계화해서 인류 사회의 조직이 발전되는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려면 상고시대의 시대구분을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사회조직으로 바꾸어야 한다.

선사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인류사회의 발전단계설에 대해서는 이미 인류학계에서 연구되어 여러 가지 설이 나와 있다.¹⁰⁾ 이 중에서 인류사회가 band society→tribe society→chiefdom society→state society로 발전되었다는 Elman R. 서비스의 사회발전단계설이 비교적 널리 활용되고 있다.¹¹⁾ 우리나라에서는 영문 시대명의 해석이 학자마다 약간씩 다른데,¹²⁾ 나는 우리말로 표현한 윤내현의 ‘무리사회→마을사회→고을나라

8)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문을 제기하니 “한국이라고 되어 있으나 환인의 오각이라고 보아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답을 했다.

9) 2013년판 초등학교 사회 5-14~20쪽 내용 요약.

10)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발전단계론과 관련하여, 1960년대 초부터 씨족사회-부족국가-부족연맹-고대국가라는 국가 발달도식이 사용되다가, 1970년대 이후 인류학에서 사회집단의 이름으로 분류한 band-tribe-chiefdom-state라는 신진화론이 널리 수용되었으며, 사회의 계층화 정도에 따른 프리드(M.Fried)의 평등사회-서열사회-계층사회-국가로 분류하는 틀도 일부 학자들이 선호한다.(최정필, 「신진화론과 한국 상고사 해설의 비판에 대한 재검토」, 최몽룡·최성락 편저, 『한국고대국가형성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8-25쪽 참조)

11) Elman R. service,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Random House, 1962. ‘서비스는 그 후 다수 학자들로부터 용어의 보편화와 관련된 비판을 받고 이 설을 포기했다. 그러나 아직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는 있다’는 게 윤내현의 설명이다(윤내현, 『고조선 연구』, 97쪽).

12) 우리나라 학자들은 band society는 무리사회, 群集社會, 遊團社會 등으로 번역하고, tribe society는 부족 또는 부락사회, state society는 국가사회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직전 단계인 chiefdom사회에 대한 번역과 성격규정에 따른 명칭과 관련해서는 족장, 군장, 추장, 추방, 수장, 부족연맹체, 부락연맹사회, 고을나라 등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와 있다.

→국가사회'13)라는 번역이 현재로서는 그런대로 가장 무난하다고 본다.

특히 윤내현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 관련 기사를 ‘단군사회’라고 부르고, “3대로 압축되어 나오는 단군사회에서 환인·환웅·한웅+웅녀의 시대는 실제로는 인류사회 발전단계인 무리사회·마을사회·고을나라 시대로서 고고학적으로는 구석기와 전기 신석기·후기 신석기 시대라는 긴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면서 <표1>과 같이 R.서비스의 인류사회단계설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14) 고려 시대 『삼국유사』의 선사시대 구분을 현대 이론과 연결시킨 탁견으로 보인다. 이 표의 맨 우측 비고란은 필자가 윤내현의 논문의 내용에서 ‘족’ 관련 내용을 뽑아 정리한 것이다.

〈표1〉 윤내현의 단군사회의 시대구분

| 연대 | 고고학의 시대 | R.서비스의 사회발전 단계 | 단군사회의 시대 | 비고 |
|---------------------------|----------|-----------------------|------------------|----------|
| 10,000년 B.P. 이전 | 구석기시대 | band society 무리사회 | 桓因시대 | 가족(이동) |
| 10,000년 B.P. 이후 | 전기 신석기시대 | tribe society 마을사회 | 桓雄시대 | 씨족+(불박이) |
| 6,000년 B.P. 이후 | 후기 신석기시대 | chiefdom society 고을나라 | 桓雄+곰녀시대 | 종족 형성 |
| 4,500 또는 5,000 여년 B.P. 이후 | 청동기시대 | state society 국가사회 | 檀君 王儉 건국의 고조선 시대 | 민족형성 |

윤내현은 불박이 생활을 시작한 것을 씨족 사회 때로 보고, 교과서 등 다수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부족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단계를 찾지 못했다’면서 발전 단계에 부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종족’이라는 단어를 도입한 것이 새로운 관점이다. 그러나 필자는 윤내현과 달리 단군사회의 환국[환인]시대를 정착생활을 시작한 마을사회로 보고, 한웅시대를 고을나라, 환웅+곰녀시대를 국가 또는 민족이 형성된 시대로 보며, 단군의 고조선은 국가사회가 더욱 굳어진 시대로 본다. 이런 시대구분이 고고학 시대구분보다 훨씬 합리적이다. 우리 교과서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13) 윤내현,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4

14) 윤내현, 「한민족의 형성과 출현」, 『사학지』 제27집, 단국대사학회, 1994, 7~46쪽 참조.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한 ‘족(族)’조직과 정치조직을 연결시킨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혈연관계가 강조된 ‘겨레’에 가까운 ‘족’ 공동체의 발전단계와 선사시대의 우리 역사를 정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4) 겨레를 형성시킨 원동력 ‘겨레 얼’ 누락

2013년 판 『초등학교 사회 5-1』의 첫 단락의 제목이 ‘하나 된 겨레’라고 되어 있으나,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졌다’는 설명만 있을 뿐 교과서 어디에도 민족이 형성된 데 대한 설명은 없다. 나아가 사람이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때 필수적으로 쓰는 이름, 생일, 본관, 태어난 곳이 우리 민족과 관련해서는 모두 빠져 있다. 이 부분이 복원되어야 제대로 된 민족의 역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사라진 민족의 이름

1998년도 판 『중학교 국사』까지는 “우리 민족의 이름이 한민족인데, 배달민족이라고도 불린다.”¹⁵⁾는 내용이 있었으나, 2008년 판에는 우리 민족의 명칭에 대한 설명은 없어지고, ‘한민족’이라는 단어가 2회만 나왔다가 현재의 교과서에서는 민족의 이름이 사라지고 ‘우리 민족’이라고만 부르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그래도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물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2010년 개정 때 ‘한국사’라는 말이 들어감), 『고등학교 한국사』라는 교과서 제목, 한복과 한식 등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많은 용어에 ‘한’을 쓰고 있음은 우리 민족의 이름이 ‘한’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 배달민족, 동이족, 조선족, 코리언 등의 용어들이 있고, 재야권에서 ‘동이족’이 우리 민족의 이름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필자는 우리 스스로 ‘동이족’이라고 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말을 그대로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많은 우리 민족의 이름과 내가 우리 민족의 이름을 ‘한민족’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소개한 필자의 논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나 오늘의 주제와 관계가 적으므로 생략한다.

15) 『중학교 국사』(상), 교육부, 1998. ‘배달민족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민족은...’(9쪽), ‘한민족의 기원과 선사문화’ ‘한민족의 기원’이라는 장·절에서 ‘우리 민족은 몽고인종에 속하는 한민족으로...’(15-16쪽)라고 기술하고 있었다.

(2)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민족의 생일(형성시기)

2012년에 발표된 교육부의 사회과 교육과정 한국사 부분과 고교 한국사 집필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선사 문화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을 파악한다.”라고 하여 선사시대와 민족형성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특히 집필기준에서는 “선사 시대에 민족 형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유의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신라의 삼국 통일로 우리 민족사의 기틀이 다져졌음을 이해한다.” “신라의 삼국 통일로 고구려·백제·신라의 문화가 통합 발전되면서 민족 문화의 바탕을 이룬 사실에 유의하라.”고 하였으며,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에서는 고려 시대에 “이민족과의 대립 속에서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음에 유의한다.”고 하여 민족 통합이나 민족 문화의 바탕, 민족정체성 확립 등의 용어와 시기에 대한 지침만 있고, 민족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교과서는 이런 지침을 벗어나지 못한 채 민족형성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침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육부가 민족형성 시기에 대한 논리를 정립하지 못하고,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윤내현과 신용하는 고조선 건국의 초기부터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하고, 북한에서는 ‘단군조선은 서기전 30세기 초에 건국되었고, 그 후 각종의 공통요소들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체의식이 형성됨으로써 서기전 30세기 말경에 조선민족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¹⁶⁾ 한영우, 이종욱 등은 고조선 중·후기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보면서 최종적으로 민족이 형성된 시기를 신라통일 때 시험, 고려 초기 완성(최남선), 신석기시대를 한국문화의 원점, 청동기시대를 한민족 및 한국문화의 진정한 출발점, 신라의 삼국통일로 단일 민족의식 대두, 고려 때 북방개척에 의해 한민족 형성의 최종적 단계에 도달(이기동), 세종대왕 때(손진태) 등으로 보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려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민족이나 국가가 형성된다는 데는 대부분의 동·서양 학자들이 공통적인데,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서기전 20~15세기로 편년해놓고 보니 청동기 시대에 건국되었다고 설명하는 고대조선의 건국연대(서기전 2333년)가 청동기 시대보다 앞서서 모순이 생기므로 민족의 형성을 청동기 시대 이후로 잡게 되는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16) 손영중, 「단군조선의 성립」, 단군학회 엮음, 『단군과 고조선연구』, 지식산업사, 2005, 281·283쪽 참조.

반면, 중국에서는 요하문명 유적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면서 홍산문화 만기(晩期)의 유적인 우하량(牛河梁) 유적지에서 서기전 3,500년까지 올라가는 대형 제단·여신모와 적석총군이 발굴되자 그 안내문에 「약 5500년 전 國家雛形(국가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들; all conditions to be state)을 갖추고 있는 우하량 홍산문화 유적지」라고 적어 놓고 있다(<그림 2>¹⁷⁾). 우리



<그림 2> 우하량 제2지점 제단유적지 전경과 안내문

리 조상들의 유적인 요하문명 유적과 유물들을 중국에 넘겨주어야 할 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앞 논문에서 청동기 시대를 ‘지역에 따라 서기전 40~24세기로 편년’하고 민족이 형성된 시기를 서기전 27세기경인 치우천왕 때로 보면서도, 앞으로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에 따라 더 올려잡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융통성을 두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조정이 필요하다.

(3) 민족의 범위도 불명확

개인이나 민족이 태어난 시기와 함께 태어난 장소도 그 민족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민족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과서에서는 고조선을 구성한 종족으로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웅족과 곰족, 호랑이족 정도만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한 후 북쪽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와 남쪽에 진한, 마한, 변한 등의 나라가 생겨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나라들이 ‘고조선에 속해 있던 고을나라였는데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지자 독립국가로 성장했다’고 설명을 한다면, 그런 여러 국가들의

17) 우실하, 위 책, 174쪽. 그림 하단의 글씨는 희미하여 보이도록 보완하여 삽입하였다

세력 범위를 민족의 지역적 범위로 이해할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고대 조선의 세력범위를 한반도 남쪽과 북쪽으로 더 넓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민족의 지역적 범위를 암시하는 지도가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다. 2008년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그림3>¹⁸⁾과 같은 고조선 세력범위 지도에 ‘동이족의 분포지역’이 녹색으로 그려져 있었다. ‘동이족’이 우리 민족의 이름이라는 설명은 없지만 고조선을 건국한 세력으로 보려는 뜻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남쪽 지역은 고조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동이족에는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동이족’을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본다면 우리 민족의 지역적 범위를 알 수 있는 지도였는데, 현재 교과서에서는 ‘동이족의 분포지역’은 없어지고, 한반도 남부가 포함되지 않은 ‘고조선 세력범위’ 지도가 그려져 있다. 한반도 남쪽 지방은 당연히 고조선의 세력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그림3> 고조선 세력범위

4) 겨레를 형성시킨 원동력 ‘겨레 얼’ 누락

필자는 민족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의식의 뿌리인 ‘공통적인 사유체계’, 즉 겨레 얼이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서는 물론, 대부분의 역사책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겨레 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은 없다. 민족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누락된 것이다. 반면,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조차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의 고조선 건국이야기’를 ‘단군신화’라고 부르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¹⁹⁾ 우리 민족혼을 말

18) 2008년판 교고 국사 33쪽의 그림이며 당시 초·중·고 전 교과서에 동일한 지도가 실렸었다.

살시키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 심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용어는 과거 교과서에서 사용하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없어졌었는데 2009년부터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그 배경이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단어다.

반면, 다수의 세계 석학들은 과거부터 우리 겨레가 가진 저력을 내다보고 있었다. 먼 옛날 공자가 ‘구이(九夷)에 도가 있으니 가서 살고 싶다’고 했고, 1920년대 초 타고르는 ‘언젠가 다시 켜질 동방의 등불’이라고 예견했으며, 1980년대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21세기 인류의 희망’이 될 것으로 보았다. 평화봉사단으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한국인 이상으로 한국을 사랑하게 되어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전 주한미상공회의소장 제프리 존스는 그의 저서 『나는 한국이 두렵다』(중앙 M&B, 2000)에서 ‘2025년이면 미국은 그때쯤이면 인터넷 세상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을 한국의 도전을 받고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과연 그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그런 예견들을 했을까? 우리 겨레에겐 평소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강의 기적’과 함께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미래 인류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1998년 IMF 조기 탈출에 기여한 금모으기, 월드컵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나와 질서 있게 응원했던 거리 응원, 서해안 오일 오염사태를 해결한 자원봉사단 등은 우리 겨레가 일단 신바람이 나면 엄청난 결집력과 역동성이 있음을 보여줬다. 역사적으로 봐도 조정이 무능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면 의병들이 나타나 나라를 건졌으며, 대를 이어 원수를 맺는 인접 중국의 문화와 달리 서로의 원(怨)을 맺지 않고 푸는 해원(解怨) 문화 등은 정(情)에 바탕을 둔 문화이며,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양궁과 활, 기능올림픽, 병아리감별사는 모두 감(感)이 뛰어나야 할 수 있다.

제프리 존스는 앞 책에서 ‘한국이 인터넷 세상의 주도국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인터넷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삭막하고 각박한 사이버 세상에 생명력인 훈훈한 인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김태수도 『마이크로 트렌드』(엔타임, 2010)에서 “경제의 파워가 개별 소비자가 결합된 집단에게 있는 마이크로 트렌드 시대에 우리는 개인 결속의 힘인 정(情)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계의 주도국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19) 2015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6쪽, 고등학교 한국사 26쪽에서 ‘단군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판 비상교육판 『고등학교 한국사』 20쪽에도 ‘단군신화’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감(感)과 정(情)이라는 '교감 에너지'가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바로 이것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민족의 저력이며, 이것이 무한경쟁으로 인해 1% 대 99%라는 극단적 양극화가 형성되어 몸살을 앓고 있는 인류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우리의 상고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겨레 얼은 우리 창세신화 속에 그 원형이 있고, 이것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만든 사화(史話)와 경전(經典)에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상고사에서 제대로 복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민족 저력의 뿌리 겨레 얼의 원형

요즘은 천체물리학을 통해 많이 증명이 되었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이 혼천의나 천상 열차분야지도 등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각각 다른 궤도를 따라 돌면서 한 치의 어긋림이 없이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어우러져 돌아가고 있기에 오늘의 이 세상이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욕심이 앞을 가려 이를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세계 어느 지역이나 민족도 알고 있고 벗어날 수 없는 자연의 이치다.

인류가 지구에서 500만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이런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각자의 생활환경에서 큰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지혜를 찾아내었을 것이다. 이렇게 찾아진 바른 지혜는 주변으로 전해져 부족이나 종족, 민족이 공통으로 갖게 되는 사유체계가 되고, 이것이 모범적 실천과 말로 전해져서 후손들도 그렇게 살면서 역사를 만들었을 것이며, 5,000년쯤 전에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면서 신화나 전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한 민족의 신화는 그 민족의 원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오랜 생활 체험에서 얻은 지혜를 축약시킨 것으로서 민족 형성과 역사 전개에 원동력이 되며 현재 살아가는 탭줄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민족 신화 속의 지혜를 겨레 얼의 원형으로 보고자 한다.

‘겨레의 얼’은 개인 정신이나 이것이 상호작용하는 총체 이상의 것으로, 민족에 내재하는 실체로서의 정신이며, 어떤 계기에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긴 선사시대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것이다. 이것이 ‘민족 원형문화’를 이루는 사유체계로서 민족의식을 발현시켜 민족을 형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이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외래문화나 사상과 접하면서도 근본 바탕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더욱 풍요로워지고, 민족의 언어·민요·풍속·도덕·법 등을 창조하는 원천이 되어 왔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민족 전통문화를 이어와 민족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겨레의 얼은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읽는 키-워드이고,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된다.

따라서 민족사에서는 선사시대의 ‘민족 원형문화’와 그 속에 들어 있는 사유체계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김효신이 말하듯이 ‘우리다운 얼’이 아닌 ‘우리 얼’이기 때문이다.²⁰⁾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고유의 원형문화와 ‘우리의 얼’을 찾는 데 소홀하여 우리나라 등록 문화재의 대부분을 우리 원형문화가 아니라 ‘우리다운 얼’이 들어있는 우리 문화화된 외래문화인 유교·불교·도교 문화재가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고유의 사유체계를 밝히는 한철학이 철학계에서 이단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1) 민족 창세신화 속의 겨레 얼

신화학자들은 “신화는 선인(先人)들이 후손에게 물려준 무형의 재산이며, 한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정신문화이다. 이 중에서 고대인의 원시 사유를 가장 강렬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신화(創世神話)다.”²¹⁾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창세신화는 우리 민족정신의 원형을 담고 있으므로 겨레 얼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다.

창세신화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그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로서 우주를 포함한 세계, 인간, 사물이 생겨나는 과정이 그 주요내용이다. 그런데, 우

20) 김효신, 『上古研究資料集』, 도서출판 새남, 1992, XXXI ; “나는 일찍이 ‘우리의 얼과 우리다운 얼(한국사상과 한국적 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인도의 불교사상과, 중국의 유·도교 사상과, 요즘에는 일본의 신도사상 등이 들어와 ‘토착된 얼’(한국화된 외래 사상-논자)과 다른 하나는 겨레에 말려 오롯하게 우리 말에 말려오는 ‘우리의 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21) 서유원, 『중국 창세신화』, 아세아문화사, 1998, 7-9쪽의 내용 요약.

리 민족의 창세신화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환단고기』와 『규원사화』, 『부도지』 등에 몇 종류의 창세신화가 나오지만, 제도권 사학계에서 이 책들이 위서라고 시비를 걸고 있으므로 신화학자들도 무가(巫歌)와 구전에서 우리 민족의 창세신화를 찾고 있다. 그러나 박제상이 지은 『부도지』에 나오는 ‘올려가 음상(音像)이 되고 음상이 기화수토(氣火水土) 네 원소와 어우러져 만물이 생겨났다’는 창세신화는 신화소²²⁾가 풍부하고 성경의 창세기와 대비되면서 우리 민족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선천의 시대에는 햇볕만이 따뜻하게 내려 쪼일 뿐 눈에 보이는 물체라고는 없었다. 후천의 운이 열렸다. 올려(律呂)가 다시 부활하여 성(聲)과 음(音)이 섞인 음상(音像)을 이루었다. 마고가 실달대성을 끌어당겨 천수의 지역에 떨어뜨리자 여기서 나온 기(氣), 화(火), 수(水), 토(土)가 빛과 서로 어우러져 낮과 밤, 사계절을 구분하고, 초목금수를 살찌게 길러내니 온 땅에 할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네 천인과 천녀가 만물의 본음(本音)을 나눠서 관장하니 토를 맡은 자는 황(黃), 수를 맡은 자는 청(靑)이 되어 각각 궁(穹)을 만들어 직책을 수호하였으며, 기(氣)를 맡은 자는 백(白), 화(火)를 맡은 자는 흑(黑)이 되어 각각 소(巢)를 만들어 직책을 지키면서 상호 작용하여 우주가 어긋남이 없이 돌아갔다.

그러나 향상을 다스리지 못해 수명이 조절되지 못하였으므로 마고가 네 천인과 천녀에게 명하여 겨드랑이를 열어 출산을 하게 하니 네 천인과 천녀가 결혼하여 각각 3남 3녀를 낳았다. 이 12남 12녀가 지상 인류의 시조가 되어 향상을 관리하니 역수가 조절되었다. 성중의 모든 사람은 품성이 순정하여 능히 조화(造化)를 알고, 지유(地乳)를 마시므로 혈기가 밝았다. 귀에는 오금(烏金)이 있어 천음을 모두 듣고 내왕이 자재하게 땅기운 중에 퍼져 살면서 그 수명이 한이 없었다. 이들이 지유가 아닌 포도를 먹은 ‘오미(五味)의 변’²³⁾ 이후 자재율(自在律)²⁴⁾이 깨어지면서 지상낙원인 마고성이 없어지고, 사

22) 김현선은 그의 앞 책 『한국의 창세신화』에서 창세신화의 신화소로서 천지개벽, 창세신의 거신적 성격, 물과 불의 근본, 인간창조, 인세차지 경쟁, 일월 조정, 천부지모의 결합과 시조의 출생 등으로 치고 있다.

23) 마고성의 사람들은 유천(乳泉)에서 나오는 지유를 먹고 살았는데, 백소씨 계통의 지소씨라는 사람이 지유를 마시려고 유천에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 마시지 못하기를 다섯 차례나 하고 나서 배가 고파 어지러워서 쓰러졌다. 귀로 희미한 소리를 듣고 집의 난간 넝쿨에 달린 오미(포도)를 맛보았다. 그리고 나서 지소가 “넓고도 크구나 천지여! 그러나 내 기운이 이를 능가한다. 이 어찌 도(道)인가! 포도의 힘이로다.”라는 포도가를 불렀다. 사람들이 의심을 하다가 포도를 따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포도의 다섯 가지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은 번잡하고 사사로운 욕망과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를 ‘오미의 변’이라 한다.(부도지 내용 중에서)

람들은 천성(天性)을 상실했으며, 수명이 감소되었다. 그 이후 사방으로 흩어져 살면서 수련을 통해 이를 복원하려는 노력(復本)을 계속하게 되었다.²⁵⁾

여기서 선천의 시대에 햇벌만이 내려쬐었다는 것은 「삼성기」나 『규원사화』의 창세신화와도 같은 내용으로 성경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의 흑암 상태’와 반대되는 태초의 ‘밝음’을 상징한다. 우리 겨레의 이름을 ‘한’이라고 할 때의 ‘한’이 밝음(원 태양)을 의미하는 우리 옛말이라는 주장²⁶⁾과 같은 맥락이다. 8여의 음만 있을 때는 형상이 없다가 울과 어우러져 음상이 생기고 음상과 빛과 기화수토 네 요소가 어우러져 만물이 생긴다는 내용은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론이 아닌 여러 요소가 어우러져 만물이 생성된다는 조화론으로서 ‘어울림’을 기본으로 한다. 수련을 통해 원래 마고성에 있을 때와 같은 신성(神性·天性)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수증복본(修證復本) 사상은 단군사화에서 꿈이 웅녀가 되고, 환웅과 단군이 신선이 된다는 내용처럼 천지인 합일(天地人合一·神人合一) 사상과 연결되는 ‘큰 어울림’ 사상이다. 따라서 이것을 너와 나를 경쟁의 관계로 보는 서양 사상과 달리 ‘우리’로 어우러져야 함을 강조하는 겨레 얼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족 신화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창세신화는 우리 상고사에서 가장 먼저 복원시켜야 할 대상이다.

2) 단군사화 속의 겨레 얼

우리 민족 대부분이 알고 있고 있으므로 내용 소개는 생략하지만, 『삼국유사』의 ‘환국의 환웅이 무리 3,000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 꿈이 변하여 사람이 된 꿈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고, 그가 조선을 건국하였다’는 단군사화²⁷⁾에도 우리 겨레의 얼이 상징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24) 어떤 구속이나 강제 없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율법. 즉 금지하지 아니하되 스스로 금지하는 율법. 내 속에 작용하고 있던 자연의 원리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25) 박제상 저, 김은수 석해, 『부도지』, 기린원, 1989, 1-8장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김은수는 이 부분을 성경 창세기의 원형으로 보았다.

26) 박 현, 「하라와 배달겨레」, 『월간 한배달』 창간호, 사단법인 한배달, 2000, 27-29쪽.

27) 일연, 『삼국유사』 기이편, 고조선(왕검조선)조. ‘昔有桓國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白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遺往理之…後環隱於阿斯達 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란 내용으로 우리 겨레면 누구나 잘 알고 있으므로 본문은 생략한다.

첫째, 전체적인 구도에서 하늘 사람인 환웅과 땅을 상징하는 곰, 그 사이에서 탄생하는 사람을 하나의 세계로 연결시킴으로써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천지인(天地人)이 매우 현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둘째, 환인이 인간세상을 탐내는 환웅에게 ‘홍익인간 할 만한(可以弘益人間)’ 삼위태백으로 내려 보낸다. 이는 천지인 중에서도 사람을 특히 중시한 인본사상이며, 인간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사유체계를 ‘홍익인간(弘益人間)’²⁸⁾이라 요약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환웅이 세상의 지도자로 올 때 천부인(天符印) 3개를 받아서 온다. 여기서 ‘천부(天符)는 하늘기호이고, 천부인은 이 하늘기호를 도장으로 새겨 지도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징표로 사용했던 것이며, 천부경(天符經)은 이 하늘기호를 설명하는 글’이라는 권영준의 해석²⁹⁾에서 천부경과의 연결성 및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넷째는 환웅이 재세이화(在世理化)했다는 데서는 현실적인 인간세상에서의 실천의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재세이화의 해석에 대해서도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와 같은 현실 중시 사상에 대해 정용선은 ‘지상을 하늘에서 추방당하는 곳이 아니라 하늘 사람인 환웅도 탐을 내었고 결국 지상에 내려와서 살았을 정도로 지상을 천상(天上)처럼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곳’으로 보는 현실주의로 해석했고,³⁰⁾ 윤내현도 “인간세상을 하느님의 아들이 탐낼 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보았고, 내세(來世)가 아닌 현세에 천국이나 극락과 같은 지상낙원을 꾸며 신과 사람이 공존·공영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였다.”³¹⁾고 하는 해석에서 현실 인간 세계에서의 실천을 중시하는 우리 겨레 얼의 한 가닥을 찾을 수 있었다.

(1) ‘홍익인간’의 새로운 해석

초·중·고 모든 역사 교과서에서 『삼국유사』의 단군사화를 근거로 ‘고조선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내세웠다’고 하여 홍익인간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모든 사전적 의미도 같다. 그런데

28) 교과서에서까지 『삼국유사』를 처음으로 해석한 이병도의 해석에 따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보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 본다.

29) 권영준 편저, 『우리말천부경과 부도지』, 원저 최치원/박제상, 하늘기호, 2012, 19쪽 등 여러 곳.

30) 정용선, 『한국의 사상』, 한샘출판사, 1994, 13-21쪽. 최동환도 자연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을 이화라고 했다(최동환, 『천부경』, 지혜의 나무, 2008, 323-324쪽).

31) 윤내현,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5, 717쪽.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면 단군이 아닌 환웅의 건국이념이다. 그리고 그 의미가 당시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 일본식 해석이라는 지적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김영돈은 “현재 弘-넓게(廣), 益-이로움(利)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어식 풀이로 우리의 어감이 아니다. 옥편에서 弘과 益을 찾아보면 ‘광-넓다, 利-이롭다’의 뜻은 없고 ‘弘-大(크다), 益-助(돕다)’의 뜻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한일 어의(語義)를 비교한 <표2>를 만들고, 홍익인간을 ‘너와 나 뿐만 아니라 그 작용이 제3자인 그에게도 가리지 않고 크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인간사를 말한다.’고 해석했다.³²⁾

| 구분 | 弘 | 益 |
|-----|------|--|
| 우리말 | 大-크다 | 助-돕다, 饒-넉넉하다, 多-많다. 溢-넘치다, 增-더하다, 進-나가다 |
| 일본어 | 廣-넓다 | 利-이롭다 利益=이익 有益-유익 增益-증익 |

<표2> ‘弘益’의 한일 간 어의(語義) 비교(248쪽)

그러나 실제 옥편을 찾아보니 益자에서는 ‘크다’는 뜻이 가장 먼저 나왔으며, 2~3번째에 돕는다는 의미가 나온다. 그리고 인간(人間)을 인간사로만 해석한 한계가 있다.

설중환은 『다시 읽는 단군신화』에서 “사학자 이병도 교수의 『삼국유사』 번역을 따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알려졌다.”³³⁾고 하여, 기존의 해석이 일본식 해석이라는 데 동의했다.

현재 교육기본법 2조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일본식 어의로 해석되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우리나라 한한사전 몇 개를 찾아보았더니 대략 아래와 같았다.

• 홍(弘)

- 클 홍(大也), 크게 할 홍(大之) - 장삼식 편, 『大漢韓辭典』, 집문당, 1983.
- 클 홍 - 『한한 최신대옥편』, 쌍룡문화사, 1983.
- 클 홍(大也) - 『최신강희옥편』, 창원출판사, 1987.

32) 김영돈, 『고조선과 홍익인간』, 보경문화사, 2000, 98·247~268쪽.

33) 설중환, 『다시 읽는 단군신화』, 정신세계사, 2009.

- 클 흥 ; 크다, 넓다, 넓히다, 높다, 널리
 - 네이버 한자사전(<http://hanja.naver.com>)
- 넓을 흥 ; 넓다, 크다, 활소리
 - 전자사전(<http://www.toegye.ne.kr>)

• 익(益)

- 더할 익(增加), 나아갈 익(進也), 많을 익(多也), 넘칠 익(盈溢) - 『大漢韓辭典』
- 더할 익, 나아갈 익, 많을 익, 넉넉할 익, 넘칠 익 - 『한한 최신대옥편』
- 더할 익(增也), 도울 익, 나갈 익, 많을 익 - 『최신강희옥편』
- 더할 익 ; 더하다, 보탬, 보람, 이득, 넉넉하다 등 11어의 - 전자사전
- 더할 익 ; 더하다, 이롭다, 돕다, 많다...이익 등 9개 어의 - 한자사전

※ 여기서 인(人)과 간(間)은 사람 인, 사이 간이라는 데 별 이의가 없으며, 한문에서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人)’이라는 한 글자로 표시한다는 것이 한학자들의 귀뜸이다.

우리나라 사전에 가장 앞에 나오는 뜻으로 흥익인간을 해석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크게 더한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 ‘더한다’는 말은 ‘기존의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한다’는 의미와 씨족에서 부족이 되듯이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튼다’는 뜻이 포함된다. 매우 간략하면서 인구팽창으로 새로운 땅을 개척하러 가는 환웅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땅이 넓고 기름져서 좁은 현재의 땅에서처럼 서로 다투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함께 가는 3,000무리 간에는 물론, 더 많은 사람과 만나더라도 싸우지 말고 하나로 어울리라는 ‘어울림=화합’을 강조한 가르침으로서 창세신화에서 본 겨레 얼과도 큰 뜻이 같으므로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2) ‘재세이화(在世理化)’의 새로운 해석

재세이화(在世理化)는 일반적으로 ‘환웅이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흥익인간 할 만하므로(可以弘益人間) 삼위태백으로 내려 보냈으며, 환웅이 풍백

·우사·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와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재세이화 했다(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고 하는 문맥에서 보면, 한문에 능통하지 못한 내가 봐도 ‘在世의 世는 理化의 목적어가 아니므로 기존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화세계라고 하면 그 해석이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인이 내려 보낼 때 언급한 홍익인간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고대 한문은 중국식 관념적 해석이 아닌 우리식 한문해석법인 사실문(=직설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광개토태왕비문 연구가 김덕중의 지적³⁴⁾도 일리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인간 세상에 살면서(在世) 이치대로 되도록 했다(理化)’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이(理)는 바로 환인의 가르침인 ‘홍익인간’으로서, 환인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실천했다’는 의미가 되므로 앞 문장과도 무리 없이 연결되며, 앞에서 살펴본 현실중시 사상과도 연결된다.

3) 천부경³⁵⁾의 대의(大義)로 본 겨레 일

천부경은 환인시대부터 체천행사 후 등 백성들이 모일 때 임금의 강론을 했다³⁶⁾고 전해지는 내용으로서 말로 전해져 내려오다가(口傳之書) 환웅 때 녹도문으로 기록이 되었고,³⁷⁾ ‘단군 때 전자로 비석에 새겼는데³⁸⁾ 이 글이 어려워 읽지 못하던 중’, 신라의 최치원이 한문으로 갱부작첩(更復作帖)³⁹⁾하였다고 전해지는 것이 서글[한문]⁴⁰⁾ 81자 최

34) 김덕중, 『130년 만에 풀린 비밀 태왕의 꿈』, 덕산서원, 2014. 참조.

35) 천부경(天符經)은 민족학자들 사이에는 ‘민족경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우주의 원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경전이다. 진위 여부 논란이 끝나지 않아 주류 국사학자들에게 널리 연구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환단고기』 『단기고사』 『문헌비보』(정조 때 간행된 삼성사 제문) 『격암유록』 『영변지』 등에 천부경 혹은 천경(天經)이라는 이름의 기록이 보인다. ‘천부경(天符經)은 천부라는 하늘기호를 도장으로 새긴 천부인을 설명하는 글’이라는 권영준의 해석(권영준의 앞 책 참조)도 참고가 되며, 창세신화나 단군사화의 홍익인간 이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취급한다.

36) 환웅천왕께서 개천하시고, 무리를 거두심에 전을 세워 계를 지키게 하고, 천경과 신고로 교화하셨다... 46년(서기전 1846) 3월에 산의 남쪽에서 술과 음식을 갖추어 삼신에게 제사 올리고, 그날 밤 특별히 널리 술을 하사하시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술잔을 돌려가며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재주들을 관람하셨다. 이 자리가 끝나자 마침내 누각에 오르셔서 천부경에 대해서 논하시고 삼일신고를 강연하셨다. 오가를 돌아보고 ‘이제부터 살생을 금하고 잡은 것은 놓아주며, 옥문을 열고, 거지에게 밥을 주고, 사형을 없애라’아니 나라 안팎에서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환단고기』 「단군세기」 11세 단군)

37) “천부경은 천체환인이 다스린 한국으로부터 말로 전해진 글이다. 환웅천왕이 개천 후 신지 혁덕에게 명해 녹도문으로 적게 했고, 고운 최치원이 또한 일찍이 신지 전자로 된 고비를 보고 다시 서첩(更復作帖)을 만들어서 세상에 전한 것이다.”(『환단고기』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

38) 『고운선생문집』 「단전요의」에는 “태백산에 단군전비가 있다. 어렵고 읽기 힘들었다. 고운이 그것을 번역하였으니 그 문에 이르기를...”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 근거하여 단군 때 새겼다고 했다.

39) 이 말에 대해 『고운선생 문집』에서는 ‘번역을 하여’라고 기술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여’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한자 그대로 ‘고쳐서 다시 첩으로 만들었다’는 말 속에는 ‘해석을 했거나 번역을 했다’는 의미는 없으므로 그대로 표현했다.

치원 천부경이다. 말 천부경-녹도문자 천부경-전자(篆字) 천부경-서글 천부경으로 이어져온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81자의 서글 천부경만을 알고 있으나, 최근 민간학자들에 의해 말·전자(篆字) 천부경에 대해서도 제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 권의 책도 나와 있다. 그리고 81자의 서글 천부경 속에는 숫자가 31자⁴¹⁾가 들어 있으므로 숫자가 천부경 해석의 핵심요소라는 데 대해서는 모두 공감한다. 또 오랜 기간 말로 전해져 왔다는 점에서 1(또는 0)부터 10까지의 이 숫자가 단순히 순서나 크기를 나타내는 수학적 수(數)가 아니라 우리 셈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로 보아야 하며, 그 우리 셈말이 갖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데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 셈말의 우리말 의미에 대한 통일된 해석은 나오지 않았다. <표2>는 그간 사단법인 한배달에서 몇 차례 토의를 거치면서 연구된 말·전자 천부경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그림4>는 「태백일사」에 나오는 서글 천부경이다.

| 전자(篆字) 천부경 | | | 말천부경 |
|-------------|-----|-----|------|
| 김현배 무한진인 | 이현숙 | 구길수 | |
| ㄱ | ㄱ | ㄱ | 하나 |
| ㄴ | ㄴ | ㄴ | 둘 |
| ㄷ | ㄷ | ㄷ | 셋 |
| ㄹ | ㄹ | ㄹ | 넷 |
| ㅁ | ㅁ | ㅁ | 다섯 |
| ㅂ | ㅂ | ㅂ | 여섯 |
| ㅅ | ㅅ | ㅅ | 일곱 |
| ㅇ | ㅇ | ㅇ | 여덟 |
| ㅈ | ㅈ | ㅈ | 아홉 |
| ㅊ | ㅊ | ㅊ | 열 |

<표2> 말 천부경과 전자 천부경

一始無始一析三極無
 盡本天一一地一二人
 一三一積十鉅無匪伏
 三天二三地二三人二
 三大三合六生七八九
 運三四成環五七一妙
 衍萬往萬來用變不動
 本本心本太陽昂明人
 中天地一一終無終一

<그림4> 최치원의 81자 서글 천부경

40) 일반적으로 한자라 하여 한나라 때의 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한나라 허신의 『설문해자』에는 한자라는 말이 없고 자신이 쓴 글을 '서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필자는 이렇게 쓰는 게 옳다고 본다.

41) 一始無始一의 '無'를 '0'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경우 32자가 된다.

그러다보니 세 가지 천부경 모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을 뿐 통일된 해석은 아직 없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당시의 인구 팽창 상황과 천부경 강론 상황을 고려해보면 대의(大義)는 짐작이 간다. 빙하기가 끝나고 오랜 기간의 기온 상승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 식량 부족으로 인한 충돌이 빈번해지면서 마을사회에서 고을 나라로 사회조직이 확대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무리를 데리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환웅이 백성 교화에 사용했고, 제사 지내고 단합의 수단인 술을 나누어 마신 후 강론을 했으며, 그런 후 오가(五加)에게 지시한 말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늘(또는 자연)의 이치라는 의미가 담겼으므로 단군사화의 ‘홍익인간 재세이화’라는 이념과도 통해야 한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필자는 천부경의 큰 의미를 “하늘의 이치대로 ‘서로 싸우지 말고 한 덩어리로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는 ‘큰 하나 됨’, 즉 집단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화합을 강조한 가르침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정보가 최근 인터넷에 나돌고 있어 소개한다. 1960 년대에 당시 서울대 박종홍 철학 교수의 고백이라는 문성철 한국전통사상연구원장의 증언으로, 하이데거가 천부경을 ‘평화적 통치 이념’으로 본 점 때문이다.

박종홍 교수가 어느 날 전주에서 강의할 때, 부끄러운 자기고백을 한 적이 있었다. 서울대의 철학과 교수라고 어깨에 힘주고 프랑스에 간 적이 있었다. 세계적인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이 분을 초대했단다.

세계적인 석학 하이데거는 프랑스를 방문한 서울대 철학과의 박종홍교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융숭하게 접대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왜 초청했는지 아느냐? 바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유명해진 이유는 동양의 無사상 때문인데, 동양학을 공부하던 중 아시아의 문명발상지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평화적 정치로 대륙을 통치한 조선이 있었음도 알았다. 나는 동양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인을 존경한다. 그런데 아직 한배검님의 천부경은 이해할 수 없으니 설명해 달라’면서 천부경을 펼쳐놓았다. 한국의 유명한 서울대 철학교수이니 당연히 천부경 철학을 알고 있으려니 했던 것이다.

박종홍 교수는 ‘부끄럽지만 당시 천부경이나 단군조선이 2,000년 이상 대륙을 통치했다는 역사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답을 하지 못했다.’고 어느 강연장에서 실토했다.⁴²⁾

박종홍 교수가 학자적 양심으로 이런 내용을 고백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 이후 천부경에 대해 연구한 흔적이 알려지지 않은 점은 좀 아쉽다. 그러나 하이데거라는 세계적인 석학의 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우리 자신들이 새겨들어야 할 매우 귀한 메시지다.

첫째는 고대조선이 긴 기간 동안 무력이 아닌 평화적 정치로 대륙을 통치한 역사를 독일인 하이데거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이 아닌 우리를 동양사상의 종주국이라고 말한 것이다.

셋째, 세계역사상 가장 평화적 정치로 장기간 대륙을 통치한 고대 조선의 정치 이념이 천부경에 있을 것이며 그런 이념이 미래 인류사회에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본 점이다.

당시에 하이데거가 천부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무한경쟁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평화적 통치이념’이었다고 이해했다는 점은 내가 생각하는 천부경의 대의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최재충이 “천부경의 재정립과 체계화는 그 내용성으로 미루어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과제임과 아울러 온 지구촌 가족에게 인식되어야 할 평화와 화합의 새 원리로서 뚜렷이 제시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⁴²⁾고 천부경이 ‘평화와 화합의 원리’임을 설파한 내용도 필자의 분석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루라도 빨리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천부경의 해석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4. 우리 역사·문화 속에서 확인되는 겨레 얼

이러한 원형을 가진 겨레 얼인 ‘어울림 이치’는 기록된 역사 속의 제도와 전통문화 속에 실재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 속에서도 찾아져야 겨레 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 논문과 줄거 『겨레의 얼을 찾아서』(백암,

42) 문성철 한국전통사상연구원장 증언(<http://m.blog.daum.net/younghwun/109>, <http://ebookflash.co.kr/012360main/chunbookyungsogea16.htm> 등).

43) 최재충, 『천부경, 민족의 뿌리』, 한민족, 1985, 18~19쪽.

2007), 『너와 내가 어우러져 우리가 되는 세상』(백암,2012)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오늘 발표의 주제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소개한다.

(1) 화합잔치로서의 제사

우리 교과서에는 예외 없이 제천행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나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이 너무 빈약하다. 비상교육 편 중학교 역사1 교과서에 ‘부여의 영고, 고구려 동맹, 동예의 무천과 삼한 등에서 제천행사를 열어 풍요를 기원하고 추수에 감사하였다’고 했고,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어 국가의 단합을 도모하였다’ ‘고대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를 발견하고 여기에 순응하는 공동체 질서 속에서 집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 추수감사제인 제천행사였다’고 했을 뿐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그 취지의 설명이 없다.

제천행사는 모든 제사의 뿌리로서 이것이 지역으로 내려와서는 요즈음도 지방별 축제가 많듯이 지방의 특성을 살린 동제(洞祭)가 되고, 가정에서는 친인척들의 화합잔치인 조상에 대한 제사가 된다. 그 화합의 방법이 음주가무였음은 수많은 기록에 보인다. 그것이 요즘 세계를 휩쓰는 한류의 중심에 있는 춤과 노래를 합친 K-POP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경쟁으로 지친 세계인들에게 ‘큰 하나 됨’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다.

(2) 화백제도

현재의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온 것을 4.19 때로 본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만 민주주의로 보고, 우리의 얼을 내팽개치는 전형적 태도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의결을 하므로 심한 대결구도를 만들어 결국 극단적 양극화를 만들어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화백제도는 양극화를 만들지 않는 미래형 민주주의다.

지금까지 알려진 화백제도는 『당서(唐書)』나 『수서(隋書)』 「신라전(新羅傳)」의 기록에 나타나듯이 지역 또는 부족의 대표자 회의라는 뜻(和伯)과 전원일치제의 의결제도(和白)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⁴⁴⁾ 사실은 이보다 앞서 환웅 시절에는 ‘한 사람도

44) 『隋書』 「新羅傳」 : 共有大事 則聚群官 詳議而完之(큰일이 있을 때 여러 관리를 모아 상세히 토의하여 마무리했다); 『唐書』 「新羅傳」 : 事必與衆議 號和白一人異則罷(필히 여러 의견을 모아 처리하는 것을 화백이라 하고,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가결하지 못했다). ; 이 화백의 원칙은 귀족 뿐 아니라 신라 전 사회에 널리 행하였

섭섭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전수결을 이끌어내는 회의방법'으로서의 화백제도가 있었다. 이를 처음 발견하여 '환단화백'이라 부른 사람은 김영돈인데⁴⁵⁾ 박상림은 이를 체계화하여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안건의 도출과 적용의 결정 과정에서 모든 민의를 일치시키는 방법을 찾아가며 한 사람도 섭섭하고 답답하게 하지 않기 위해(一無憾且 佛異者⁴⁶⁾) 여러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형식으로서의 화백(衆議一歸 爲和白⁴⁷⁾)제도로, 안건채택주의가 아니라 안건에 대한 이견(異見)이 있다하더라도, 안건토의 진행방법과 요령을 도출하여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회의방식'이라면서 '한단화백' 또는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홍익화백'이라 불렀다.⁴⁸⁾

(3) 풍류도

많이 알려진 대로 최치원은 『삼국사기』 「난랑비서(鸞郎碑序)」에서 풍류도를 '현묘지도(玄妙之道)'라고 하여 유·불·도 삼교(三敎)를 포함하고 있지만 삼교의 교리 이상의 무엇, 종교 차원을 초월한 사상적 현묘함과 위대성을 지닌, 우리의 '독자적인' 고유 사상이라 했다.

그 실천인 화랑들의 가장 중요한 수련 방법이 ①서로 도의를 닦고(相磨以道義), ②서로 노래와 음악을 즐기며(相悅以歌樂), ③명산과 대천을 찾아 즐기는(遊娛山水 無遠不至) 것⁴⁹⁾이라고 했으니 도의와 즐거움과 자연의 원리가 하나임을 저절로 깨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요즘 인성을 교육하려는 의식과 차원을 달리하는 깨달음의 수련법이었던 것이다.

김형효는 풍류도와 화랑도를 낭가사상(朗家思想)이라면서 '문(文)과 무(武)의 묘합, 성(聖)과 속(俗)의 회통, 도덕성과 유희성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신바람 기질과 중정의 정신이 그 이념'⁵⁰⁾이라고 주장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민족의 '역동적 단결력'이 신바람 기질에서 나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극단적 폭력시위도 뿌리가 신바람 기질에 있으나 풍류도를 통해 이를 중화시킨다고 하여 화합의 원리로서의 중정사상을 찾아냈다.

고, 각 계 각 층의 독재력의 발생을 억제하여 신라 국가의 완전성을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다(柳洪烈 감수, 『國史大事典』, 교육도서, 1989. 1607쪽 참조).

45) 김영돈, 앞 책, 252~253쪽.

46) 『桓檀古記』 태백일사2 桓國本紀 환인 말기.

47) 『桓檀古記』 三聖記全下篇 환웅천왕.

48) 박상림, 『홍익화백제 통일론』, 이화문화출판사, 2009, 273~274쪽.

49)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진흥왕조.

50) 김형효, 『한국정신사의 현대적 인식』, 고려원, 1985, 175~188쪽.

(4) 훈민정음

필자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취지에 들어 있는 민주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당시 문맹율이 95% 이상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서글을 아는 5%가 모르는 95%를 쉽게 지배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어린’ 백성들이 뜻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니 많은 조정대신들이 백성들이 현명해지면 다스리기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여 반대를 했던 것이다.

그 글자를 만드는 원리도 “·는 하늘, —는 땅, |는 사람을 본뜬 것…형상을 하늘과 땅과 사람에서 취하니 삼재의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取象於天地人而三才之道備矣). …가운뎃소리 속에 또한 스스로 음양과 오행의 방위의 수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是則中聲之中亦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⁵¹⁾라고 하여 삼재론과 음양의 원리를 사용하여 모음의 위치와 방위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때까지 천부경 내용이 전해졌고 그 원리에 따라 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우 귀한 대목이다. 그러나 한글⁵²⁾로 쫓그라들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많은 한글 학자들이 그 속에 포함된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연구도 하지 않아 세계 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5) ‘한국’ 불교·유교·도교 속의 겨레 얼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도 유교·불교·도교 등 외래의 사상과 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한국화·토착화하여 왔다. 외래의 것이 ‘우리다운 것’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작용하는 요소, 즉 본디부터 ‘우리의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상사에서는 외래 사상은 취급하면서도 이것들을 ‘우리다운 사상’으로 만드는 민족 전통문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본디 ‘우리의 사상’은 없다.⁵³⁾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등록 문화재에도 본디 우리 문화재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불교, 유교 등 외래의 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국민들도 정작 그 이전부터 있던 우리 고유의 문화나 사상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51) 『훈민정음』, 19~25쪽(반재원, 『한글창제원리와 옛글자 살려쓰기』, 도서출판 역락, 2007, 훈민정음 영인본에서)

52) 필자는 훈민정음과 한글은 다르다고 본다. 한글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훈민정음을 많이 훼손하여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53) 유명종의 『한국사상사』(이문출판사, 1983) 목차만 봐도 ‘우리 사상’은 없고 ‘우리다운’ 사상만 나열되어 있다. 박동환은 한겨레신문의 <한국인문학의 쟁점 10>(1996년 12월 31일자 15쪽)에서 ‘한국적인 것’이라는 글을 통해, 세계철학을 서양철학과 중국철학으로 구분하고, “중국철학의 논리와 다르지 않는 우리나라는 고유한 ‘철학사가 없는 민족’”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무식이 우리의 현 실상이다.

한국 불교가 대중 불교(대승불교), 호국불교, 현실정도불교가 된 것은 인도나 중국과 다르며, 이기 일원론도 묘합의 이치를 가진 우리 겨레의 작품이다. 풍류도에서 본 ‘삼교 이상의 무엇’이 우리의 겨레 얼로서 외래 사상을 우리다운 사상으로 만든 작용한 셈이다.

(5) 살아있는 통합 우주, 밥상⁵⁴⁾

서양이나 중국 음식은 한 가지씩 차례로 나오는 코스식으로서 하나의 상황에 하나의 원리만을 인정하는 그들의 철학과 깊은 관계가 있다. 반면, 우리의 밥상은 한꺼번에 밥과 국과 반찬이 모두 갖추어진다. 그리고 그 밥상 위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의 전체가 될 때 비로소 밥상이 의미를 갖게 된다. 성질이 다른 여러 먹거리들이 조화와 통합을 이룬 ‘전체’의 개념이 우리의 밥상인 것이다.

이런 밥상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다. 서구식 밥상이 마른 것과 젖은 것을 함께 놓지 않고, 서로 보완해서 가치를 나타내기보다는 하나하나가 각각 독립적인 식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서구의 밥상은 독립적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증오와 대립과 갈등을 가져오는 사고의 틀에 바탕한 것이지만, 한국의 밥상에서는 이를 생명력과 평화로 전환시켜 전체가 어우러져 식사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밥상의 원리는 큰 하나로 어우러지는 겨레 얼이 그대로 체화(體化)된 우주 통합의 현장인 것이다.

(6) ‘병이 없는’ 민족생활의학⁵⁵⁾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므로 인체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능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은 자연유기체로서 체액은 pH 7.2~7.4의 약 알칼리성, 체온은 36.5°C 내외가 되도록 복잡하게 얽힌 세포가 질서정연하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빈틈없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불필요한 욕심이나 스트레스, 지나치게 오염된 음식 등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이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 몸은 이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된다. 세균에 감염된 음식이나 독성물질이 식도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올 경우 우리 몸은 이를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구토나 설사를 하고,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이를 무력화시키고 백혈구의 활동력

54)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한 사람이 많지 않아 자료 찾기가 어려웠다. 최동환의 『한사상과 다이내믹 코리아』(지혜의 나무, 2006) 125-145쪽의 내용을 논자의 생각에 따라 요약하였다.

55) 장두석의 『민족생활의학』(정신세계사, 1994)의 내용을 논자 생각을 가미하면서 요약 정리하였다.

을 강화하기 위해 몸에 열을 내게 된다. 이런 증상은 병이 아니라 탈을 바로 잡기 위해 몸이 자연치유력을 발동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수많은 우리 민방들이 그런 원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경험자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행위들을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의사들만 할 수 있게 한 현 의료법 때문에 우리의 우수한 문화가 죽어가고 있다. 민족의학이 활성화되면 세계적 저비용 건강법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 의료법부터 고쳐야 한다.

(7) ‘리더’와 다른 ‘어른’ 문화

사람은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럿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적 동물이다. 개인이 모여 사회가 되고, 마을이나 고을이 모여 국가가 되며, 씨족이나 종족이 모여 민족이 되면 이를 지도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가 된다. 서구에서는 지도자를 leader, emperor, king라고 하여 한결같이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이끈다.’는 의미가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CEO라는 말이 일반화되고, 지도자를 리더(leader), 통솔력을 리더십(leader-ship)이라고 하지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지도자를 ‘어른’이라고 했다. ‘어른’이라는 말에는 법적인 뒷받침보다 어울리기와 어우르기를 잘해야 하는, ‘어우르는’ 행위 자체를 중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의 ‘어른’ 문화는 서양의 리더(leader)나 통치자의 개념과는 크게 다른, ‘큰 하나’로 어우르는 것을 중시하는 우리 겨레 얼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화다. ‘어른 문화’는 경쟁과 투쟁의 논리와 다수결이라는 서구식 민주적 투표방식으로 생겨나는 지역·집단 간의 대립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미래지향적인 철학과 방법을 담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를 현대화하여 세계에 내어놓기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8) 현대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적 지혜

최근 우리 과학에 대한 연구가 조금 활발해지면서 세계 최고의 고대 과학기술로서 다뉴세문경의 나노 기술이나 세계 최장의 목조 다리 및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 등의 과학적 증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한복 바지는 세계의 어떤 민족도 만들지 못한 4차원 초공간을 ‘클라인 병’의 원

리로 3차원 공간에 실현시켜, 같은 크기의 옷감으로써 가장 넓은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서양바지는 2차원, 중국바지는 3차원 공간만을 이용한다는 것이 김상일의 주장이다.⁵⁶⁾ 우리의 전통 옷 ‘한복’이 양복에 밀려 ‘옷’의 자리에서 밀려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고유한 옷을 현대화하여 관복은 물론 생활복으로 널리 입는 생활문화를 살려야 할 것이다.

석굴암은 751년에 건축한 석재 건축물로서 약 1,200년 동안 전혀 문제없이 보존되어 왔다. 그 자체적으로 석굴암의 보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13년 일본인들에 의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있어온 석굴암의 보수공사는 석굴암 내부를 외부의 습한 공기로부터 차단하겠다는 잘못된 현대적 해결방안이었다. 만약 석굴암의 문제가 외부의 습한 공기 때문이 아니라 통풍의 문제라면, 외부의 공기로부터 석굴암을 차단하는 콘크리트 돔을 쌓기보다는 오히려 쌓아놓은 콘크리트 돔을 걷어내는 것이 올바른 개보수 공사일 수도 있다. 서양의 건축공학보다 앞선 ‘우리 과학’ 논리의 개발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인사 장경판전(藏經板殿, 국보 제52호)은 1398년에 현재의 대장경판을 옮겼다고 하니 그 즈음에 건축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건립 후 세 번의 중수 내지 중건이 있었으나 한 번도 화재나 전란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목조건축 양식으로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은 물론, 적당한 환기와 온도·습도 조절 등의 기능을 자연적으로 해결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시사철 문을 열어 놓아도 쥐새끼는 물론 날짐승 한 번 들어온 적이 없으며, 천정에는 거미줄도 치지 않고, 좀 벌레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 그 신비한 건축 기술 때문에 중요한 대장경판이 지금까지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자연친화적인 설계는 현대의 과학자들이 도저히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다. 현대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자연의 원리를 찾아내어 생활 속에 실천한 우리 선조들의 이런 초과학적인 지혜와 설계 능력을 인정하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현대화 시키는 것은 미래 인류사회를 위한 우리의 몫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우리 전통문화들은 ‘우주와의 자연스런 조화’, 즉 큰 하나로의 어울림이라는 우리의 겨레 얼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우리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추어

56) 김상일, 『초공간과 한국문화』, 교학연구사, 1999, 95-109쪽.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로서 경쟁과 투쟁으로 극단적 양극화에 처한 미래 인류사회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도 있다.

5. 마치는 말

선사시대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99.9%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가족-씨족-부족-종족을 거쳐 민족이 형성되고, 마을-고을을 거쳐 국가가 형성되는 시대다. 따라서 민족의 이름이나 형성시기, 종족적 또는 지역적 범위와 그들이 한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공통적인 사유체계인 겨레 얼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만드는 원동력으로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므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 교과서나 역사책에서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라고 시대 구분을 함으로써 그런 흔적을 지워버리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국사교육의 목표를 ‘한국사는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발휘해온 역량을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21세기 우리 역사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⁵⁷⁾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겨레에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저력이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미래 사회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을 기르려면 바로 그러한 민족의 저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구현해왔는가 하는 실재를 가르쳐 그 속에 들어 있는 겨레 얼을 오늘에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해야 한다.

기록이 없는 선사시대의 역사는 신화와 전설로 남아 있다. 따라서 민족의 역사는 이런 우리 겨레 얼의 원형이 포함된 민족 창세신화로서 출발되어야 한다. 창세신화는 인류가 살아온 99.9% 기간 동안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은하들이 각각 다른 위치와 크기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서로 어우러져 돌아가고 있는 자연의 이치를 보고 배운 조상들의 지혜를 축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57) 2015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24쪽.

속에 녹아 있는 겨레 얼은 민족이 형성될 때는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귀속의식, 즉 민족의식의 뿌리가 되었고, 그 후 역사 전개에 원동력으로 작용해왔으므로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키-워드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사에서는 민족의 저력인 겨레 얼의 원형이 담긴 선사시대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여 맨 앞에 실어야 하며, 그 후의 역사도 중화사상이나 서구식 사고가 아닌 우리의 겨레 얼에 따라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술해야 한다. 겨레 얼은 김효신이 말하듯이 ‘우리다운 얼’이 아닌 ‘우리 얼’⁵⁸⁾로서 외래 사상이 들어올 때 그것에 작용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원형문화와 ‘우리의 얼’을 찾는 데 소홀하여 우리나라 등록 문화재의 대부분을 우리의 원형문화가 아니라 우리 문화화된 외래문화인 유교·불교·도교 문화재가 차지하고 있으며, 한철학이 철학계에서 이단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의 얼의 뿌리를 찾아 교과서에 게재함으로써 교육부가 바라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친다.

58) 김효신, 『上古研究資料集』, 도서출판 새남, 1992, XXXI ; “나는 일찍이 ‘우리의 얼과 우리다운 얼(한국사상과 한국적 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인도의 불교사상과, 중국의 유·도교 사상과, 요즘에는 일본의 신도사상 등이 들어와 ‘토착된 얼’(한국화된 외래 사상-논자)과 다른 하나는 겨레에 말려 오롯하게 우리 말에 말려오는 ‘우리의 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부록

〈논평〉 1

‘단군, 신화인가? 역사인가?’

서영대교수의 발표문은 논문형식을 취하지 않고 메모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발표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논평이 가해지기는 어렵다.

단군을 보는 시각은 민족사학과 강단사학이 큰 차이가 있다. 서영대교수의 논문은 단군을 신화로 보는 강단사학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단군을 역사로 보는 민족사학의 관점을 제시하여 본 발표에 대한 논평을 대신한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기록에 대하여 세 가지 표현방식이 존재한다. 神話, 說話, 史話가 그것이다. 신화라는 표현은 역사적 의미가 약하고 사화라는 표현에는 실제역사로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설화는 전설적인 이야기라는 표현으로서 신화와 사화의 중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병도선생은 단군에 대해 줄곧 설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신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단군을 신화로 보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사학계에서는 어쩐 일인지 신화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으며 국사교과서에서도 신화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

‘삼국유사’ 고조선 조항은 신화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환인, 환웅의 ‘환’을 하느님으로 해석하면 신화가 되고 ‘환국’이라는 나라로 해석하면 역사가 된다. ‘一熊 一虎’를 곰과 호랑이라는 동물로 보면 신화가 되고 웅족, 호족이라는 부족으로 보면 역사가 된다. ‘熊女’를 곰이 여자로 변신한 것으로 해석하면 신화가 되고 웅족 가문의 여인으로 해석하면 역사가 된다.

일제는 한국사를 말살시키기 위해 조선사편수회를 만들어 단군조선의 역사적인 요소 보다는 신화적인 요소를 집중 부각시키며 고조선 역사를 실제 역사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광복이후 친일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일본이 사용하던 단군 신화라는 용어를 비판적 검토 없이 받아들여 지금까지 70년 동안 자연스럽게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단군을 신화적인 인물로 묘사한 대목은 단 한군데도 발견할 수 없다.

“조선의 단군은 동방에서 최초로 천명을 받은 임금이다.(朝鮮檀君 東方始受命之主)”
 <태조실록 권1, 원년 임신 8월>

“단군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이다.(檀君 實吾東方始祖)” <태종실록 권 23 12년 임진 6월>

“단군은 조선의 시조이다. (檀君 朝鮮之始祖也)” <세종실록 권 75 18년 병진 12월>

“단군은 당요와 함께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조선이라 한 분이다.(檀君與唐堯竝立 而自號朝鮮者也)” <세종실록 권 29 7년 을사 9월>

“단군은 바로 우리 동방에서 맨 먼저 출현하신 성인이다. 역사상에서는 머리를 땀고 관을 쓰는 제도와 군신 상하의 직분과 음식 거처의 예의가 모두 단군으로부터 창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단군은 동방에 실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혜택을 남겨주신 분이다. (檀君 卽我東首出之聖 史稱編髮蓋首之制 君臣上下之分 飲食居處之禮 皆自檀君創始 則檀君之於東 實有沒世不忘之澤)” <정조실록 권22 10년 병오 8월>

“예전에 동방에는 초기에 임금이 없었다. 단군이 최초로 나오시니 예의와 겸양의 풍속이 형성되게 되었다.(粵昔東方 初無君長 檀君首出 禮讓之風成)” <고종실록 권34 건양 원년 10월>

이상에서 인용한 기록들을 보면 조선왕조는 태조 이성계로부터 마지막 임금인 고종에 이르기까지 단군을 민족의 시조, 건국의 국조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동방사회에 문물제도와 예의도덕을 구현시킨 문화와 문명의 시조로 인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강점기 단군을 신화적인 인물로 취급하여 헌병대를 동원해 단군 능을 파괴했다. 무덤을 평지로 만들어 그 땅을 개인에게 불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역사의 출발점인 고조선을 말살시키고 민족정신의 원천인 국조 단군을 망가뜨릴 목적으로 일본이 식민사학자를 동원해 만든 단군신화라는 단어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옳겠는가. 아니면 상고시대로부터 조선왕조 50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민족이 줄곧 견지해온 단군국조라는 정신을 계승하여 단군史話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 동안 민족의 시조, 고조선의 국조로 인식한 단군을 왜 오늘날 우리가 일본의 흉내를 내며 신화로 취급하는가. 단군이 신화라는 것은 일본의 식민사학자가 주장하는 논리고 단군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민족의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의 사료가 입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국혼을 말살하기 위한 일본 식민사학자의 주장인 단군신화라는 설을 폐기처분하고 단군사화라는 용어를 학계의 보편적인 용어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래서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단군신화라는 용어들이 모두 단군사화라는 용어로 교체될 때 우리의 역사광복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논평〉 2

‘燕, 秦 長城의 東端과 관련된 논의’

공석구 교수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논평자의 관점과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들어왔다. 견해가 다른 주요부분을 다음과 같이 질문형태로 요약한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연나라와 진나라의 장성 동쪽 끝이 어딘지 알려면 후기에 만리장성 길이를 늘이기 위해 조작한 중국지도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전국책,’ ‘사기,’ ‘한서,’ ‘후한서’ 등에서 연나라와 진나라의 강역을 검토해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예컨대 ‘사기’ 소진열전에 소진이 문후를 만나 연나라의 강역을 설명하면서 “연나라가 동쪽에는 조선, 요동이 있고 북쪽에는 임호, 누번이 있고 서쪽에는 운중, 구원이 있고 남쪽에는 호타하, 역수가 있는데 강역이 2천리이다.”라고 설명한 대목이 나온다. 연나라의 서쪽강역이 운중, 구원이고 남쪽강역이 호타하,역수였다면 당시 연나라는 산서성 동쪽과 하북성 동남쪽에 걸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천리 강토를 소유한 연나라는 오늘의 북경 부근에 있었으며 그 강역은 하북성을 벗어나지 않았다. 연나라 소왕 때 진개가 고조선 서쪽 땅을 침략하여 북쪽으로 국경을 넓혀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 5군을 설치했다. 상곡군은 오늘의 북경 서쪽에, 어양군은 북경 북쪽에 우북평, 요서, 요동군은 북경의 동쪽과 동북, 동남쪽에 걸쳐 있었다. 이때의 요서, 요동은 오늘날 요하 동쪽이 아닌 하북성 조하(조선하)의 동쪽을 가리킨다.

따라서 연나라는 북쪽으로 5군을 설치한 이후에도 그 강역은 하북성을 넘지 못했다. 그렇다면 연나라 장성이 요녕성을 지나 압록강을 넘어 평양부근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무지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문헌적으로 연나라, 진나라의 강역을 검토하지 않고

연나라 진나라의 장성을 한반도까지 끌어드린 중국 지도만을 인용하여 설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

발표제목이 연,진 장성의 동단과 관련된 논의이다. 그런데 전문을 다 읽어보아도 만리장성의 동단에 대한 발표자의 관점이 보이지 않는다. 연,진 장성은 우리의 역사영토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이다. 만리장성의 길이를 한반도까지 늘어놓은 중국지도를 주로 인용해 놓고 발표자의 비판적 검토와 관점이 보이지 않으면 한국의 일반시민은 물론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중국의 역사학자들에게 커다란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발표자는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어디로 보는지 견해를 밝혀 달라.

발표자는 연,진 장성의 동단을 다루면서 주로 장성의 지도가, 대륙에서 한반도 안쪽까지 연결되어 그려져 있는 지도를 인용했다. 중국지도 중에 그렇게 그리지 않은 지도도 많이 있다. 중국지도출판사 편제, 신화서점 판매의 중화인민공화국 전도는 현재 가장 대표적인 중국지도다. 이 지도에도 만리장성의 출발지점은 평양이 아닌 산해관 부근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굳이 한반도 안쪽까지 연결하여 그린 장성지도들을 가지고 만리장성 동단을 설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낙랑군 수성현을 수안으로 간주한 강단사학의 논리와 가깝기 때문은 아닌가. 설명을 듣고 싶다.

발표자가 장성 동단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지도들 가운데는 갈석산, 수성현 등이 평양 부근에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인다. 이것은 평양에 본래 없던 갈석산과 수성현을 만리장성 길이를 늘이기 위해 저들이 거기다 위조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발표자는 ‘학술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단원에서 이에 대해 전혀 비판적 검토가 없었다.

이는 일반인이 볼 때는 마치 갈석산과 수성현이 평양부근에 실재했던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 발표자는 갈석산과 수성현이 평양부근에 있었다는 지도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이를 비판하지 않았는가.

발표자는 ‘진서’에서는 낙랑군 수성현의 만리장성 기점을 설명하면서 갈석산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태강지리지’에는 ‘진서’에 없는 갈석산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태강지리지’의 기록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였다. 그러나 ‘진서’ 이외의 당나라 전후시

기 다른 중국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국경문제를 언급할 때는 갈석산이 의례히 등장한다.

예컨대 ‘사기’ 권27 천관서 제5 장수절의 ‘사기정의’에 보면 중국의 산천을 설명하면서 “산은 곤륜산에서 시작하여 갈석산에서 끝나고 황하강은 곤륜산에서 발원하여 발해로 유입된다.”라고 하여 중국의 국경이 “尾沒于渤曷” 즉 발해, 갈석산에서 끝난다고 표현했다. 장수절은 고구려가 망하기 이전의 인물이다. 이것은 당 고종때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까지 당나라와 고구려의 국경선은 갈석산이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준다.

그리고 당태종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親征에 나설 때 ‘親征高句麗詔’를 내렸는데 거기에 “問罪遼曷”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고구려가 갈석산 부근에 있지 않았다면 왜 당태종이 고구려를 치러가면서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묻겠으며 갈석산을 들먹였겠는가. 이런 자료들을 종합 검토한다면 ‘태강지리지’에서 만리장성의 출발점을 말하면서 갈석산을 언급한 것이 맞고 ‘진서’에서 갈석산을 빼 놓은 것은 동이와 중원의 국경선인 갈석산의 실체를 숨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발표자는 오히려 ‘진서’를 근거로 ‘태강지리지’를 비판했다.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발표자는 한사군의 한반도 설치설을 인정하고 ‘태강지리지’의 낙랑군 수성현 기록은 낙랑군이 요서지방으로 옮겨진 이후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라고 역단했다. 이씨조선이 건국되기 전인 송나라 이전의 기록에선 한사군 한반도설은 찾아지지 않는다. 이씨조선 건국 후 명말청초에 대륙조선을 말살할 목적으로 한반도 낙랑군의 요서 이동설, 대륙에 설치된 모용씨 낙랑은 한반도에 설치된 한사군과는 무관하다는 설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한족 민족주의자 고염무, 고조우 등에 의해 위조된 것이며 구체적 문헌 근거는 전혀 없다. 발표자의 주장대로 낙랑군이 본래 한반도에서 요서지방으로 옮겨졌다면 어떤 이유에서 누가 언제 옮겼는지 정확한 이동시기와 배경 등을 관련 문헌을 근거로 들어서 밝혀 달라.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쪽 출발지점을 평양 부근의 수안으로 비정한 것은 稻葉岩吉 등 일본인 식민사학자가 최초로 그렇게 주장했고 그 뒤 중국의 왕국량, 곽말약 등이 그러한 관점을 계승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에 찬성하지 않은 학자가 한국은 물론 중국학자 중에도 많이 있다. 특히 한국의 신채호, 정인보, 리지린, 심백강 등은 중국의 객관적인 사료

를 통해 만리장성 동단이 북한의 수안이 아니라 갈석산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발표자는 이런 자료는 거의 인용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다.

논평자는 ‘사고전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연, 진 장성의 동단은 현재의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이라고 생각한다. ‘태강지리지’에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 여기가 만리장성의 기점이다”라고 말했다. 수성현, 갈석산, 만리장성 기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역은 서수현 수성진 뿐이다.

현재 갈석산이 있는 하북성 창려현은 낙랑군 수성현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창려현이 수성현이 된 적은 없다. 소진이 연나라 문후에게 연나라 남쪽 호타하, 역수 인쪽에 갈석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현재의 서수현 수성진, 한나라때의 낙랑군 수성현 갈석산이다.

현재의 창려현 갈석산은 한무제가 낙랑군을 설치할 당시에는 갈석산이 아니었다. 왕망 시대에 계석산이란 이름을 붙였다. 동한 이후에는 창려현의 계석산이 갈석산으로 불렸다. 두우의 ‘통전’에 우갈석, 좌갈석 두 개의 갈석산을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우갈석은 수성현 갈석을 가리키고 좌갈석은 창려현 갈석을 말한다.

창려현 부근의 산해관 장성은 진나라시대의 만리장성 기점이 아니라 명나라 시대 서달을 시켜 쌓은 명장성이다. 그러나 수성진에는 연,진시대 장성 동단의 유적이 있다. 지금도 중국 문물국에서 보존하고 있다.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을 만리장성 기점으로 보는 논평자의 견해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논평〉 3

‘토성리토성(낙랑토성)의 발굴조사와 출토유물의 성격’

낙랑사가 바로서면 한국사가 바로 선다. 낙랑사는 한국사 연구에서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토성리토성(낙랑토성)의 발굴조사와 출토유물의 성격’에 대해 발표한 정인성교수의 논문 한 편을 놓고 자구에 매달리며 지엽적인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개괄적인 입장에서 낙랑사 연구 70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해보는 것이 낙랑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국 주류사학, 낙랑사 연구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논평자의 관점을 개진하여 논평을 대신한다.

한국 주류사학, 낙랑사 연구의 문제점과 과제

1. 낙랑사 연구 70년의 고고학적 문제점

낙랑사는 한국사가 반도사나 대륙사냐를 결정 짓는 분수령이다. 따라서 일제는 강점기에 한사군의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는 대동강 낙랑설을 내세워 한국사를 반도사로 왜곡했다. 일제가 주장한 대동강 낙랑설의 주요 근거가 된 것은 평양 남쪽 토성리에서 발굴된 봉니와 와당, 점제현 신사비 등이다. 그리고 그 후 다시 대동강 낙랑설을 뒷받침하는데 크게 주목받은 유물은 낙랑목간이다. 아래에서 지난 70년 동안 대동강 낙랑설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고고유물들을 중심으로 낙랑사 연구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1) 평양 남쪽 토성리 유물, 봉니와 와당

‘회남자’에는 “갈석산을 지나서 조선국이 있다”고 하였다. ‘무경총요’에는 “북경과 그 동북쪽 고북구 사이에 조선하가 있다”고 나와 있다. 낙사의 ‘태평환우기’와 나필의 ‘노사’에는 “현재의 진황도시 노룡현에 조선성이 있다”고 하였다.

‘전한서’에는 “한무제가 갈석산을 지나서 낙랑, 현도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무경총요’에는 “낙랑과 현도가 요수 유역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낙랑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는 고고학적 유물유적은 갈석산, 조선하, 요수, 조선성 등이다. 평양의 대동강 유역에서 갈석산, 조선하, 요수, 조선성 유적을 발굴한 일이 있는가.

평양 남쪽 토성리에서 나온 낙랑이란 문자가 새겨진 봉니와 와당은 일체가 강점기에 발굴한 것이다. 한사군 한반도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나 변조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가령 그것이 진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대동강유역이 낙랑임을 증명하는 움직임일 수 없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산과 강이나 성과 달리 유동이 가능한 유물로서 문화교류차원에서 관료나 상인에 의해 유입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대동강 유역이 낙랑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물로 맹신하며 한국 역사학계가 광복 70년 동안 일체의 대동강낙랑 사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2) 점제현 신사비

점제현 신사비는 1914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단(古蹟調査團)에 의해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발견되었다. 일제는 점제현은 낙랑군의 25개현 중의 하나인데 점제현이 지금의 용강군임이 신사비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동강 낙랑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내세웠다.

그러나 광복후 북한 학계에서는 점제현 신사비는 한사군, 한반도설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의 식민사학자 이마니시류가 변조했다는 설을 제기했다. <조선고고연구>(1995년 제 4호) 발굴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비석의 기초에 시멘트를 사용한 것이라든가, 비석으로 사용된 돌의 화학 성분이, 발굴된 지역 근처의 화강석과는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국 고고학계의 태두인 손보기(孫寶基) 교수는 갈석산에 신사비 크기의 바위를 쪼아 낸 자국이 있으며 일본인들이 갈석산에 있던 신사비를 배에 실어 평안남도 용강군으로 가져다가 그곳에 뉘어놓고 옆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를 배경으로 비석의 사진을 찍어서 그곳이 낙랑군 점제현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점제현 신사비에 대한 북한학계의 변조설과 남한 학계 손보기교수의 반입설이 제기된 후 이에 대해 뚜렷한 반론이나 또는 점제현 신사비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새로운 연구발표가 없었다. 따라서 점제현 신사비의 대동강 낙랑설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유물로서의 가치는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낙랑군 호구부 목간

일본의 이마니시류가 발견한 점제현 신사비의 위,변조설, 요서에서의 반입설 등이 제기되어 용도 폐기된 이후 대동강 낙랑설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유물로 새롭게 주목된 것이 ‘낙랑군 호구부’ 목간이다. 그러나 ‘낙랑군 호구부’ 목간이 과연 대동강 낙랑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첫째 일제의 위조 가능성이다. 이 목간의 제목이 ‘낙랑군 초원4년 縣別 호구 多少簿’이다. 초원 4년은 한나라 원제시기가 아니라 도별, 군별, 현별, 지역별, 이런 용어들은 근대 사회 이후 주로 사용된 용어이고 고대어가 아니다. 고대사회에서는 ‘별’자 대신 ‘각’자를 써서 각도, 각군, 각현으로 표기했다.

여기 보이는 ‘현별’이라는 표현은 한나라 시대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나

라 당시의 기록이라면 “낙랑군 초원4년 각현 호구 다소부” 라 해야 옳는데 목간에는 “낙랑군 초원4년 현별 호구 다소부”라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목간의 위조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둘째 최초로 이 목간을 연구 발표한 북한의 역사학자 손영종은 자료 내용을 분석 검토한 뒤 요하부근의 낙랑군 존재설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목간 출토지가 평양인 것은 요동 낙랑군의 관리가 목간을 들고 도망해 왔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그런데 남한 학계에서는 이를 반박했다. 손영종과는 정반대로 그 목간이 낙랑군 대동강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주장했고 윤용구, 윤선태 등이 이런 연구의 흐름을 주도했다. 그러나 목간의 실물을 볼 수 없고 목간 정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평양 부근이 낙랑군이었다고 단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속단이다.

셋째 이 목간은 평양 남쪽 정백동 무덤에서 출토되었을 뿐 평양 남쪽이 한사군의 낙랑이었다는 어떠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당,송 이전의 문헌자료에 의거하면 평양은 한사군의 낙랑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다. 그러면 어째서 낙랑군의 호구명부가 이 지역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는가. 이 호구부가 진본이 맞다면 대동강 낙랑설 위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당시 일인 사학자에 의해 점제현 신사비처럼 일본이 중국의 요서지역에서 발굴한 다음 평양지역으로 옮겨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당시에 중국의 동북지방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그것은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가능한 일이다.

넷째 한나라 요서지역에서 벼슬하던 낙랑군의 한족 관리가 한반도 평양지역으로 도망쳐 오면서 이쪽 관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 선물로 몰래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 초기 유방이 공신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연나라 노관이 흉노로 도망치자 위만이 조선으로 망명했던 것처럼 한나라 이후 중국의 관료나 상인들의 수많은 유입이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역사학자 손영종이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이다.

위에서 열거한 네 가지 가능성 중에서 첫 번째나 또는 세 번째일 가능성의 확률이 가

장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고고학적으로 한사군 한반도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고고학을 들먹이며 한사군 한반도설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국 역사학계의 답답한 현주소이다.

2. 낙랑사 연구 70년의 문헌학적 문제점

1) 당송이전 고대문헌의 낙랑군 대륙설

한, 당을 거쳐 송나라 때까지는 중국의 주요 문헌에서 한사군의 낙랑군 조선현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모든 문헌에서 하나같이 낙랑군은 요동 또는 요서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 이씨조선 건국후 등장한 고염무와 고조우의 낙랑군 한반도설

○고염무의 설

이씨조선 건국후인 명말 청초 시기에 중국의 민족주의자에 의해 낙랑군 관련 두 가지 새로운 학설이 대두되었다. 하나는 고염무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慕容氏於營州之境 立朝鮮縣 魏又於平州之境 立朝鮮縣 但取其名 與漢縣相去則千有餘里” 중국 대륙에 모용씨가 뒤에 설치한 낙랑군 조선현은 이름만 빌려왔을 뿐 앞서 한무제가 한반도에 설치한 낙랑군 조선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고염무설의 오류

‘위서’ 지형지에 “영주에 낙랑군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 주석에 “前漢武帝置二漢晉曰樂浪 後改 罷 正光(북위 효명제 元詡의 연호, 520-525)末復”이라 나와 있다. 이는 북위시대 영주에 모용씨가 설치한 낙랑군이 전한시대 한무제가 설치했던 낙랑군이

며 낙랑군을 낙랑군으로 명칭을 바꾸어 설치했다가 폐지했는데 효명제때 다시 부활된 사실을 설명하였다. “모용씨가 영주에 설치한 낙랑군 조선현은 한사군과는 무관하다”는 고염무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다.

○고조우의 설

고조우는 영평부 노룡현 동쪽, 현재의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동쪽에 조선의 옛 성이 있는데 이는 이씨 조선경내에 있던 한나라 낙랑군의 조선현 백성을 延和(북위 태무제 拓拔燾가 사용한 연호, 432-435) 원년에 이곳 노룡현으로 이주시켜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조우의 이론적 근거는 ‘위서’ 지형지 북평군 조선현 조항 주석의 “二漢晉屬樂浪 後罷 延和元年 徙朝鮮民於肥如 復置屬焉”이다. 이 글은 북위시대 평주 북평군 소속의 조선현은 원래 한사군의 낙랑군 조선현인데 뒤에 폐지되었다가 연화 원년에 폐지되었던 조선현을 다시 살려 북평군에 소속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에서 “徙朝鮮民於肥如”가 핵심 내용인데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낙랑군 조선현의 백성을 요서군 비여현으로 이주시켜 조선현을 다시 설치했다는 의미다. 다른 하나는 비여현으로 통폐합되었던 조선현의 백성을 비여에서 다시 옛 조선현 땅으로 이주시켜 조선현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고조우설의 오류

북위시대에 요서군 비여현과 낙랑군 조선현은 지금의 하북성 동쪽 노룡현 일대에서 이웃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현간에 상호 통폐합과 분리 독립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고조우는 원래의 “二漢晉屬樂浪 後罷 延和元年 徙朝鮮民於肥如 復置屬焉”이라는 ‘위서’의 기록을 ‘대청일통지’에서 “朝鮮古城 在盧龍縣東 漢樂浪郡 有朝鮮縣 在今朝鮮境內 後魏延和元年 徙朝鮮民於此 置朝鮮縣 屬北平郡”이라 변조했다.

‘위서’ 북평군 조선현 조항의 “徙朝鮮民於肥如”라는 문장은 하북성 낙랑군에 있던 조선현의 백성을 하북성에 있던 요서군 비여현으로 이주시켰다는 것이 정상적인 해석이다. 이 문장만으로는 대동강유역에 있던 한나라 낙랑군 조선현의 백성을 하북성 북평군 노룡현 지역으로 이동시켜 조선현을 다시 설치했다는 논리의 도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조우는 ‘위서’의 원래 문장에 자의적으로 “漢樂浪郡” “在今朝鮮境內” 등을 추가했고 요서의 비여현을 지칭하는 “비여”를 此자로 바꾸어놓았다. 마치 북위시대에 한반도 조선국 경내에 있던 한사군의 낙랑군을 하북성 노룡현으로 이동한 것처럼 문장을 날조했다. 그 후 ‘위서’ 원전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많은 학자들은 고조우가 날조한 “조선경내 한 낙랑군의 요서 이동설”에 속아 넘어 갔다.

3) 명말청초에 변조된 낙랑군 僑置說을 따르는 한국의 주류사학

僑置는 원래의 군현이 함락되었을 때 다른 지역에 그 이름으로 다시 군현을 세워 난민을 이주시키던 중국고대의 특수한 행정구역 제도를 가리킨다. 동진시대 북방의 영토가 함락되자 남쪽으로 정부가 이동하여 수많은 僑郡을 설치했다. 한사군의 낙랑군은 본래부터 하북성 요서지역에 설치되었으며 대동강 유역에서 요서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다. 교치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현재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동북공정 이후 고염무, 고조우가 변조한 주장을 배경으로 한반도 낙랑군의 중국대륙 僑置설을 주장한다. 한국의 주류사학계는 중국학자들의 견해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 낙랑군 교치설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광복 이후 한국 주류사학계가 문헌연구를 게을리 한 탓이다. 고염무와 고조우가 낙랑군 왜곡의 근거로 삼은 ‘진서’와 ‘위서’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위는 금방 가려진다.

4) 이씨조선이 건국되지 않았다면 한반도 낙랑군설은 태어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씨조선이 건국되지 않았다면 한반도 낙랑군설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씨조선 건국 후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요서의 낙랑군 조선현이 한반도의 낙랑군 조선현으로 왜곡되었고 이것이 일제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지금은 동북공정이 그 이론을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의 주류사학은 그 관점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상태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사학계는 상,고대사에 대한 문헌 연구를 강화하여 사대, 식민사학의 오류와 동북공정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3. 앞으로의 과제

당,송 이전의 중국문헌에서 낙랑군 대동강설을 입증할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고학적으로도 현재 대동강 낙랑설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다. 낙랑사 연구에서 고고학적 일차 연구대상인 갈석산, 조선하, 요수, 조선성은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일이 없다. 2차, 3차 연구대상인 고고학 자료들도 대체로 위조로 판명이 나거나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평양 부근 토성리에서 발굴되는 유물은 토성리의 토성유물일 뿐 낙랑유물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토성리에서 발굴된 유물에 대해 아무 거리낌 없이 낙랑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단군에서 ‘단군신화’라는 일제가 남긴 유산을 폐기처분해야 하듯이 토성리 유물에서 ‘낙랑유물’이라는 일제가 남긴 잔재를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에서 고조선과 한사군 연구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백지상태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는 용어부터 평양 남쪽 토성리에서 발굴되는 유물에 대해 무조건 낙랑유물로 이름붙이는 것을 자제하고 평양 토성리 유물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문헌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된 것이 없는데 왜 일본인이 만들고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대동강 낙랑설을 한국인이 고집하는 것인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한다. 그것이 한국의 역사학계가 풀어가야 할 당면한 과제이다.

추가: 이번 상고사 학술회의(17일,목)에서 본 토론자가 논평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은 모두 3편이다.(서영대, 공석구, 정인성) 다만 발표 원고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 내에 3편의 논문을 정독하고 제대로 된 평문을 쓰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많은 인용문에서 출전이 생략되었다. 혹시 시간에 쫓겨 발표문의 정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한다. 논평의 게재 순서는 발표문의 순서를 따랐다.